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9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5월 24일)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은 6월 17~18일 안양본원에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세계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세계 석학과 비구니 스님들이 참석했다. 사진은 前샤카디타인터내셔널 회장 카르마 렉쉐 쏘모 스님이 주제 발표를 하는 모습. 사진= 박재완 기자

세계 비구니 승가 현실 · 과제 조명하다

대행선연구원,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 개최

'세계 비구니 승가' 주제로 진행
국내외 석학 · 비구니 스님 참석
비구니 승가 현황 · 과제 조명해
묘공학술상 · 학술장학 시상식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연구실장 혜선)은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는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대행선연구원 연구실장 혜선 스님 등 내외빈이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대행 선사의 삶 자체가 비구니 승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성별을 넘어 누구나 출가해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를 논의하며 나아갈 방향을 탐색하는 오늘의 자리는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대행 스님이 주창한 대행선 기본도량인 한마음선원에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다. 오늘은 전 인류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면서 "학술은 우리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방법론의 제시로 이해하면서 함께 가자는 것이다. 수행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수행하면서 함께 부처님이 깨달은 자리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주요 내외빈의 축사도 이어졌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축사에서 "묘공당 대행 스님은 한국불교 근현대사에서 비구니 승가의 역량을 크게 선양했다. 그런 의미에서 스님의 열반 10주기를 맞아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매우 시기적절하다"며 "오늘 국제학술대회가 비구니 승가에 대한 진단과 해결점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축사에서 "오늘 학술대회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비구니 승가의 나아갈 방향을 재고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비구니 승가의 현재 상황과 발전 방안을 세계 석학과 비구니 스님이 하나의 주제로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주목된다"고 기대했다.

'세계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는 동 · 서양을 대표하는 비구니 스님들과 여성불교 전문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해 각국 비구니 승가의 현황과 과제를 짚었다. 특히 비구니계 수계를 받을 수 없는 일부 국가의 상황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前 샤카다카인터내셔널 회장 카르마 렉쉐 쏘모 스님(미국 샌디에고 대학 종교학과 교수)은 티베트불교 내 비구니계 수계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툽텐 쬐된 스님(미국 쉬라바스티 애비 주지)은 티베트불교 서구 여성출가자들의 어려움과 극복 노력을 소개했다. 자하니 드 실바 박사도 스리랑카 비구니 계맥 복원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대해 전했다.

또한, 양성평등적 교단 운영으로 비구니 승가와 불교 발전을 이룬 나라도 있었다. 대만 비구니 승가를 소개한 창쉔 스님은 "전후 대만에서 구현된 현대 중국불교 부흥 운동인 인간불교를 통해 비구니들이 불교계뿐만 아니라 세속사회에서도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비구니 승가의 역사를 발표한 류팝 스님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비구니 사원이 등장했고, 여성출가자의 수가 남성출가자의 10배가 된다. 불교교육 과정과 대학을 열면 항상 비구니 학인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한국 비구니 승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비구니 출가의 급감 원인이 차별적 출가문화와 불안정한 노후에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개인주의 문화가 깊이 자리한 승단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공동체 정신 재건을 강조했다. 또한 종단 내 성평등 문제의 해결도 촉구했다.

대행선 연구실장 혜선 스님은 대행 선사가 창건한 한마음선원의 발전 방안으로 △학교 건립 △대행선 연구 체계화 · 대중화 △대행선 국제화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묘공학술상 · 묘공학술장학 시상식이 열렸다. 묘공학술상 대상에는 이상호 박사(서강대), 우수상에는 최원섭 동국대 WISE 캠퍼스 강사, 특별상에는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석좌교수 인경 스님이 수상했다.

〈학술대회 지상중계 4 · 5면〉

관음종 제9세 종정에 홍파 스님 추대

신임 총무원장 법명 스님
6월 24일 임명장 수여해



대한불교관음종 종정추대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종정추대위원회를 소집해 홍파 스님〈사진〉을 대한불교관음종 제 9세 종정으로 추대했다. 이날 원로원장 법륜 스님(흥륜사 주지)은 "30여 년간 종단 위상 제고를 위해 진력한 홍파 스님께 감사하다"며 "이제 종단의 가장 큰 어른으로 종단의 기강을 바로 세워 주실 것"을 당부했다.

종정으로 추대된 홍파 스님은 "제8세 종정이셨던 남천 죽산 스님 원적 후 오랜 시간 종정의 자리가 비워졌던 만큼 막중한 중책을 맡게 돼 부담이 크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 종단 위상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홍파 스님이 종정으로 추대되면서 관음종은 신임 총무원장으로 현 중앙종회의장 법명 스님을 임명했다. 관음종 종헌종법에는 종정이 총무원장, 호법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등 4원장을 임명토록 돼있다.

한편, 정오 법명 스님은 자신의 주석사찰인 경남 창녕 법성사서 6월 24일 총무원장 임명장을 수여받는다. 이날은 법성사를 창건한 법성 대법사 탄신 95년의 날이기도 하다. 김주일 기자

2022년 불교 군종사관후보생 응시 '無'

군승 수급 적신호, 후보생 제도 활성화 필요

군포교 핵심자원 '군승'의 주요수급처였던 불교 군종사관후보생이 무응시로 마감됐다. 군승 파송 미달로 군포교 현장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6월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2022년 불교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에서 응시자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부터의 군종사관후보생 파송 인원은 없는 상태다.

불교 군종사관후보생은 2013년까지 평균 경쟁률 3:1 수준으로 응시자가 많았으나 2014년 이후 급감, 2018년 이후 응시자가 없다시피하다가, 2021년 2명이 응시했지만 최종 선발과정서 탈락했다.

국방부 군종과 원공 공석준 군승법사는 "지난해 실제 응시한 지원자 2명의 경우 스님이었다. 군승요원이 아닌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자 한 것으로 안다"며 "일반 재학생은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자가 없었다"고 전했다.

군종사관후보생 응시자 감소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군승 수급을 요원 모집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군승요원 지원자까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군승 파송 미달에 이어 2023년과 2024년 파송도 현재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군종특별교구는 2023년 국방부 파송 요청 인원 17명 중 예비군승요원으로 11명을 확보한 상태다. 2024년 예비군승요원은 2명으로 예비자원 충원이 필요하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5월 동국대와 중앙승가대학 등 종립대학 등에서 예비자원 충원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지만 군종사관후보생 제도 활성화에는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재가학생 지원 수년째 '0'
군복무제도 변화 등 반영
재학생 응시 활성화 과제

군승으로 대변되는 불교군종장교 파송 활성화에는 여러 가지가 과제로 꼽힌다. 이중 수년간 파송 인원이 없는 상태인 불교 군종사관후보생 제도 활성화에는 전면적인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설명회를 진행한 원광사 주지 지효 손영주 군승법사는 "불교대학 재학생들조차 사병 복무를 선택하고 있다. 군복무제도 변화로 학군단(ROTC) 등 군종사관후보생과 유사한 제도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재학생 입장에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기획 3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법랍 70년을 맞이하신 화산당 월인 대종사님께 조사전을 헌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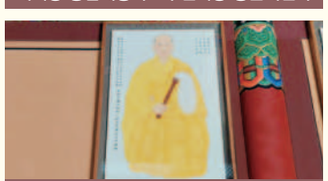
사)대한불교 승가종 화산당 월인 대종사 상좌, 손상좌 324명 일동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진마대로2520번길 251 승가사내 조사전 전경


진종당 용성조사님 보화당 석우대종사


대희당 봉암대종사 무진여당 종준대선사


화산당 월인대종사



진주시 · 총림선원 소송에 선학원도 가세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재단법인 선학원이 총림선원 부지를 일방적으로 진주시에 매각한 사건과 관련, 총림선원이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에 선학원이 피고 진주시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주목된다. 특히 선학원 측은 준비서면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분원의 재산권한 일체를 전면 부정하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6월 9일 진주시와 총림선원간 진행 중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2차 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소송에는 재단법인 선학원이 피고 측인 진주시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보조참가는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소송당사자 등 한쪽을 승소시키기 위해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선학원 측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해 총림선원의 소송 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준비서면에 따르면 선학원 측은 "사찰은 사찰의 모든 재산을 선학원에 증여해 선학원의 분원이 됨으로써 독자적인 당사자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분원의 재산은 모두 선학원 소유이며 분원이 관리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처분권한은 소유자인 선학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선학원의 분원관리규정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사실상 재단이 분원 재산을 분원 동의 없이 처분하더라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6월 9일 진행된 2차심리에서 총림선원 부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임을 입증하는 경상남도 사실조회서가 회신됐다.

6월 9일 진주지법 2차 심리서
분원 재산권 무시한 주장 논란
산18-1번지 직접 매수 주장도

총림선원, 유족 증언으로 반박
전통사찰보존지 입증서류 제출
7월 21일 3차 심리 진행할 예정

이번 심리에서는 소송의 원인이 된 망경동 18-1번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임을 확인하는 서류도 제출됐다. 앞서 진주시와 선학원 측은 "매매계약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가 누락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총림선원 측 주장과 관련, "해당 부지가 전통사찰보존지(혹은 보존구역)가 아니기 때문에 관할청의 허가를 득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재판부에 회신한 사실조회서에 따르면 산18-1번지는 총림선원의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되며, 해당 부지는 경내지(전통사찰보존구역) 현황 목록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선학원 측은 해당부지와 관련해 "총림선원이 선학원에 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소유자인 김모씨로부터 선학원이 직접 매수했다"며 "선학원이 직접 관리하는 '재단 직할 토지'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림선원 측이 당시 총림사 재산의 무상증여를 확인하는 서류와 함께, 토지 원소유자의 유족 A씨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 선학원 주장을 반박함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원소유자 김모씨는 총림선원(당시 총림사)를 창건한 황야공 보살의 직계가족이며, A씨는 원기증자 김모 씨가 본인 명의의 모든 총림사 재산을 총림사로 이전할 당시의 업무를 처리한 당사자다.

A씨는 해당 문서에서 "1977년 이전에는 총림사가 조계종 해인사 말사였기 때문에 조계종 법에 따라 재산을 총림사로 이전시켰지만, 1977년 총림사가 재단법인 선학원을 소속 종단으로 하게 되면서 1979년에는 총림사에 재산을 넘기는 방법으로 당시 총림사 주지의 안내에 따라 재단법인 선학원 명의를 택한 것"이라며 "당시 원기증자는 총림사가 선학원 소속이 됐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오로지 총림사의 영구보전과 발전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지스님이 말한 서류를 제출했고 모든 재산은 무상증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현 상황에 대해 "신도가 사찰에 시주한 부동산을 종단이 팔아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총림사가 재산을 회복해 원기증자의 유지가 훼손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다음심리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다음심리는 7월 21일 열린다.

"정상화 총력 다 하겠다"

나눔의집 대표 성화 스님



"할머니들을 편히 모시는 것을 최우선 삼아 운영상 지적 사항을 개선하고 나눔의집의 제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 25일 개최된 나눔의집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된 성화 스님〈사진〉이 6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표이사로서의 포부와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성화 스님은 "나눔의집 개관 30년을 맞아 순수 민간차원에서 수 십 년 동안 노력한 나눔의집의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성화 스님은 나눔의집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세 가지로 나눠 제시했다.

먼저 생존 할머니들이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는 양로시설로써 행정적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나눔의집에는 98세 어르신을 포함해 4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다. 성화 스님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정신적, 의료적, 일상생활에서 평안하실 수 있도록 모실 것"이라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각종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월 14일, 기자간담회서 운영계획
역사관 개보수 등 안정 찾기 최선
"할머니 평안한 여생에 전념할 것"

2년 넘게 운영되지 못했던 나눔의집 부설 시설인 역사관의 재개관 계획도 밝혔다. 역사관 재개관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성 인권 유린 문제가 수면위로 오르면서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상징적 장소가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다.

나눔의집은 빠른 시일 내에 역사관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 학예사 채용 등 조속한 개관 준비를 착수한 상태다. 전문가를 통해 어르신의 유품과 전시물에 대한 진품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목록 작성 등 철저한 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년이 넘도록 임시이사 체제 속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법인 정상화를 위해서도 힘쓴다. 성화 스님은 "사회복지법이나 재무회계 등 행정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나눔의집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건물 노후화로 인한 보강공사와 방문자를 위한 공간 활용, 무허가 건물들에 대한 시설 정비도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다.

나눔의집은 안정화를 통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반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8월 14일 관내에서 진행될 기림의날에서는 할머니 17분 동상 앞에서 추모기도회를 봉행하고 주요 인사를 초청, 기념공연 등을 펼친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 여성을 위한 국제연대도 결의할 방침이다.11월에는 개관 30주년을 맞아 나눔의집과 역사관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세미나가 계획돼 있다. 마지막으로 올해 연말에는 1992년 서교동에서 시작된 나눔의집의 역사를 정리한 30년사를 발간하고 관련 기념행사를 통해 향후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화 스님은 지난 4월, 경기도 광주시민 모임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시민 모임은 "나눔의집은 법인 정관상 사업 목적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양로시설로 돼 있지만, 이곳에 계신 할머니들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소득이 있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경기도는 6월 12일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성화 스님은 "나눔의집이 양로시설로 분류돼 있지만 어르신들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특별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상태"라면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감사가 진행돼 불필요한 싸움이 일단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7월 19일 개원

6월 15일 연석회의서 확정

조계종 제225차 중앙종회 임시회가 7월 19일부터 5일 회기로 개원한다. 이번 임시회는 사실상 제17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임시회라는 점에서 어떤 안건들이 논의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6월 14일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 특별위원장 제23차 연석회의를 열고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제225회 임시회는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며 안건접수 기간은 7월 12일까지, 종책질의 접수는 7월 14일까지다.

주요안건으로는 종책질의의 건과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제224회 임시회에서 이월된 사찰부동산관리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또 총무원 발의로 대종사 · 명사 임명 동의안의 건이 제출될 예정이며, 7월 6일 열리는 원로회의에서 결의된 안건이 제출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석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가 사실상 제17대 마지막 회의임을 감안해 종무보고의 건을 안건에 포함할지 여부도 논의됐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 이후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적인 보고의 효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면서, 종책질의를 충실히 진행해 전반적으로 점검이 가능토록 하자는데 공의를 모았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하안거 포살법회 3년만에 재개

직할교구, 6월 14일 조계사서

조계종 직할교구는 6월 14일 서울 조계사에서 한국불교 전통의식 포살을 진행했다. 포살법회는 안거기간 수행자들이 대중에게 허물을 묻고 참회하며 재발심하는 법석이다. 이날 직할교구 포살법회를 시작으로 전국 조계종 교구본사와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이 일제히 법석을 이어갈 예정이다.

포살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법사로 한 가운데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토대로 진행됐다. 포살은 대중의 참여와 화합을 확인하는 의식을 시작으로, 대중갈마를 통해 수행자의 청정과 화합, 계율을 재확인하고 부족함을 물어 참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시간 가량 진행된 포살 의식에서 300여명의 직할교구 대중들은 장궤합장을 한 채 법사인 원행 스님의 질의에 답하고 계본을 함께 낭독하며 갈마에 임했다.



한편 조계종은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에 의거해 안거시 결계신고와 안거기간 중 한차례 이상 포살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0~2021년 코로나 팬데믹이 심각했던 시기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이례적으로 포살의식을 생략하고 결계신고로 대체키로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해소되면서 다시 재개됐다. 송지희 기자

한국불교조계종 제24차 임시총회 (총회 안건 경과 통보)

본 종단인 한국불교조계종 및 협의회는 앞으로 나가야 할 백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주춧돌을 놓는 마음으로 종단 행정을 새롭게 도모하고 포교 중심으로 종단의 변혁을 이루는데 종도들의 화합과 교육, 복지, 방송, 신문사 언론기관 등 새로운 원융화합과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자 법불교적인 수행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종헌종법 1장 3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❶ 임직원 선출 및 해임 건

1. 본 종단은 종헌종법 제1장 4조 (직원의 자격)
   총무원 직원의 부서와 자격은 본 종단 직원 법의 자격으로 규정한다.
   본 종단에서는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종회, 각 교구원장, 부장, 국장 임직원을 다시 선출 하되 아래와 같이 해당자는 임직원에서 제외한다.

제3장 제7조 징계 및 공권정지는 다음과 같이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본 종단에 분단금(3년~5년)이상 미납자는 제외한다.
2. 본 종단 승려는 분단금 3년~5년 이상 미납자는 다음과 같다.
3. 치탈. 승적을 사적하고 사찰등록증, 승려증을 회수한다.
4. 위와 같이 징계자는 본 종단의 승려 자격을 상실하며 승적에서 제적한다.
5. 징계 받는 자는 본 종단 직원 (주지, 간부직) 취임하지 못한다.
   가. 기간은 최하 1개월 ~ 5년까지로 한다.
   나. 법계 강등 및 법계 원부를 삭제하고 법계를 회수한다.
   다. 다음과 같이 종헌종법 제3장 7조, 8조, 9조, 10조 참조할 것.

제1조 제2조 상벌법 시행

1. 제조(목적) 이 법은 종헌종법 제71조 의거하여 종도의 포상 및 징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2. 본 종단 승려 및 신도의 선행 또는 비행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거하여 징계를 행한다.
3. 공로 포상은 종헌종법 의거하여 총무원장이 행한다.

❷ 분한신고 건

1. 본 종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한신고를 이행한다.
   1) 사찰등록증, 승려증을 재발급하며 전 사암 등 분한신고를 전제로 한다.
   2) 분한신고하지 않는 사암은 본 종단에서 아래와 같다.
   3) 탈종, 치탈, 도첩 및 고유번호, 사용중지 통보.(현대불교신문)
   4) 분한 신고 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접수함.

❸ 종교인 소득 및 연말정산 건

본 종단에 소속된 사암은 연말정산 고유번호는 분단금 미납된 날로 취소. 분단금 3년~5년 이상 미납자에 대해 직위해제 및 배상명령, 미납일로부터 연말정산 발행한 시점까지 사암 고유번호 사용정지 통보 사찰에 대한 조사.

❹ 안건 내용 결과 통보

위 총회 안건은 2022년 6월 9일 임시총회에 나온 의견이며, 전체 동의함.
일 시 : 불기 2566년 6월 9일 오전 11시
장 소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 총본산 문경 백봉사
참석인원 : 스님 61명 전체 동의함.

위 안건에 대한 이의 없음과 전체 동의에 본 종단의 안건을 종헌종법 그대로 실행할 것을 알립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종단 총무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불기2566년 6월 15일

문화관광부 허가 제2009-7 법인등록번호 : 2300121-0003919 특허출현 제45-0061531

社)韓國佛教曹溪宗協義會 總務院長 大峯 合掌

문서 번호 : 22-0024 일자 : 불기2566년(2022) 6월 9일
총본산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 / **문경백봉사** : 1577-1016 · 054-571-6973, 1030, 7498 **방송국** : KBB한국불교방송주식회사 / 한국불교방송신문사 / 한국불교문화관광사업부 **종무원** : 사)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 사)한국불교문화민속협의회(대구종무원 : 전화 1670-2012 / 주소 :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 107 예림빌딩

‘불교 사관생도’ 인식·처우↑, MZ세대 잡아라

[기획] 군승 파송 절벽 다가온다

② 군종사관후보생, 활성화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군승 수급에 있어 군종사관후보생 제도는 파송제도 도입 이후 주요한 역할을 했다. 국방부 군종실 군종사관후보생 응시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불교군종사관후보생 최종합격자는 36명이었다. 군승 자원 중 연평균 3~4명은 군종사관후보생 제도를 통해 충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응시자는 더욱 많아, 경쟁을 통한 우수자원 선발에 큰 역할을 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응시자는 111명으로 최종합격자 대비 3: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군종사관후보생은 국방부가 지정한 동국대 서울, WISE 캠퍼스와 중앙승가대 등 3개 종립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응시자를 모집한다. 1학년과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서류심사 후 국어, 국사, 윤리, 사회, 영어 등 필기시험과 조직 및 직무역량 면접시험,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사 등을 통해 최종합격자가 가려진다.

2009년 변화, 2015년부터 급감

군종사관후보생 제도의 1차적인 변화는 군승법사의 독신예외를 담은 조계종 종헌 9조 2항 삭제 등이 이뤄진 2009년 감지된다. 2009년에는 이와 함께 응시자격 대상 학년을 1학년 선발에서 2학년 선발로 변경했다. 2009년 응시자가 2010년도 시험을 보게 되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5년간 응시자는 63명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응시자는 48명으로 감소했다.

독신 강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수십 년간 민간에서

일반인 지원 전무한 상황
독신강제·장학 이점없어
선발시 출가에 지원 급감

군포교를 하고 있는 박호석 前대한불교삼보회 이사장은 “독신 여부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예전만해도 지원자가 많았지만 현재 일반인들의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이 아주 없는 것은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재가자 입장에서는 독신비구 정체성 강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독신 여부가 후보생 지원 감소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종사관후보생은 2015년부터



군승 파송인원 급감의 주된 요인으로 군종사관후보생 ‘제로(0)’ 사태가 꼽히고 있다. 사진은 2017년도 군승 임관 고불식.

2022년까지 7년간에는 응시자가 12명으로 급감했다. 설문조사에서 익명을 요구한 군승법사들은 “비혼 성향이 많은 MZ세대를 보면 후보생 감소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3대 군종특별교구에서 승려 정체성 강화와 교육 체계화 일환으로 후보생 시험 합격 후 2학년 2학기 출가를 공지했다”며 “후보생 대부분이 우선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을 본 후 학교를 다니며 깊게 고민하고 출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출가해야 한다고 하니 부담감에 시험 응시가 끊겼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복구된 상태지만 선후배간 후보생 권유, 정보취득 흐름이 끊어지며 일반 학생들 사이에선 ‘군종사관후보생’ 개념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병역 해결’ 선택지서 인기 감소

최근 병역제도의 변화로 군종사관후보생으로의 이점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월급 200만원’ 공약에서 나타나듯 국방부는 병사월급을 급격히 올리고 있다. 여기에 사병 복무기간도 현재 육군 기준 18개월로 군종사관후보생의 의무복무기간인 36개월에 비해 매우 짧다. 같은 이유로 비슷한 제도인 학군단(Rotc)도 4년 전에 비해 40%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립학교 내에서의 실질적인 이점도 부족하다.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 일정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장학금 70%가 지원된다. 불교대학 내에 장학제도가 부실했던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이점이었지만 불교대학 장학제도 활성화로 이러한 이점이 사라졌다.

이러한 연유로 군종특별교구가 5월 18일 진행한 군종사관후보생 설명회에는 재가학생 참여가 거의 없었다. 불교대학 측 협조를 통해 진행한 설명회에는 총 12명의 학생들이 설명을 들었지만 재가학생들은 4명에 불과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김준우 동국대 불교대학 학생회장은 “학과 내에서 사실 군종사관후보생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없다. 1년 6개월 과정의 일반사병이나 군종병으로의 복무를 대부분 염두하고 있다”며 “병역 이수를 빠르게 하고 사회 진출, 취업 준비를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선후배 모임 복원과 지원에
복무시 종립기관 채용 우대
불교인재 육성 창구도 활용

익명을 요구한 J군승법사는 “ROTC의 경우 취업우대 등이 있지만 군종사관후보생은 전무하다. 예전 군법사가 단기 전역 후 생계수단을 강구하는 모습 많이 보았다”며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을 늘리고자 한다면 중앙승가대에서 진행하는 유니출가와 같이 단기출가 개념으로 종단 방침에 따라 군승으로서 복무 후에 종립기관이나 대학, 사찰에서 재가자로 근무하는 등 연계과정도 고민할 만하다”고 말했다.

‘불교 사관생도’로 인식 제고

전반적인 군종사관후보생 제도에 대한 관심 하락이 군승요원 지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군종사관후보생인 동기, 선후배들을 보며 접할 수 있었던 ‘군승’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나 정보 취득이 군승요원의 지원 계기였다는 지적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을 나온 도원 고태호 군승법사는 “여러 출가 계기가 있지만, 주변 형제, 도반들을 보며 발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창시절 군종사관후보생 등으로 군승에 대해 접하고 출가까지 발심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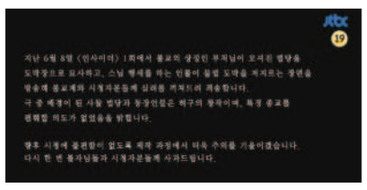
결국 후보생들이 소멸하면서 학교 내에서 자연스럽게 군승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 기회도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고 법사는 “동국대 재가학생이 졸업 후 출가, 군승요원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동국대 불교대학 등에 요청하여 스터디모임 지원을 통해 군종사관후보생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종특별교구 포교국장 경진 김헌철 군승법사는 “군승 수급뿐만 아니라 군포교, 더 나아가 불교 인재를 키워낸다는 개념에서 일반학생들이 군포교를 접하고, 불교에 귀의해 출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군종사관후보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불교 폄훼 방송’ JTBC, 조계종에 사과

6월 15일, ‘인사이더’ 3화 사과문
문제 영상 삭제·서비스 중단도



JTBC 사과문

부처님이 모셔진 사찰법당을 도박장으로 표현한 장면을 담은 드라마를 방송해 물의를 빚은 JTBC가 드라마 시작 전 사과문을 송출하고 조계종과 약속한 사과를 이행했다.

JTBC는 6월 15일, 논란이 일었던 드라마 ‘인사이더’ 3회 방영 전 송출한 사과문에서 “6월 8일 1회에서 불교 상징인 부처님이 모셔진 법당을 도박장으로 묘사하고 스님 행세를 하는 인물이 불법 도박을 저지르는 장면을 발표해 시청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극중 배경이 된 사찰 법당과 등장인물은 허구의 창작이며 특정 종교를 폄훼할 의도가 없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JTBC는 또 공식입장에서 “특정 종교나 단체를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배경 장소나 등장인물이 종교적 오해 또는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공감, 편집 및 재입고 방안 등을 조계종 측과 협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회와 4회 방송에 사과 입장문을 반영하고 다시보기 서비스와 동영상 클립은 해당 장면의 삭제 및 편집 후 재입고(서비스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청와대 석조여래좌상에서 진행된 예불. 사진제공=조계사

조계사, 청와대 석조여래부처님 참배

6월 14일 예불 등 예경의식도

새 정부의 청와대 개방으로 대중에 공개된 석조여래좌상(미남불)에서 예불의식이 거행됐다. 조계사(주지 지현)는 6월 14일 청와대를 찾아 석조여래좌상을 친견했다.

청와대 미남불에서 대중예불이 진행된 것은 1948년 대통령 관저로 청와대가 문을 연 지 74년만에 처음이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신도 30여명은 부처님전에 공양물을 올리고 사시예불을 진행하는 등 잊혀졌던 부처님을 향한 예경의식도 함께 봉행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9기 환경위 구성…위원장 묘장 스님

조계종, 6월16일 16명 위촉



사찰 수행환경 보존과 친환경적 운영을 위한 주요 환경 현안을 연구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 조계종 9기 환경위원회가 출범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6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9기 환경위원회 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장에는 묘장 스님이 선임됐다.<사진>

이날 위촉된 위원 16명 가운데 위촉직 위원은 13명이다. 특히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불교생태학, 사찰 수행환경 보존, 사찰림 및 국립공원 가치평가, 환경 및 기후위기 활동가 등 9명의 위원이 신규 위촉됐다.

학도암 주지 묘장 스님, 전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법일 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혜솔 스님,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서재영 성균관대 유학동양철학과 초빙교수,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홍석화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장영기 수원대 대기공학과 교수, 조계중 순천대 산림자원조경학부 교수, 윤주옥 자연과공생연구소 대표, 조시경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교 교수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창립법회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창립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전국여성불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불기 2566(2022)년 6월 23일(목) 오후 3시
장 소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주 관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설립추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설립추진위원장 범 해

대행선연구원
'세계의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 국제학술대회
DAY 1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연구실장 혜선)은 6월 17~18일 양일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세계의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5명의 국내외 비구니 스님과 석학들이 참여한 이날 학술대회에서 세계 각국 비구니 승가의 역사와 현황, 과제를 살펴보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정리=신성민 기자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이 6월 17~18일 양일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개최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 모습. 참가자들이 학술대회 입재식서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교단 성평등, 불교 가치에 부합돼"

까르마 렉쉐 쏘모 스님

'히말라야 불교 전통의 여성출가자'



"성균형이 이뤄진 사회의 불교도들은 더 이상 비구들이 비구니보다 우월하거나 비구에게 보시하는 것이 비구니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더 공덕이 크다고 생각지 않는다. 수백 년동안 전 세계의 수백만 불교도들에게 공유됐던 남성편향적 오해는 논리적으로도, 부처님의 오랜 평등주의 가르침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前샤카디타인터내셔널 회장 까르마 렉쉐 쏘모 스님(샌디애고대 종교학과 교수)은 '히말라야 불교 전통의 여성출가자들' 을 통해 티베트교단의 성 불평등과 그로 인한 비구니계 수계 문제에 대해 조명했다.

쏘모 스님에 따르면 티베트 중앙행정부의 종교문화부는 인도, 네팔, 부탄의 23개 사원에 총 4538명의 사미니 스님들이 주석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이는 현재 인도와 네팔에 망명 중인 1290명의 사미니 스님들까지 포함된 수치다.

티베트의 사미니 스님들은 비구승과 같은 옷을 입고 독신승으로 살아가지만, 비구니계를 받을 수 없다.

쏘모 스님은 티베트불교 비구니계 수계 방안으로 △비구니 없이 비구에게 수계 △한국 등 사분율 계맥에 속하는 비구와 비구니에게 수계 △〈근본설일체유부〉 율장 비구 10사와 사분율 계맥 비구니 10사가 주재하는 수계 △〈근본설일체유부〉 율장 비구 10사와 사분율 계맥을 받고 티베트 불교를 수행하는 비구니 10사가 주재하는 수계를 제시했다.

이어 "성평등을 위한 노력은 불교의 가치에 부합할 뿐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유의미하게 만든다"면서 "전세계 여성들을 성차별의 족쇄에서 해방시키고 엄청난 잠재력을 발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어떻게 티베트 비구니가 됐나

툽텐 쬐돈 스님

'서구 티베트불교 여성출가자들'



"서구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서구인 출가자 사원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 자신의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서구인 출가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가슴이 뜨겁다."

미국 쉬라바스티 애비 주지 툽텐 쬐돈 스님은 '서구 티베트불교 여성출가자들' 에서 서구 사회에서 티베트불교 여성 출가자들의 역사와 그들이 어떤 활동을 펼치는지를 자신의 경험과 비교해 조명했다.

1950년에 태어난 쬐돈 스님은 1975년 LA 근교에서 라마 툽텐 예셰와 라마 조빠 린뽀체가 지도하던 명상코스에 참가했고, 이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화됐다. 스승들과 더 공부를 하기 위해 교직을 그만두고 네팔의 꼬빤 사원으로 갔고, 1977년 달라이라마의 원로 개인교사 용진 링 린뽀체로부터 사미니계를 받았다. 비구니계는 티베트에서 받을 수가 없어 1986년 대만에서 받았다.

쬐돈 스님보다 앞서 티베트불교로 귀의한 서구 여성 출가자들이 적지 않다. 티베트불교가 서구 사회에 알려질 수 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티베트 침략 때문이다. 수만 명의 티베트인들이 인도로 망명해 난민이 됐고, 이는 서구의 영적 구도자들과 티베트불교 스승들이 만나는 계기가 됐다.

쬐돈 스님은 "몇몇 서구 여성 출가자들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사분율에 의거해 비구니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비구니들과 함께 사원에 거주할 기회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출가자로서의 혜택과 책임 등은 비구니 승가의 일상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티베트 전통의 비구니들에게 실현되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한국 禪 배워 불교 가르침 美 전파

하주 스님

'불법 다시 처음부터 배웁니다'



미국 앤아버 선련사 주지 하주 스님은 한국의 삼우 스님 전강 제자로 한국불교를 미국에 알리고 있다.

하주 스님은 '모든 것이 부처: 불법을 다시 처음부터 배웁니다' 를 통해 본인의 출가 생활 관련 일화와 활동상들을 소개했다

1978년 삼우 스님의 제자가 된 하주 스님은 두 명의 전강제자 중 한 명이다. 현재 앤아버 사원에 거주하며 한국 선불교 전통에서 유래한 북미 불교 교단인 자혜불교회를 이끌고 있다. 자혜불교회는 1967년 뉴욕 맨하튼의 삼우 스님이 거주한 아파트에 설립된 선련사가 그 시작이다.

하주 스님은 1985년부터 두 아이를 키우며 앤아버 선련사 관리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하주 스님은 "사찰 관리자가 되고 사찰에서 거주하는 것은 연중무휴로 일하는 것과 같다. 사찰에는 항상 할 일이 있었고 두 딸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저희를 행복하게 했고, 사찰의 벅찬 소임에 대해 통찰력을 갖게 했다"고 술회했다.

44년간의 수행을 얻은 교훈도 소개했다. 하주 스님은 △많이 듣고 모여서 상의하기 △아이들은 승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사람이 건물보다 중요 △음식 준비와 식사는 공동체 생활 정수 △침묵의 유익함 배우고 미디어를 끊어라 등을 강조했다.

미래를 위한 노력으로 하주 스님은 "자혜불교회는 한국 선의 풍요로운 전통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면서 "우리 출가 수행자, 교사들, 수련생들, 회원들을 여법하게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 출가, 日불교 사상 가장 창의적 동력"

모니카 베테 소장

'日 비구니 사원의 과거와 현재'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의 비구니 역사를 조명하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모니카 베테 교토 중세일본학연구소장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다: 일본 비구니 사원의 과거와 현재' 를 통해 6세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일본 여성들이 출 · 재가자로서 어떻게 수행해왔는지를 살폈다.

베테 소장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을 통해 불교가 전래된 일본은 수계도 한국을 통해 받았다.

일본 역사상 최초로 수계를 받은 사람은 3명의 젊은 여성으로, 젠신 · 젠조 · 에겐은 587년 백제로 건너가 3년 후 계를 받았다. 이들은 590년 일본으로 돌아와 사찰을 창건했다.

헤이안 시대는 불교가 정치를 통제하는 것을 위험하게 보기 시작했다. 천태종과 진언종 등의 종파가 등장했지만, 이들 종파는 여성들이 함께 하는 것을 자신들의 수행을 모독하는 것을 봤다.

지도층 여성들도 보시, 불사 지원 등으로 사찰을 후원하는 데 그쳤다.

13세기에 이르러서 비구니 승가공동체가 다시 융성한다. 이 시기 여성들의 출가 이유는 영적 깨달음부터 경제적 이유, 가족으로부터의 해방까지 다양했다. 14~16세기 무로마치 시대는 정세가 불안했던 시기로 여성의 출가 연령이 어린 소녀까지 확대됐고, 특히 엘리트 계층에서 두드러졌다. 반대로 여성이 왜 열반할 수 없는지에 대한 교리가 일반 대중에 확산된 것은 이 시기부터다.

에도 시대에 이르러서는 비구니 사찰은 호적 등록 장소로 사용됐다. 비구니 사찰은 행정 시설이자 종교적 은둔처였고, 고통받는 여성의 안전한 피난처이기도 했다.

평등한 듯 불평등한 현대 일본불교

모니카 슈림프 교수

'근현대 일본의 수계 여성들'



메이지 유신은 일본의 근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이는 일본불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다. 근현대 일본불교의 수계 여성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논문이 발표됐다.

모니카 슈림프 독일 튀빙겐 대학 교수는 '근현대 일본의 수계 여성들' 을 통해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불교에서 여성 출가자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되고 정착됐는지를 살폈다.

슈림프 교수에 따르면 1872년 국가대평의회는 남성 승려의 결혼, 육식, 음주, 장발을 합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고, 1973년에는 니승(비구니)에게까지 확대됐다. 남성 승려의 결혼은 간단하게 허용됐지만, 니승이 결혼할 경우 재가 신분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다.

슈림프 교수는 "이는 계를 받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에 대한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첫 번째 징후"라면서 "법령 발표 후에도 니승들이 결혼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후 일본불교에서 계를 받은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들도 새롭다. 여성교사(女性教師)는 모든 계를 완전히 받고 의식을 주재하는 지위를 의미한다. 여성승려(女性僧侶)는 1차 수계는 마쳤지만 아직 승려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성도 포함된다.

슈림프 교수는 "모든 계를 받은 여성과 남성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지만 여성은 종종 젠더로 인해 자신이 속한 종파나 주변 사회에서 다른 대우를 받는다"면서 "종교적 역할과 젠더 역할이 겹치면서 계를 받은 남성과 여성에게도 젠더적 고정관념이 작동해 대부분의 불교 종파들이 주장하는 법적인 성평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만불교 발전 중심에 비구니 있었다"

창쉔 스님

'대만 비구니 승가와 불교 부흥'



"현대 대만불교에서 비구니 승가의 놀라운 공헌과 업적은 중국은 물론 세계 불교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다."

대만 법고산 대학 강사이자 대만 국립대학 강사인 창쉔 스님은 '대만 비구니 승가와 불교 부흥' 에서 대만불교 발전의 중심에 비구니 승가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창쉔 스님에 따르면 대만에는 1만 5000명이나 되는 비구니 스님과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비구니 승가가 있다. 비구니 스님의 수가 비구 스님보다 3배가 많은 것도 불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대만불교의 부흥은 19세기 후반 중국 불교 근대화를 주도한 태허 스님에서 비롯된다. 태허 스님은 '인간 불교' 라고 명명한 불교 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여성 출가자들에게도 열린 자세로 문호를 개방했다. 남성 스승들은 비구니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양성평등주의에 입각한 강원교육을 장려했다. 심지어 율장에 기술된 젠더 차별을 약화시켰으며 비구와 비구니 승가의 평등주의를 조성했다.

또한 전후 대만 경제가 성장하며 여성들의 교육 수준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고, 출가는 더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1980년과 1990년 초에 일어난 비구니 구족계의 거대한 물결은 이를 방증한다.

창쉔 스님은 "전후 대만에서 구현된 현대 중국불교 부흥 운동인 인간불교를 통해 비구니들이 불교계뿐만 아니라 세속사회에서도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면서 "인간불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행과 사회참여의 균형이 대만 비구니 승가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한마음선원 대행선 연구원이 6월 17~18일 안양본원서 개최한 묘법당 대행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에서 청중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대행선연구원 '세계의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 국제학술대회 DAY 2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연구실장 혜선)은 6월 17~18일 양일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세계의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5명의 국내외 비구니 스님과 석학들이 참여한 이날 학술대회에서 세계 각국 비구니 승가의 역사와 현황, 과제를 살펴보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정리=신성민 기자

개인주의 속 비구니 공동체 재건 '화두'

본각 스님

'한국 비구니 승가의 현황'



"승단 내 개인주의 문화가 짙게 드리웠지만,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주의 문화 속에 어떻게 공동체와 공동체 정신을 재건하느냐에 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한국 비구니 승가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에서 지난해 진행·발표한 '비구니 스님의 수행환경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찰 주지 스님들은 당면한 어려움으로 '변하는 불제자들의 신심에 따른 법회 운영'을 36.3%로 가장 많이 꼽았다. '재정수입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31.8%로 뒤를 이었다.

본각 스님은 "신도들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스님들은 고착화 상태"라며 "스님들 스스로 자질이 향상돼야 하고 상호소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설문조사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본각 스님은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스님은 "젊은 스님들은 어른 스님에 대한 시봉과 사찰 소임을 희생으로 여기는 반면, 법납 높은 스님들은 젊은 스님의 자질과 공동체 정신 부족을 탓한다"면서 "앞으로 전국비구니회를 중심으로 상호 배려와 안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구와 비구니 간 양성불평등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본각 스님은 "한국불교 종단 내 성평등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부처님 계율의 근본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 현대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행선 접할 공인교육기관 설립 필요"

혜선 스님

'한마음선원의 미래 방향'



생활참선 수행도량 한마음선원의 발전 방안으로 대행선을 부담없이 접할 학교 설립과 대행선 연구 체계화, 국제화가 제시됐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실장 혜선 스님은 '생활참선 수행도량, 한마음선원의 포교현황과 미래의 방향'을 통해 한마음선원 창건주인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행장과 남기신 업적 등을 분석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혜선 스님에 따르면 대행 선사는 어릴 적 험난하고 처절한 삶에서부터 '나는 누구인가, 세상이 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가' 등의 의문을 가졌고, 내면으로 침잠·사유해 마침내 스스로의 불성을 발현하고 대자유인이 됐다. 선사는 세상 모든 이들이 고(苦)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길 발원하며 생활참선 수행도량인 한마음선원을 1972년에 개원했다.

혜선 스님은 한마음선원 미래 발전 방안으로 △학교 설립 △대행선 연구의 체계화·대중화 △대행선 국제화를 제시했다.

스님은 "사찰이나 종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비불자나 타종교인들이 부담없이 대행선을 접할 수 있는 공인교육기관인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학교 교육과정을 활용해 마음공부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면 인연닿는 모든 이들에게 정신 발전의 길을 제시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행선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선센터 건립과 영문학술지 발간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내놨으며, 대행선 연구의 체계화·대중화를 위해서는 대행선 연구원의 학술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비구니 출가 급감… 차별적 출가문화 보완을"

김응철 교수

'한국 비구니 승가의 활동유형'



급감하고 있는 한국 비구니 출가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출가문화와 불안정한 노후생활이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는 '한국 비구니 승가의 활동 유형과 미래 방향'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비구니 출가자의 급감은 한국 비구니 승가의 위험 요소이다. 조계종 여성행자는 2018년 52명, 2019년 46명, 2020년 39명으로 급감했다.

김 교수는 비구니 출가자 급감 원인으로 차별적인 출가문화와 불안한 노후를 꼽았다. "다수의 비구니 스님들은 능력에 맞게 적절한 소임들이 주어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구니 스님들이 공부를 마치면 소임을 보며 함께 살 수 있는 사찰이나 중앙종무기관, 교구본사, 교육기관 등이 비구 스님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도 차별적 출가 문화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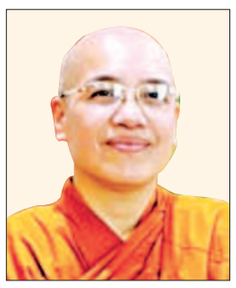
김 교수는 비구니 승가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전국비구니회와 각 종단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비구니 승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영역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또한 재가불자 조직 활용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등 사찰 운영 방법의 일대 전환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비구니 승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찰 운영방식의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면서 "전문 포교사 제도를 활용해 비구니 스님들이 전법교화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승·테라와다·걸사파 등 베트남 비구니승가

류팝 스님

'베트남 비구니 승가의 발전'



베트남 불교에서 남성 출가자보다 여성 출가자가 10배 가량 더 많은 정도로 비구니 승가의 위상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순나타 비구니사원 주지 류팝 스님은 '베트남 비구니 승가의 설립과 발전'을 통해 베트남불교에서 비구니 승가의 역사와 현황을 조명했다.

류팝 스님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불교에는 대승불교, 테라와다(상좌부 불교), 걸사파 등 세 종파가 있고, 이들 모두 각자의 전통에 따라 비구니 공동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세 종파의 비구니 승가는 모두 '전국 비구니 승가'로 통합돼 있다.

걸사파에는 뛰어난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배출돼 베트남불교승가회에서도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류팝 스님은 "여성출가자의 수가 남성출가자의 10배이며 불교교육 과정과 대학을 열면 항상 비구니 학인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고 소개하며 "많은 여성출가자들은 학문을 추구하거나 사회복지 활동에 동참한다. 이러한 활동이야 말로 보살도를 수행하는 자비 정신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국정 협조자, 미얀마 여성 출가자

카와나미 히로코

'미얀마 여성 출가자 미래 전망'



카와나미 히로코 영국 랭커스터대 교수는 '미얀마 여성 출가자: 유산의 계승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미얀마는 여성 출가자 수가 2019년 기준 6만 5000여 명으로 단일국가 중 가장 많다. 이들은 모두 미얀마 종교부 종교사무국에 등록돼 있다. 미얀마 여성출가자들은 비구니 계맥 복원에는 수동적인 입장이다. 2003년 한 딸라신이 미얀마 승가에 알리지 않고 스리랑카에서 비구니계를 받은 후 논쟁이 벌어졌지만 아무 결실없이 끝났다. 그 이후 이들은 계맥 복원을 굳이 알리지 않고 있다.

여성출가자들은 소수 민족 동화 정책 등 미얀마 국정의 협조자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1992년 시작된 불교 명예 타이틀 수여는 현재까지 이어지는데 매년 20명의 여성출가자들이 학문적 역량을 인정받고 시상대에 오른다.

카와나미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은 높아지고 있는 여성출가자의 인기를 이용하려는 미얀마 정부의 정치적 열망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국제 연대로 비구니 계맥 복원하다

지하니 드 실바

'분파주의에서 화합으로'



지하니 드 실바 스리랑카 사바라가무와 대학 강사는 '분파주의에서 화합으로: 스리랑카 비구니계의 전망'을 통해 단절된 비구니 계맥을 어떻게 복원했는지를 살폈다. 스리랑카 비구니 계맥의 복원은 1988년 캘리포니아 서래사에서 열린 비구니 수계식이 시작이다. 대만 불광산불교국제기구가 후원한 이날 수계식에는 5명의 스리랑카인 여성출가자가 수계를 받았다. 하지만, 스리랑카에서는 이들을 비구니로 인정하지 않았다.

1998년 대만 불광산사는 보드가야에서 두 번째 국제 비구니 수계식을 준비했고, 이에 수만갈라 스님은 10명의 사미니 보드가야로 보내 비구니계를 수지토록 했다.

비구니 계맥이 복원되고 비구니 수계 훈련센터가 늘어나자 비구니 승가는 담불라, 나우갈라, 데칸두왈라로 나눠졌다. 이들 계파들은 2018년 협력을 위해 '전국비구니대회(AIBC)' 창립했다. AIBC는 대중공양, 가사불사 외에도 많은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신도가 인정한 태국 비구니 승가

카카낭 야바프라바스

'태국의 비구니: 승가와 사회'



카카낭 야바프라바스 태국 탐마삿트대학 강사는 '태국의 비구니: 승가와 사회, 상황'에서 태국 비구니 승가의 시작과 현황을 조명했다.

그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비구니 구족계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대안적 출가 형태를 취하는 데 이를 '매치(mae chi)'라고 한다. 매치가 된 태국 여성은 8계나 10계를 지키며 삭발하고 흰옷을 입는다. 일반적으로 사찰에 거주하지만, 일부는 자치적인 여성사원에서 살기도 한다. 오랫동안 존재했고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진 여성출가자 그룹이지만, 샤프란 승복은 입을 수 없다.

카카낭 야바프라바스 강사는 "태국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법적 지위를 비구니들이 획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본인들은 비구니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그 지역 신도라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태국 비구니 승가의 행동, 카리스마, 사회와 불교에 대한 기여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포교원, 제주 순례 '한라산 정기, 전법 ON'

6월 11일 2백 여 포교사들과 '관음사 순례길' 11km 행선

제주=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 목적의 차별화된 순례
제주 첫 도심 순례길로 관심
관음사부터 제주청사까지의
제주불교 포교史 재현 의미


전법의 불을 밝혀라.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사진 가운데)과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사진 오른쪽), 포교부장 선업 스님(사진 왼쪽)을 필두로 순례 행렬이 제주 관음사를 출발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영원한 휴식처 제주도에는 불교만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들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조 제주 사찰이 훼철되며 사라진 지 200년 만인 1909년 갖은 어려움 속에 창건된 관음사부터 도내 유일한 고려시대 석탑이 있는 불탑사, 제주 비보사찰인 법화사, 약수가 나온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여진 약천사와 수국명소로 거듭난 남국사 등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수세기 넘게 웅변하고 있다. 이러한 사찰의 이야기와 멋을 대중들에게 순례로 알리고 다시 사찰로 이끌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6월 11일 한라산 중턱의 제주 관음사부터 남국사를 거쳐 제주 정부종합청사 옆 시민복지타운 광장까지 진행한 '관음사 순례길' 순례는 산중사찰과 도심지가 순례를 테마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엿보는 기회였다.

순례에는 순례를 주최한 조계종 포교원의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해, 포교부장 선업 스님, 연구실장 용주 스님, 포교국장 혜교 스님, 신도국장 윤성 스님, 사무국장 혜안 스님 등과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법화사 주지 도성 스님 등 지역 스님, 김영석 포교사단장, 배동학 수석부단장, 이명직 포교사단장 등 200여 포교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순례가 시작되기 전부터 관음사는 제주지역단 포교사들로 북적였다. 포교사 단복 뿐만 제주지역단 로고가 새겨진 모자와 앵두모양의 브로치 등을 맞춰 입은 포교사들이 늘어섰다. 이날 순례입재식은 창단 7주년을 기념하는 자리기도 했다.

이명직 제주지역단장은 "제주지역 포교사 183명이 전원 참석했다. 중앙에서 김영석 포교사단장을 비롯해 박해덕 경남지역단장을 비롯한 포교사들도 대거 참여했다"라며 "제주지역단 활동을 활성화하고 포교사들의 단합을 이끌겠다. 한국불교의 희망이 포교에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순례 자리를 마련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이런 포교사들의 열정을 치하했다. 범해 스님은 "새로운 신행문화 확산을 위해 시작한 전법ON 순례에 각 지역의 포교사들이 참여해 감사하다"며 "지역에는 각 지역만의 포교 방향이 있다. 소극적인 포교를 탈피해 적극적인 포교로 전환하자는 의미에서 순례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도 "1909년 관음사 창건 후 제주 도심포교당 개설까지 진행되어 온 제주불교의 역사가 순례로 다시 재현되는 듯하다"며 "관음사에서 시작해 제주시내까지 걷는 포교사들의 모습에서 제주 전법의 원력을 다시 느낀다"고 말했다.

입재식 후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전법ON 플래카드를 필두로 포교사들은 일렬로 제주시내까지 11km 거리를 약 3시간에 걸쳐 걸었다. 육바라밀에 맞춰 보시 지계 인욕 등 1조부터 6조까지 조별 깃발을 들고 포교사들은 묵언 행선을 이어갔다.

그동안 제주도에는 다양한 순례길이 만들어졌다. 사찰과 불교유적을 거쳐가는 올레길부터, 제주불교성지를 잇는 지계, 정진, 보시, 선정, 지혜, 인욕의 길 등이다. 여느 제주 순례길과 달리 포교원이 구성한 관음사 순례길은 산사에서 도심 한복판을 관통하는 길이었다. 순례는 한라산 중턱부터 산간도로인 1117번길을 거쳐 간선도로인 5.16도로를 통해 진행됐다.

해안도로나 둘레길이 아니기에 조계종 포교원 종무원들과 포교사들은 형광색 조끼를 맞춰 입고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인도가 없는 길에서는 앞뒤 좌우에서 수신호를 통해 차량을 통제하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행렬을 적절히 끊고, 차량 흐름에 맞게 순례를 유도했다.

이날 순례는 포교부장 선업 스님의 선창 아래 전법 구호 3창으로 마무리 됐다.

조계사 지근거리 16층 재건축…훼손 우려

서울시 도시계획소위, 6월 9일
코리안리 건물 정비계획 가결
지하 6 · 지상 16층 대규모공사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지근거리에 지하 6층, 지상 16층 규모의 건물 재건축이 예고되면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조계사에서 입접한 위치여서 분진, 소음, 진동으로 인한 각종 폐해가 예상될 뿐 아니라, 보물 등 문화재가 봉안된 전각이자 서울시유형문화재인 대웅전과도 직경거리 100m 이내여서 공사가 강행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불 보듯 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6월 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송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7지구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정비 구역은 코리안리재보험 본사가 위치한 수송동 80번지로, 현재 지하 3층 · 지상12층, 연면적 3만9357㎡ 규모의 기존 코리안리 건물을 지하6층 · 지상16층, 연면적 약 9만3000㎡ 규모로 증축한다는 내용이다. 용적률은 800% 이하, 건물 높이는 70m 이하로 적용했다. 코리안리 측은 해당 건물에 1004석 상당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며, 또 기존 건물 외에 인근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기부체납키로 했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송동 80번지 일대 코리안리재보험 빌딩은 1985년 4월 준공 이후 36년 이상 경과해 건출물 안전과 도시 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됐고, 내부 설비 노후화로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토지 소유자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공연장) 건립계획을 제안했고 용적률 800% 이하, 높이 70m이하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안)이 확정됐다. 향후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건축계획이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공사 부지와 조계사와의 거리가 20m 남짓할 정도로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 공사가 워낙 대규모인데다, 사실상 조계사가 위치한 골목인 도화서길 바로 건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사는 이미 1996년 현대건설이 한국일보 신본관 신축 공사를 진행한 당시, 대웅전을 비롯한 전각이 뒤틀리는 등 훼손현상이 발생해 해체보수를 한 바 있다.

무엇보다 조계사는 현행법상 문화재보호 적용지역이자, 수많은 신도들이 정기적으로 법회와 행사를 진행하는 공간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이번 정비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계사와 이에 대한 협의는 커녕, '앙각(仰角, 위로 바라보는 각도)' 외에 신도들의 불편사항이나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방안은 협의 ·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장은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 재개발 과정에서 70m 층고 높이와 관련해 조계사 법회 등 문화행사 저해요인을 비롯한 민원사항이 발생한다면, 토지주와 조계사가 향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시가 해당 정비계획을 가결한 상황에서 남은 절차는 종로구청의 실시계획 인가가 유일하다. 교통영향평가 등을 기준으로 한 실시계획이 인가될 경우 통상적으로 착공이 가능해 진다. 코리안리 측은 완공 시점을 2026년으로 잡고 있으며, 신축 건물 디자인과 관련해 국제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은 "조계사에서 불과 골목 하나 건너는 위치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다면 전각의 균열이나 뒤틀림 등 실질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고 지적했다.

송지희 기자

"발달장애인 · 가족 비극적 죽음 막아야"

조계종 사노위, 6월 14일 삼각지역
고인들 극락왕생 발원 기도회 봉행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는 6월 14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 마련된 발달 · 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에서 고인이 된 발달 ·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추모기도회를 봉행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함께한 이날 기도회



는 5월 23일, 6살 발달장애인 아들을 품에 안고 생을 마감한 모자 등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과중한 돌봄과 간병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매일 한계를 경험하면서 죽음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 자리가 추모를 넘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고통이 사회공동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실효성 있는 제도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동국대 새터민 학생들 위한 특별한 장학금

스님들, 건학위 '지역 미래불자 장학'에 2000만 원 전달

스님들이 북한 출신 동국대 재학생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모아 동국대에 2000만 원을 전달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6월 14일 동국대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북한 출신 재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날 지금된 장학금은 총 2000만 원으로, 이는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대구 금화사 주지 진성 스님 △포항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했다. 수여식에는 후원 스님을 대표해 해운 스님이 참석했다.



또한 행사를 축하하고 새터민 동국대 재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새터민 출신 태영호, 지성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학교 측에서는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 정각원장 진명 스님,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사무처장과 장학생 15명이 함께 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등록금 걱정 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고문 자승 스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미래불자 육성장학이 16회를 맞이해 특별히 북한 출신 장학생을 선발했다"며 "북한 출신 학생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바람을 전했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영가 위로 · 세계평화 기원 대규모 천도법회

'국제무차수륙천도대법회' 부산 영도서 봉행

진제대종사 등 1만여 대중참여
상좌부 스님들 평화 기원 찬팅
전국불교연합합창단 츰부다라니
희생 영가 위패를 국가별로 제작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진제선세계화회와 한국불교문화협회는 6월 12일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옆 아미르공원에서 '국제무차수륙천도대법회'를 봉행했다.

코로나19와 전쟁 희생자들의 영가를 위로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대규모 천도법회가 봉행됐다.

(사)대한불교조계종진제선세계화회와 (사)한국불교문화협회는 6월 12일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옆 아미르공원에서 '국제무차수륙천도대법회(이하 천도법회)'를 봉행했다.

천도법회에는 조계종 前 종정 진제 대종사와 총무원장 원행 스님, 팔공총림 동화사 회주 의현 대종사,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박형준 부산시장, 황보승희 국회의원, 김철훈 영도구청장 등 국내외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천도법회 1부는 부산영산재 무형문화재 스님들의 수륙대재로 진행됐다. 참석한 사부대중은 수륙대재가 진행되는 동안 함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평안을 얻기를 발원했다.

2부 기념법회에서는 동화사 회주 의현 대종사가 개회선언으로 시작을 알렸다. 공동집행위원장 호법 스님의 환영사와 공동집행위원장 능원 스님의 경과보고에 이어 스리랑카, 미얀마, 티베트 등 상좌부 스님들의 평화기원 찬팅이 진행됐다. 이후 전국에서 참여한 불교연합합창단 단원들이 희생 영가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츰부다라니 사경을 공양했다. 승가와 재가 내빈들은 헌화하며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으며 13개국 다문화 자녀들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극락월 해운정사 신도회장의 발원문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봉행사, 내빈들의 추도사 등 인사말, 법문 순으로 행사는 진행됐으며 전국불교연합합창단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노래로 마무리됐다.

진제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전 세계 코로나로 희생된 모든 영가와 금일 천도대법회에 동참한 모든 영가여, 산승의 고준한 법문을 듣고 모든 고통을 여의고 부처님 국토 극락세계에서 편안한 진리의 낙을 누리기를 바라는 뜻에서 고준한 법문을 선사하오니, 잘 받아 가지소서"라며 영가의 안락을 기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국제무차수륙천도대법회를 통해 코로나19로 희생되신 모든 분을 위시하여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과 지구촌 오대양 육대주에서 아프게 희생되신 모든 고혼들이 아미타부처님의 자비하신 가피를 입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기도한다"며 "남아 있는 유족 모든 분들에게도 부처님의 자비하신 가피가 그들에게 임해서 하루 빨리 실의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일상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위로했다.

한편, 천도법회에는 코로나19로 사망한 1500만 영가들의 위패를 국가별로 특별 제작했다. 아울러 산불 재해와 전쟁, 산업재해, 범죄피해 등으로 목숨을 잃은 영가를 기리는 위패도 봉안했다. 법회 동참금은 영가 1위 당 1만 원이었으며 수익금 전액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지원 및 국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한편, 진제 대종사는 6월 16일 부산 시청을 방문해 성금 8억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국제무차수륙천도대법회를 준비하며 약속한 평화 기금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과 국내 산불피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회향할 예정이다.

조계종부산聯, 제5회 삼귀의계오계 수계식

7월 24일,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수계식 위해 보리암서 관정수 채수


조계종부산연합회가 7월 24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에서 '제5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수계의식 진행모습.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가 7월 24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에서 '제5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대규모로 진행될 삼귀의계오계 수계식은 초심 불자들에겐 법명을 받고 부처님의 제자로 새롭게 탄생하는 계기가 되며 기존 불자에겐 신심을 증장하고 초심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열린다. 또 부산에 있는 조계종 사찰 소속 불자들이 연합해 참석하는 법석으로 대규모 화합의 장으로 회향한다.

수계식에는 매년 전국의 불자 20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이번 수계식에는 암 투병 중인 불자가 "죽기 전에 수계를 받고 싶다"며 참여할 예정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절에 다니는 것을 보고 수계의식에 참석하기로 하는 등 가족수계의식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이번 수계의식을 위해 3대 해수관음성지로 불리는 남해 보리암에서 관정수를 채수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질병과 전쟁 그리고 재난으로 많은 중생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수계의식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로 번뇌를 식히고 고통을 여의며 안락과 기쁨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계식은 조계종부산연합회 초대 회장인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전계대화상을 맡아 수계식을 증명한다. 갈마아사리는 조계종부산연합회 2대 회장이며 현재 조계종 고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진 스님, 교수아사리는 조계종 계단위원이며 조계종림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이 담당한다. 존증아사리는 조계종부산연합회 3대 회장 심산 스님, 조계종부산연합 회장 원허 스님, 수석부회장 목종 스님, 부회장 혜성 스님, 만초 스님, 하림 스님, 지일 스님이 맡는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수계는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참된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잡이"라며 "삼귀의계오계 수계 법회를 통해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참 희망자는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원사찰, 신도는 재적사찰에서, 일반 불자는 조계종부산연합회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동참금은 1인 3만 원이며 법회 당일 흰색 상의와 법복 바지를 착용하고 참석하면 된다.

한편, 수계식에서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의 회장 연임 취임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새로운 포교 및 수행 방향을 위한 불교발전 비전 선포식도 진행된다. (051)501-7554.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24회 진여호국영령위령재 봉행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진여호국위령재가 열렸다.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은 6월 9일 부산 화명동 현충공원 내 호국영령추모비 앞에서 '제24회 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정각 스님(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이사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행사는 1부에서 동암 스님(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전수자)이 호국영령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위령제 의식을 진행했다. 2부 행사는 △헌시 △왕생극락 기원등 밝히기 △육법공양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왕생극락발원문 △상패 및 장학금전달 △추모사 △법문 등으로 이어졌으며 3부 작은 추모음악회도 이어졌다.

남보타월 원장은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 진행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많은 유가족 분들과 관계자 분을 모시고 여법하게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며 "지난 24년간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진여원은 박현정(구포초등학교) 외 11명의 보훈 유가족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제25회 혜원백일장' 시상식

대상 양희경(운문) · 박나은(산문) 수상



사회복지법인 혜원(대표이사 원허)이 6월 11일 부산 혜원정사 만불전에서 '제25회 혜원백일장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 운문 부문은 양희경(마산삼진고), 산문부문은 박나은(마산삼진고) 학생이 수상했으며 부산시교육감상은 정영욱(복대중), 김윤주(삼성여자고) 학생을 비롯해 총 26명의 학생이 받았다.

사회복지법인 혜원은 매년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예창작과 재능 발전을 돕기 위해 백일장을 개최 해왔다. 이번 해는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달간 공모를 진행해 작품을 접수했으며 총 636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백일장은 운문 부문 '이기심', '평화', '아름다운 세상', 산문 부문 '말이 주는 상처', '바람향기', '자가 격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심사는 월간 '해인' 편집장인 성전스님이 심사위원장을 담당했으며 문태준 시인과 김연수, 변왕중 소설가가 심사위원으로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前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연관스님 입적

6월 17일 영결식, 세수 74세, 법랍 53세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봉암사 수좌로 수행 정진한 연관 스님<사진>이 6월 15일 조계총림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에서 세수 74세, 법랍 53세로 입적했다.

연관 스님은 수좌의 별로 불리며 후학들에게 모범을 보인 수행자로 알려져 있다. 관음사에서 원적하기 10일 전에 스스로 곡기를 끊었고 4일 전부터는 물조차 마시지 않으며 죽음의 순간을 고요하게 맞았다.

지구환경과 생명 살리기를 위해 도법스님과 환경운동에 앞장섰으며, 참선정진과 함께 다수의 불서를 번역했다.

빈소는 조계총림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6월 17일 오전 10시 30분 관음사에서 엄수된다. 다비식은 통도사 다비장에서 봉행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안 호두마을 명상센터 아래
문수동 16개 방을
비구니 스님께 세를 놓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명상센터에서
수행하시며 지내실 분에게 좋습니다.

■ **전세** : 1,500만원
■ **월세** : 보증금 1,000만원 / 매달 5만원
■ 2층에 명상홀 사용하실 수 있고 선원에 명상지도 하시는 사야도께 공부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명상센터 內 황토집 매매 가능합니다.

문의 : 010-7468-0021




청련사 생전예수재,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생전예수재 전승사찰 전국서 두 번째 지정

계보 따라 예수시왕생칠재 설해
어장 상진 스님 염불율조 뛰어나
문화재적 가치 바탕 연구활동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21년 10월 14일 실행된 청련사 생전예수재 모습.

불교 전통방식으로 50년 넘게 보존, 전승돼온 양주 청련사 생전예수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청련사는 서울 봉은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생전예수재를 무형문화재로 계승하는 사찰이 됐다.

경기도는 5월 20일 '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를 경기도 무형문화재 66호 생전예수재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인증서를 청련사로 교부했다.

청련사는 20세기 초부터 경제(京制) 동교(東郊) 파에 속한 주요사찰로, 1910년 청련사에 출가한 능해(能海, 1892~1979)로부터 덕봉(德奉, 1911~1994), 청호(淸湖, 1915~1999), 춘담(春潭, 1915~1960), 벽파(碧波, 1939~2011), 백우(白牛, 1934~2015), 상진(常眞, 1956~)의 전승계보에 의해 예수시왕생칠재를 설행해오고 있다.

1960년대부터 스님들이 범패와 작법, 장엄으로 생전예수재를 봉행하면서 수대에 걸쳐 의식을 이어오는 가운데 어장 상진 스님의 염불율조가 어우러져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련사 생전예수재는 의례의 핵심인 범패와 작법무, 장엄을 사중 스님들이 온전히 전승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례 설행이 청련사에 상주하는 스님들에 의해 설행될 뿐 아니라 전통의식인 재의 핵심을 범패로써 이끌며 사찰 사부대중이 현재까지도 이를 계승해 봉행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청련사는 경기도 양주로 이전하며 보존회와 안정불교대학을 중심으로 예수재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재의 활성화를 위해 설행시기를 '윤달이 든 해'에서 '중양절'로 조정하여 해마다 설행하고 있다.

청련사는 2010년 체계적 전승을 위한 보존회를 발족, '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로 명명했으며, 2012년 백련암 등 20개 사찰 윤달예수재, 2014년 삼화정사 등 21개 사찰 윤달예수재, 2017년 고림사 등 28개 사찰 윤달예수재를 열었고, 2017년 7월, 2018년 9월, 2018년 10월, 2019년 10월 각각 생전예수재를 연 바 있다.

2019년 시연회에서는 문화재 위원들이 참관해 전승 내역을 확인하기도 했다. 당시 법주 상진 스님은 "청련사 생전예수재는 사중에 어장(법주)과 의식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스님들이 지금까지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무형문화재 지정을 전승단체로서 추진하는 이유 역시 후배들이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보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도제 양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향후 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는 청련사 대중승려뿐만 아니라 안정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사)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 회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학인들과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행사와 공연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를 비롯해 한국 불교의례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는 예수재를 보다 폭넓고 깊이 있게 조명하는 연구와 학술 활동에도 나선다.

한편 청련사는 신라 흥덕왕 2년 '안정사'라는 사명으로 창건된 후 조선초 무학대사가 중창, 도성의 비보사찰이자 나라의 안정을 발원하는 도량으로 역할을 해왔다. 현재 양주 청련사는 안정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법맥을 계승한 도량으로, 2010년 완공됐다. 창건 이후 여덟 번째 중창이다.

합천 대원사, 미륵불 개금불사 성만

6월 11일 점안법회 봉행…주지 해불 스님 축원


대원사 사부대중이 포대화상 개금불사 제막을 하고 있다.

합천 대원사(주지 해불, 삼론종 총무원장)는 6월 11일 미륵불(포대화상) 개금불사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한불교삼론종 3대 종정인 혜공 대종사를 비롯해 승정원장 진봉 스님, 교육원장 법지 스님, 총무부장 근혜 스님, 성관 선원 현각 스님, 성불사 혜산 스님, 달마사 청오 스님, 도솔암 자원 스님, 약사암 성현 스님, 천진사 응진 스님, 영남범음범패 청하 스님 외 스님, 남병환 대원사 신도회장 등 150여 대중이 동참했다.

삼론종 3대 종정 혜공 스님은 법문을 통해 "아름답게 모셔진 포대화상를 보니 거룩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에 감동받았다"며 "깨달음으로 나투신 미륵부처님처럼 모두 성불하길 바란다. 코로나로 어려운 세상이지만 불사 공덕, 인연으로 가정과 사회가 평화롭고 더불어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원사 주지 해불 스님는 "포대화상은 미륵부처님의 화현이다. 점안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이 건강하고 날마다 지혜와 복덕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故 선진규 원장 2주기 추모법회

김해 정토원, 6월 8일 수광전서 봉행…50여 명 추모


김해 정토원은 6월8일 정토원 수광전에서 故 선진규 원장 2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경남 김해 봉화산 정토원 선건 이사장은 6월8일 정토원 수광전에서 故 선진규 원장 2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정토원 법공 스님, 등명 스님 등 스님들과 유가족 대표 선기 씨, 선건 이사장, 이장명 신도회장, 법성 거사, 황재현 법사 등 신도회 5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 진행은 추모법회, 유족대표 선기 씨 인사, 선건 이사장 인사말, 이장명 신도회장 추도사, 선진규 원장 제자 법성 거사 추도사, 황재현 법사 추모시 낭독, 바라춤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선건 정토원 이사장은 "故 선진규 원장이 떠나던 마지막까지 아미타불을 염송한 것이 눈에 선하다"며 "2주기를 맞아 정토원 사부대중에게 남기신 3가지 수칙의 소중한 유산을 지혜롭게 실천하는 도반이 되자"고 강조했다.

故 선진규 원장이 남긴 3가지 수칙은 첫째 자기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은 언행을 하자, 둘째 남들에게 욕먹지 않은 언행을 하자, 셋째 일체중생에게 무상보시 언행을 하자 등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마이산 탑사, 지역 인재 육성 나서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1000만 원 전달



장학금전달식 후 참석자들이 모여 행사를 기념하고 있다.

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이사장 진성, 마이산 탑사 주지)가 진안지역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또 전주 천지사 봉사단, 탑사 나누우리 봉사단은 동전 저금통 100개를 모아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전달했다.

6월 14일 진안군청(군수 전춘성)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진안사랑장학회 인재양성 장학금 전달식에는 전주 천지사 주지 현진 스님과 전춘성 진안군수, 전북 나누우리봉사단 이재현 단장, 노금숙 부단장,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최주연 센터장, 소년원협의회 어머니회 김도은 단장, 정해자 회장, 마이산탑사 이금수 거사림회장, 김성규 전주시의원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진성 스님은 "마이산 탑사는 항상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봉사를 실천하는 도량이다"며 "탑사 갑룡장학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장학금이 지역 인재 육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땅끝 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수행도량 견성원 010-8208-7836

사주명리/점술 개인지도 · 신기/신가물/제자 환영

상담환영합니다!

빙의제거와 신기운 제거는
최고 전문가(빙의 전문의)를 만나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 (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직업상 묘이장, 파묘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건강이상, 정신이상 증세, 가정불화(의처증, 의부증 심함), 잦은 우환,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 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日, 운력 체험으로 일상 번뇌 날리다

진언종 사찰서 '작무체험' 화제
다양한 대중들 사찰 방문 유도
사소하지만 사찰서 중요한 작업
"땀 흘리는 작업에 성취감 느껴"

박영빈 객원기자


사찰의 작지만 소중한 업무들을 체험하는 '작무활동'에 참가한 사람들. 사진출처=주니치 신문

일반 대중들이 불교와 사찰을 가깝게 느끼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일본에서 이색적인 사찰체험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스님들이 경내에서 작업하는 다양한 운력과 잡무를 직접 체험하며 일상의 번뇌와 잡념을 날리는 체험인 '작무(作務)활동'이 인기다. 지난 6월 10일 일본의 '주니치 신문'은 이 이색 체험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후쿠이현(福井縣) 아와라시(芦原市)에 소재한 진언종 사찰 안라쿠지(安樂寺)는 1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찰이다. 현 주지인 스기모토 세이한 스님은 본래 오사카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던 중 인연이 닿아 지난 2020년 이곳에 오게 됐다.

스님은 "나 역시 본가가 사찰이지만 지금과 같은 사찰제도와 운영방식으론 장래가 어둡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스님은 "전통적으로 지역에 묶여있는 일본 사찰제도의 특성상, 나처럼 혈연이나 지연이 아닌 새로운 인연의 스님이 주지로 오기는 힘들다"며 좀 더 광범위고 다양한 대중들이 절에 발걸음을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절을 부흥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했다. 우선은 주민들을 절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내 바이올린 콘서트, 사찰요리 교실, 야외 석불 청소 등을 개최했다. 지난해 열렸던 야외 석불 청소에는 현 내 주민뿐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참가자가 방문했다. 지난 4월 말에 시작된 '작무활동'은 이러한 체험의 연장선으로 사찰에서 스님들이 행하는 사찰 일들을 체험하는 것이다. 예불이나 좌선과 같은 종교적인 활동이 아닌, 마당쓸기나 불기 닦기와 같은 사소하지만 사찰에는 중요한 작업들이다.

세이한 스님은 "사찰의 잡무를 뜻하는 작무에는 단순한 작업이 많아, 잡념을 떨치기 쉽다"면서 "이런 점에서 사찰에서의 모든 활동이 일상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과, 사찰과 불교를 좀 더 가까이 느껴주길 바란다"며 체험활동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 진행된 작무활동은 사찰의 불기를 닦는 작업이었다. 법당 마루에 앉아 10여 종류의 금속 불기들을 천이나 칫솔을 이용해 연마제로 닦아 나간다. 스님의 시범을 시작으로 남녀 5인의 참가자들은 1인당 개수를 정해 2시간 동안 작업을 진행했다. 작업을 마친 후에는 작은 좌복을 이용한 스트레칭과 명상체험이 이어졌다.

친구와 함께 왔다는 20대의 여성은 "무념무상으로 집중할 수 있어서 기분 좋았다"면서 "또 생각보다 땀을 흘리면서 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성취감도 느꼈다"고 말했다. 세이한 스님은 "작무체험은 절의 잘 알려지지 않는 부분을 체험한다는 점과 함께, 실제 절의 잡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찰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항상 일손이 부족한 사찰운영 차원에서도 일거양득의 활동이라고 전했다.

월 1회의 간격으로 개최하는 작무활동은 사찰에서 필요한 운력활동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다음 활동은 경내 전각들을 청소할 예정이다.

세이한 스님은 "청소 작무를 예로 들면 자신이 힘을 써서 청소하는 만큼 깨끗해지는 결과가 눈에 보이기 쉽다"면서 "현대의 일에서는 실감하기 어려운 부분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묘미"라고 말했다.

日 스님들, 불교용어 없이 즉흥설법 나서

관객들에게 주제어 받아, 용어의 중요성 체감


불교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설법에 나선 요진 스님. 사진출처=코베신문

흔히 한문용어가 많아 어렵다고 하는 설법. 이러한 설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등장했다. 관객들에게 주제어를 받고, 불교용어를 모두 금지한 채 즉흥설법을 이어가는 이벤트가 일본에서 열렸다.

6월 12일 일본의 '고베신문'은 젊은 스님들을 주축으로 진행된 즉흥설법 이벤트에 대해 보도했다.

불교 종파간의 연결, 지역과 대중이 불교에 거리감을 완화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젊은 스님들이 모였다. 도쿄에서 불교를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하는 단체인 '불교 우물가 토크'와 고베시의 천년고찰 스마데라(須磨寺)가 6월 12일 공동 주최한 이번 즉흥설법 이벤트는 불교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설법에 나선 스님들은 스마데라의 요진 스님, 교토 다이코지(大行寺)의 에이게츠 스님, 오사카 코보지(弘法寺)의 코한 스님이 나섰다. 모두 30~50대 초반의 청장년 스님들이다. 관객들로부터 나온 주제어는 '목숨' '존 레논' '빛' '미소' '자원봉사'라는 전혀 관련 없는 5개의 단어.

심사위원을 맡은 스님과 학자들이 침묵하는 가운데 불교용어가 모두 금지된 법문이 시작됐다. 어려운 전문용어는 물론 '부처님'이나 '스님', '불법'과 같은 단순한 용어도 모두 금지라는 조건에 법문에 나선 스님들이 난색을 표했다.

석가모니라는 말을 쓰려다 황급히 "25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난 분"이라고 외치고, 불경이라는 말 대신 회의장 뒤의 불상을 가리키며 "이 분이 가르친 것을 모아서 정리한 책"이라고 말하는 등 좌중에서는 스님들의 새로운 표현에 연신 웃음이 터졌다. 한 스님은 무의식중에 '신도', '시주자'와 같은 용어를 연발하면서 심사위원들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3명의 스님들이 진땀을 빼며 설법을 마치자 심사위원인 스님들이 법문의 내용을 되돌아보며 일반 대중들로서는 알기 어려운 불교용어들을 지적하고 그 유래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의 반응은 신선했다. 한 여성은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떤 용어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욱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었다"며 계속해서 이벤트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신을 전문 상담가라고 밝힌 50대의 남성 참가자는 "말을 돌리다 보니 오히려 본질이 전해지기 어려운 일도 있음을 체감했다"면서 "편하게 써오던 불교용어들을 더욱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학술협, 불교학 연구자에 연구지원

연구·논문·번역 부문 20명
비영리 '로버트재단'서 지원

미국학술협회가 불교학 연구자들을 올해의 연구자로 선정, 학술연구지원금을 전달했다. 지난 6월 7일 온라인 금융뉴스 '야후 파이낸스'와 불교 전문 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미국학술협회(ACLS)의 불교학 연구자 선정 및 학술 연구지원금 수여 소식을 전했다.

미국학술협회는 불교학에서 뛰어난 연구와 논문, 번역 3개의 부문으로 나눠 총 20명의 학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자들에게는 현장 연구, 기록, 집필에 사용할 수 있는 3만 달러(한화 약 3800만 원)의 연구지원금이 전달됐다. 선정자들은 미국과 유럽 각 대학을 대표하는 신진 불교학자부터 중견학자까지 다양하게 포진해 있다. 연구주제도 초기불교부터 현대불교까지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 이중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선정된 박사과정의 조난단.C.포이어는 한국의 군종불교제도에 대한 연구로 연구비를 받게 됐다.

이 외에 특별히 대학에서 이미 불교학교수로 재직 중인 5인의 연구자에게는 현재 주목받는 연구와 저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7만 달러(한화 약 9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외에 불교학 원전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연구자와 프로젝트에 각각 미화 5만 달러(한화 약 6400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지원됐다.

미국학술협회의 회장인 조이 코널리는 "미국학술협회는 불교 연구에 대한 세계적인 관점을 인상적인 범위의 주제로 이끌어주는 특별한 동료들과 지원자들을 지원하게 돼 자랑스럽다. 많은 인문주의 학자들에게 불안정한 시기, 우리는 로버트 재단의 파트너십을 통해 학부생, 나아가 교실 너머 세계의 청중들에게 불교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印, 몽골에 문화재 교류 대표단 파견

인도박물관 소장품 전시위해
모디 총리 "외교 관계 구축"


비하르주의 불교유물이 담긴 의장용 상자. 사진출처=데칸헤럴드

인도 정부가 몽골과의 문화 외교를 위해 문화재교류 대표단을 몽골에 파견해 화제다. 지난 6월 11일 인도의 영어 일간지 '데칸헤럴드'는 인도 정부가 대표단을 몽골에 파견한 소식을 전했다.

인도는 몽골과의 문화외교를 위해 키렌 리지주 법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25명의 문화재 교류 대표단을 구성, 인도 비하르주에서 발굴된 불교유물과 함께 파견했다. 대표단은 오는 14일 몽골에 도착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간단사원의 바트사가안 사원에 11일간의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화재 교류에 포함된 비하르주의 불교유물은 인도국립박물관이 소장 중인 유물들로 1898년 영국고고학자들에 의해 부처님의 고향으로 알려진 고대도시 카필라바스투 유적에서 발굴된 것들이다. 리지주 법무장관은 "카필바스투의 유물로 알려진 불교유물은 발굴 이후 단 한 번도 박물관 밖으로 반출된 역사가 없다. 그러나 몽골정부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우리는 전시를 위해 이 유물들을 문화재 교류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일주일간 전시할 예정이었으나 몽골 정부의 요청으로 전시 기간이 11일로 연장됐다"고 전했다.

리지주 법무장관은 이어 "불교 문화재 교류는 모디 총리가 문화이웃이라고 불렀던 몽골과의 외교 관계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재 교류 대표단의 선발대가 몽골에 파견돼 간단사원의 공간을 살펴보았으며 유물은 인도국립박물관의 수장고와 동일한 온습도 통제 전시장에 넣어 공개될 예정"이라며 "또한 이 유물은 국빈과 동일한 자격으로 예후를 받으며 두 개의 방탄 케이스와 의장용 상자에 포장해 인도 공군 조종사가 조종하는 수송기를 통해 몽골까지 운반될 것"이라고 전했다. 몽골정부는 인도정부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불교유물들은 몽골 문화부 장관의 영접을 받을 것이며, 공항에서 전시장인 간단사원까지 몽골불교의 전통적인 이운의식을 통해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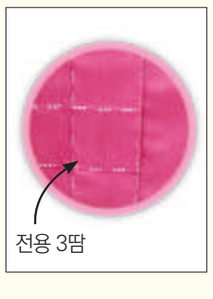
만복승복(가사)

{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KBS '6시 내고향' TV방영


전용 3땀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5~6/2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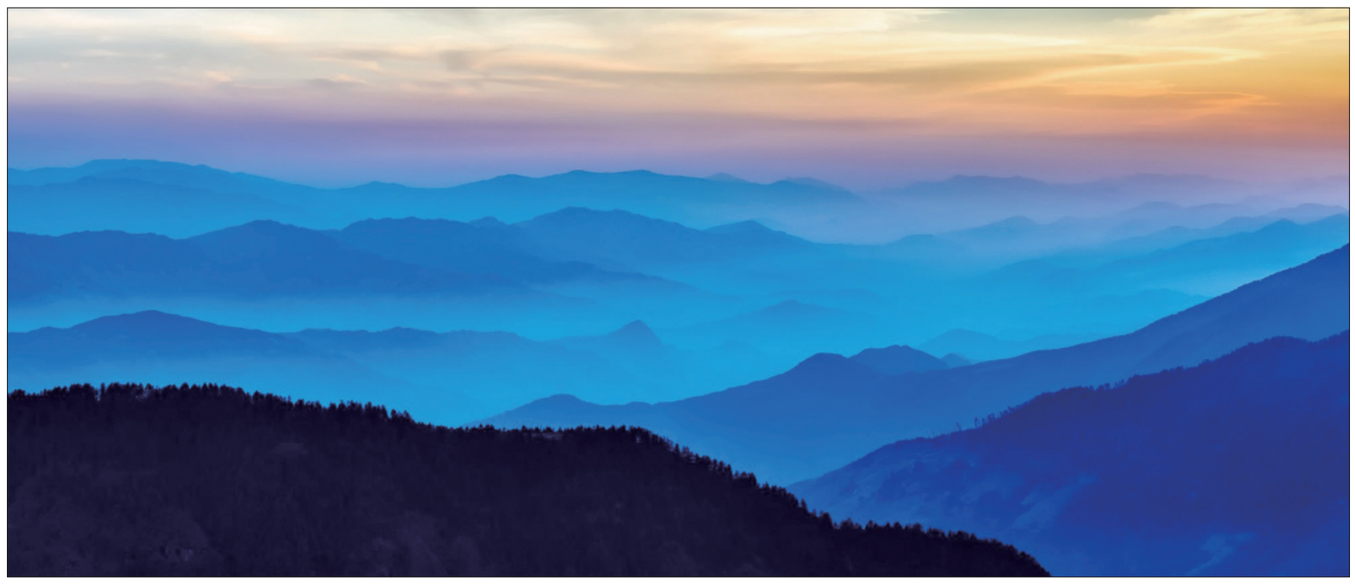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착한일많이하게그대가부처일세(고승열전11)경허스님	윤청광	우리출판사
4	반야심경정해:반야심경의의미왜곡을드러내고원래뜻을밝힌다	관정	알아차림
5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6	수심결:마음닦는요결(개정판)	지눌/오광익 연의	동남풍(=원불교출판사)
7	마하시사야도위빳사나백문백답	일창 담마간다 편역	이솔
8	숫타니파타(쿳다까니까야/원문수록)양장본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9	속담속에담은불교명쾌하고쉬운불교	김성철	오타쿠
10	읽기만해도보리심이샘솟는원빈스님의천수경	원빈스님 강설	이층버스

책세상

과학시대, 우리는 왜 주술에 주목하는가?



조용헌의 도사열전
조용헌 지음
불광 펴냄
3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이성과 논리 너머에 신묘한 지혜가 있다"
숨은 도사들과 교류, 듣고 체험한 이야기
실제 사례 내세워 신이와 영발 세계 조명

도사(道士)란 누구인가? 운명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는 이들이다. 그들의 주특기는 미래예측이며, 신통력을 비롯하여 의술 · 학술 · 역술을 겸비하고 있다. 누구나 인생에서 막장에 몰리고 밑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지만 주변에 도움 줄 사람 하나 없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더 이상 논리와 이성의 힘으로는 버티지 못할 때 하늘의 섭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곳에 도사들이 있고, 우리 인생사를 풀어주며 생각지도 못한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어떻게 할 것인가? 도사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보지 않겠는가.

이 책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문(文) · 사(史) · 철(哲) · 유(儒) · 불(佛) · 선(仙) · 천문 · 지리 · 인사 등을 섭렵한 강호동양학자 조용헌 작가가 강호의 숨은 도사들과 교류하며 직접 듣고 체험한 신비롭고 진기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과학이 점령한 시대, 하지만 이성과 논리로 풀지 못하는 인생의 난제들이 수북하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와 작용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도사들의 영발에 그 해답이 있다. 영발이란 '영(靈)'에서 발사되는 직관적인 통찰력이다. 주역, 사주명리, 풍수도참, 관상, 전생, 접신, 꿈해몽 등을 터득한 도사들의 예지력이 환한 빛으로 다가온다. 답답하고 막막했던 인생의 길을 터주는 한 줄기 빛,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어둠의 벽을 뚫고 헤쳐나가며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소한 지혜를 깨닫는다. 30대에 몰랐던 것을 40대에 깨닫기도 하고, 죽을 만큼 힘들었던 위기를 겪고 나면 한층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지나고 보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현실은 별반 나아지지 않는다. 인생이란 게 늘 위기와 위험의 연속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걱정과 고민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일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면 어떨까? 고통으로 점철된 세상 속에서도 어느 정도 살 만하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며 앞일을 내다보는 예지력을 지닌 이들, 일명 도사로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 책은 제목에서 드러나듯, 사주명리학자이자 강호동양학자 조용헌 박사가 써내려간 도사들의 이야기다. 우리 현대사를 주름잡던 도사들의 이야기가 저자의 시원하고 생동감 있는 문체로 되살아난다.

도사들의 출신 성분부터 수행법, 신통력 등을 아주 흥미롭게 다루고 있지만, 무엇보다 뛰어난 건 그들의 실제 활약상을 통해 단편적으로 바라보던 우리의 세계관과 인식을 훨씬 넓혀주는 것이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 그 속에 우리가 그토록 찾던 인생 문제의 해결책이 숨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좀더 지혜롭고 평온하게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책을 읽는 즐거움과 가치가 충분하다.

20세기는 암이 큰 병이었지만 21세기는 정신적인 질환이 큰 병이다. 정신 질환은 정신이 쉬지 못해서 오는 병이다. 왜 쉬지 못하는가? 삶이 그만큼 복잡다단하고 변화무쌍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름대로 각자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그런데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최선을 다할수록 고갈되는 느낌이고, 결국에는 번아웃 상태가 되며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겪게 된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도무지 고통에서 벗어날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삶은 논리와 이성의 잣대만으로 모두 해명되고 설명될 수 없다. 운명이라고 하는, 때로는 우연이라고 하는 요소가 삶의 결정타가 되기도 한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부닥쳤을 때 특히 그렇다. 사방이 가로막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것, 그것은 종교의 세계이자 영험의 세계이고 신이(神異)의 영역이기도 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전제하면 삶의 영역과 차원이 훨씬 넓어진다. 삶의 영역이 넓어지면 시야가 넓어지고 지혜로워지며 존재 그 자체가 평화스러워진다.

이 책은 도사들의 신비롭고 영험한 실제 사례를 내세워 신이와 영발의 세계를 이야기한다. 예로부터 논리와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인간은 절망하지 않고 자연에 기대어 신을 불러내 온갖 난관을 극복해왔다. 예상 못한 변수가 튀어나와 일을 망쳐버리는 경험을 자주 하다 보면 운(運)이나 하늘의 뜻, 인간의 팔자 등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느끼는 것과 같다. 더 이상 이성의 힘으로는 버티지 못할 때 하늘의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느덧 이성 너머에서 전해지는 신묘한 힘이 느껴진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한 힌트를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조용헌**은?

강호동양학자, 사주명리학 연구가, 칼럼니스트.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혜안을 지닌 이 시대의 이야기꾼. 강호를 좋아하여 스무 살 무렵부터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을 드나들며 수많은 기인, 달사, 학자들과 교류하고, 700여 개의 사찰과 고택을 답사했다.

문 · 사 · 철 · 유 · 불 · 선 · 천문 · 지리 · 인사 등을 터득한 그의 학문 세계를 강호동양학이라 일컫는다. 미신으로만 여기던 사주명리학을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방편이자, 철학과 인문학으로 대접받는 첫 기단을 올린 장본인이다. 문필가로서의 그의 문장은 동양 산수화의 부벽준처럼 거칠 것 없이 시원하다는 평을 듣는다. 그간의 저서를 통해 그는 한국인의 '마음의 행로'를 이야기하고 있다. 아주 먼 과거에서 시작하여 미래로 이어지는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이다. '독만권서(讀萬卷書) 행만리로(行萬里路)',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여행을 통해 경험하고 실천함으로써 이치를 궁구하고, 마침내 무한한 대자연의 이치를 깨달아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그가 전하는 메시지이다. 주요 저서로는 〈조용헌의 사주명리학 이야기〉 〈조용헌의 사찰기행〉 〈5백년 내력의 명문가 이야기〉 〈방외지사〉 〈조용헌의 고수기행〉 〈동양학을 읽는 월요일〉 〈조용헌의 휴휴명당〉 〈동양학을 읽는 아침〉 등이 있다. 현재 〈조선일보〉 칼럼 '조용헌 살롱'을 2004년부터 14년 넘게 연재중이며,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석좌교수로 있다.

책 속의 밑줄 긋기

사람의 운명을 예언하는 도사들도 각기 구사하는 초식이 다르다.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의 운명이 마치 TV 화면처럼 보이는 문파가 있다. TV 문파다.

또는 그 사람의 사주팔자가 라디오 소리처럼 귀에 들리는 문파도 있다. 이건 라디오 문파다. 귀에 리시버를 꽂은 것처럼 들리는 수도 있는데, 크게 보면 라디오 문파와 같은 범주이지만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다르다.

〈'TV 도사, 라디오 도사, 그림책 도사'中에서〉

좋지 않은 일로 언론과 사회적 주목을 받는 것도 엄청난 고압 전기에 시달리는 일이다. 압력밥솥에서 푹 찌다 보면 도가 닦일 것이다. 피, 땀, 눈물이라는 3가지 액체와 감방, 부도, 이혼, 암이 몰아닥치고 있다. 광야, 사막, 설산이 한국에도 있다. 바로 감방이다. 도사의 길이기도 하다.

〈도사가 배출되는 환경'中에서〉

첫 멘트가 핵심이다. 천둥번개 신이 임재해 있는 토르 선생은 첫 마디로 상대방을 제압한다. 가장 중요한 요점이 첫마디에 압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 첫마디로 그 사람의 고민거리를 갈고리로 찍어내버리면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급속하게 마음의 문을 열게 마련이다. 무릎쯤 내려오는 검정 스커트를 입은 40대 초반의 여자가 방석에 앉자마자 토르는 선방을 날렸다. 그야말로 전광석화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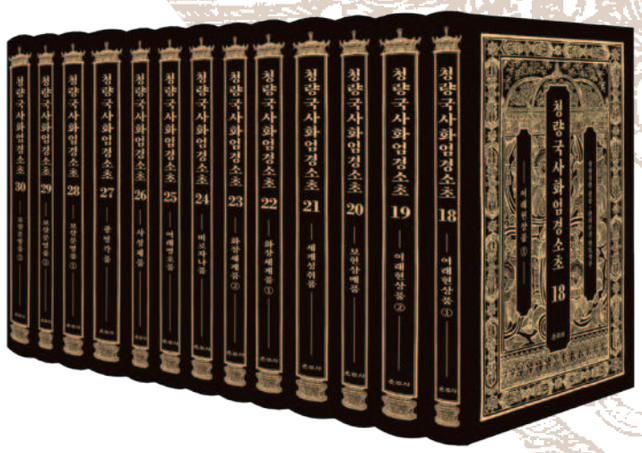
"절대 들키지 않습니다!"

〈전광석화 같은 도사의 첫 마디'中에서〉

『화엄경』 주석의 결정판,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
1,200년 침묵의 역사를 깨고 이 세상에 처음 눈을 뜨다!

『대방광불화엄경 수소연의초』 3차분 13권 출간!

『청량국사화엄경소초淸涼國師華嚴經疏鈔』 1~30





이 시대 화엄종주 해인정사 수진 스님이 엮어내는 화엄의 대서사시!

1차분 「화엄현담」 10권(2020년), 2차분 세주묘엄품 7권(2021년)
드디어 3차분(2022년) 제2품 여래현상품부터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여래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각품, 제10품 보살문명품까지 출간!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고지식할 정도의 꼼꼼한 번역!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상세하고 치밀한 각주!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 신국판양장
(낱권 판매 가능)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수미산으로 불린 낭산 흔적들 한자리에

국립경주博 특별전 '낭산, 도리천 가는 길' 특별전시관 9월 12일까지

전 황복사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금제불상 등
5개 주제나눠 낭산 관련 유물 389점 선보여
국보 금제불상 2구 · 사리 장엄구 최초 공개
경주 낭산과 관련 유물 알리고 의미 종합적 조명


전 황복사 삼층석탑 사리 장엄구의 금제 불상(통일신라, 692년 및 706년)


능지탑 출토 석조불 좌상(고려)


전 황복사 출토 신장상(통일신라)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최선주)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재)성림문화재연구원과 함께 9월 12일까지 특별전시관에서 특별전 '낭산, 도리천 가는 길' 을 공동 개최한다.

신라인이 각별하게 여긴 경주 낭산과 낭산에 남아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이들이 가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이번 전시에서는 전 황복사 삼층석탑 사리 장엄구의 금제 불상(통일신라, 692년 및 706년) 등 낭산 관련 유물 389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프롤로그 '낭산으로의 초대' △Ⅰ부 '신들이 노닐던 세계' △Ⅱ부 '왕들이 잠든 세상' △Ⅲ부 '소망과 포용의 공간' △'전시를 마치며' (에필로그) 등 5개의 주제로 구성했다.

△'프롤로그-낭산으로의 초대' 에서는 낭산의 위치와 낭산에 있는 문화유산을 소개한다.

△Ⅰ부 '신들이 노닐던 세계' 에서는 사천왕사와 전(傳)황복사 등 낭산의 사찰에서 다양한 신장상(神將像)이 만들어진 배경을 소개한다. 토착신앙의 성지이던 낭산이 불교라는 새로운 사상의 공간으로 변했지만, 신성한 공간이라는 인식과 국가를 지켜준다는 상징성만큼은 그대로 이어진 배경을 소개한다.

△Ⅱ부 '왕들이 잠든 세상' 은 진평왕릉과 선덕여왕릉이 낭산 일원에 들어서면서 낭산 일대가 신라왕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자리매김하였고, 그 과정에서 왕의 명복을 비는 사찰이 건립되었음을 소개한다. 1942년 전 황복사 삼층석탑에서 수습된 사리 장엄구는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데, 국보로 지정된 금제 불상 2구를 비롯한 사리 장엄구가 세상에 나온 지 80년 만에 처음으로 일괄 전시되어 특별전의 의미를 더한다.

△Ⅲ부 '소망과 포용의 공간' 에서는 낭산이 국가와 왕실의 안녕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소망을 기원하던 공간으로 성격이 확장되었음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국립경주박물관과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능지탑에서 발굴된 유물을 함께 선보인다. 능지탑의 원형을 짐작케 하는 벽전(甓塼)과 상륜부 장식도 처음으로 공개한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에 낭산 서쪽 자락에서 발견되었다가 국립경주박물관에 남은 십일면관음보살상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약사불상이 처음으로 함께 전시되는데,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하던 신라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전시를 마치며(에필로그)' 에서는 사역(寺域)의 대부분이 발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명칭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전 황복사의 사례를 소개하며, 낭산의 문화유산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특별전은 그동안 사람들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던 경주 낭산과 그 문화유산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주에서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재)성림문화재연구원이 공동으로 전시를 개최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삼국유사〉에는 경주 낭산과 관련한 흥미로운 내용이 실려 있다. 신라 제27대 왕인 선덕여왕은 자신이 죽거든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자 신하들은 그곳이 어디인지 몰라 당황했고, 선덕여왕은 낭산의 남쪽이라고 일러주었다. 불경에는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고 하였고, 문무왕 19년(679) 낭산 기슭에 사천왕사가 세워지자 신라인들은 그제야 선덕여왕의 신령하고 성스러움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신라인들에게 수미산으로 여겨진 경주 낭산은 토착신앙의 성지였다. 사천왕사가 세워진 곳은 원래 신들이 노닌다는 신유림(神遊林)' 이 있었다. 413년 누각 형태의 구름이 낭산에서 일어났고 향기가 가득 퍼져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당시 실성 이사금은 "이는 반드시 신선이 내려와 노니는 것이니, 응당 이곳은 복스러운 땅"이라며 낭산에서는 나무를 베는 것조차 금했다. 이러한 신령스러움 때문에 낭산은 중요한 제장(祭場)으로 사용되었으며, 신라의 중요한 명산대천 가운데 으뜸인 삼산(三山)의 하나로 대사(大祀)가 거행되는 공간이었다. 문의 (054)740-7500.


조승희 作, 꽃문(자연으로)20호

수채화로 만나는 전통문양 속 미학

조승희 개인전 '전통문양 수채화로 꽃피우다' 갤러리인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한국적 문양의 보편적 기호성서 찾아낸 미학을 수채화로 옮겨

산사의 꽃문, 단청 등 한국적 문양들을 소재로 한 수채화 전시가 열린다. 수채화가 조승희 작가는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갤러리인에서 수채화전 '전통문양 수채화로 꽃피우다' 를 개최한다. 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금동반가사유상, 꽃문, 단청 등 한국의 전통 문양을 수채화로 옮긴 작품을 선보인다.

조승희 작가의 그림은 '문양' 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그 문양은 찬란한 우리 문화의 유물들이다. 조 작가는 한국적 문양의 보편적인 기호성에서 찾아낸 미학을 수채화로 옮기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조 작가 작품의 오브제가 된 '문양' 은 시대적으로 변화를 보이면서 조 작가의 작품세계를 만들어왔다. 초기 작품의 문양들은 찬란한 우리 문화의 유물들이었다면 후기 작품에 등장하는 문양은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문양들이다.

조 작가는 2007년 '생활의 발견' 시리즈에서 색바랜 산사의 '꽃문' 과 보자기와 복주머니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에 몰두했고, 2009년의 '찬란한 유산' 시리즈는 유물에 의한 한국적 역사성에 집중했다. 작품의 크기도 커졌으며 화면 구성에 있어 디지털적 화면구성이 돋보였다. 2015~2017년 시기부터는 한국적 담론에서 작가 주변의 개별담론으로 변한다. 그래서 작품 타이틀로 '추억여행' 이 등장하고 베개의 문양이 등장한다. 2019~2021년에는 주제 사물이 클로즈업되어 등장함과 동시에 장독대가 등장한다. 또한 '추억여행' 시리즈에서 그 추억의 구체적 대상으로 '엄마의 뜰' 이 등장한다. 이것은 조 작가의 작품제작 관점이 주변의 거대담론 속에서 점점 자신의 얘기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조 작가의 작품들은 2019년을 기점으로 소환된 문양 속에서 한국적 의미성을 찾고자한 반면 2019년 이후에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삶의 의식이 담긴 장독대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베개의 문양 강조와 장독대의 등장 속에는 문양의 보편적 상징의 의미를 넘어서는 '그리움' 이 있다. 장수의 문양이 있는 베개는 이부자리가 아닌 곳에 놓여 있으며, 무덤덤한 장독대에는 장소성이 배제된 채 꽃이 피어있다. 또한 표현의 화려함과 잔재주가 보이지 않는다. 조 작가 스스로 밝혔듯이 이 모든 것은 어머니의 공간이었으며 조 작가의 그리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 작가의 그림에서 보이는 '그리움' 은 회상적 기억에 의존하기에 화려함과 복합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조 작가의 작품 속에는 표현의 화려함이 없고 담백하다. 그 그리움은 한국적 문양의 보편적 기호성을 넘어 조 작가의 개인적 특수성으로 확장된다. 조승희 작가는 담담한 수채화를 고집한다. 그렇게 때문에 조 작가의 수채화는 무분별한 디지털적 표현의 복합적 이미지의 난무 속에서 벗어난 순수함이 작품세계를 이룬다.

수채화가 조승희 작가는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다. 부스 개인전 5회를 비롯 국내외 그룹전 및 단체전에 다수 참가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1회, 목우공모전 입선 2회, 한국수채화협회공모전 우수상, 입선 6회, 대한민국 회화대전 특선 2회, 입선, 나혜석 미술대전 특선, 입선 등 다수 수상했다. 문의 (02)737-5989. 박재완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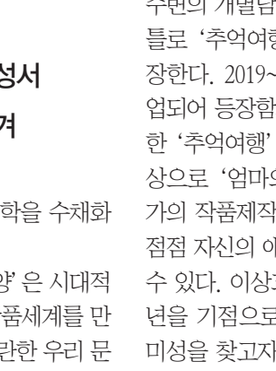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民衆醫術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70

▶ 71회 예고
아쇼까왕은 동생 비가따쇼까가 브라흐마교에 심취하자 불교로 개종시킨다. 그런 뒤 탁실라에 가 있는 꾸날라를 위로하기 위해 특사를 보낸다. 한편, 친위대 조장은 띠쉬아락시따가 준 아쇼까왕의 가짜 명령서를 들고 간다.



아쇼까, 목갈리뿟다띳사의 설법을 듣다

아쇼까왕은 니그로다를 만난 뒤부터 미묘하게 변했다. 니그로다가 속한 불교승단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니그로다는 빠딸리뿌뜨라성으로 들어와 아쇼까왕의 호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다. 짠달라 천민촌에서 스승 마하바루나 뒤를 이어 천민 달리뜨들과 함께 살기로 발원한 까닭이었다. 대신, 니그로다는 아쇼까라마 책임자로 율사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를 추천했다. 아쇼까왕은 즉시 니그로다의 추천을 받아들였다. 아쇼까왕이 어린 왕자였을 때 목갈리뿟다띳사가 스승으로서 불법과 산스끄리뜨어를 가르친 인연이 있기도 해서였다. 아쇼까왕이 친위대장에게 말했다.

"목갈리뿟다띳사 사문이 언제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오?"

"소장이 강가강 동굴로 찾아가 대왕님의 명을 전했을 때 바로 오늘 들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문에서 기다리다가 정중하게 데려오시오."

"예, 대왕님."

아쇼까왕은 친위대장이 나가자 라다굽따 수상을 불렀다.

"나를 실망시킨 브라흐마교 수행자들을 아침공양에서 줄이고 있지요?"

"대왕님 지시대로 브라흐마교 수행자들을 줄이면서 불교수행자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선왕 때의 공양전통이니 6만 명의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시오."

"공양 장소를 아쇼까라마로 옮기었을 뿐 6만 명이 아침마다 공양하고 있습니다."

꾸꾸따라마 터에 아쇼까라마가 건립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꾸꾸따라마의 낡은 건물들을 중건하고 보수한 것에 불과했다. 그렇지 않다면 거대한 규모의 아쇼까라마를 3년 만에 조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터였다.

이윽고 정오 무렵에 친위대장이 목갈리뿟다띳사를 데리고 정궁 접견실로 왔다. 아쇼까왕은 의자에서 일어나 목갈리뿟다띳사를 맞이했다. 25년만의 재회였다. 마른 과일 같은 목갈리뿟다띳사의 얼굴에는 잔주름살이 가득했고 다리는 지팡이처럼 가늘었다.

"사문이시여, 어서 오시오. 얼마만인가요?"

"소승을 잊지 않고 불러주시니 감개무량합니다. 친위대장님이 소승의 동굴로 오시어 대왕님께서 저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아쇼까라마의 책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문님이야말로 아쇼까라마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불렀습니다."

"저는 능력이 모자랍니다. 미투라에 은거하고 있는 우빠굽따 사문을 만나십시오."

"사문은 어린 시절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으니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대왕이시여, 그렇다면 우빠굽따 사문이 올 때까지만 맡겠습니다."

그제야 아쇼까왕은 우빠굽따를 만났던 일을 떠올렸다. 옛 아반띠국 부왕으로 가는 도중 옛 왐사국의 수도 꼬삼비에서 만나 짧은 법문을 들었는데, 미투라 출신의 우빠굽따는 아난다의 가풍을 흠모하는 사문으로서 붓다가 머물렀던 성지를 순례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다.

"어린 시절 사문께 무례한 줄도 모르고 고집만 피우던 일이 생각나오."

"그때 고향 베살리로 떠났다가 강가강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사문께서 아쇼까라마를 맡아주시겠다고 하니 안심이오. 나는 사문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가능한 한 들어줄 것이니 언제든 말씀해주시오. 나는 불교승가가 원하는 만큼 보시를 하겠소."

아쇼까는 옆에 있는 라다굽따에게 지시했다.

"당장 아쇼까라마에 공양하러 오는 불교수행자들에게 가사를 한 벌씩 보시하시오."

"대왕님이시여, 고맙습니다."

"사문이시여,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해 심오한 가르침을 줄 수 없겠소?"

"누구나 지혜롭게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고타마 붓다께서 다음과 말씀하셨지요."

물을 다스리는 이는
물길을 다루고
화살을 만드는 이는 화살을 다루고
나무 다듬는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현명한 이는 자기마음을 잘 다룬다.

"대왕님이시여, 붓다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인연담은 이렇사옵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담마빠다(법구경)〉에 나오는 인연담을 설하기 시작했다. 붓다께서 사밧티 제따 숲에 계실 때였다. 한 상인의 아내가 아기를 잉태했을 때 어리석고, 눈멀고, 귀먹은 집안사람들이 놀랍게도 모두 현명해졌다. 축복이 내린 경사였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 이름을 빤디따라고 지었다. 상인의 아내는 아기가 성인 같은 느낌이 들어 "내 아이가 성장하면서 무엇이 되고 싶어 하든 간섭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아이는 일곱 살이 되자, 어머니에게 "장로 밑에서 수행승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상인의 아내는 아이를 싸리뿟따 장로에게 출가시켰다. 싸리뿟따가 어린 빤디따의 출가를 허락하자 그의 부모는 7일간 사원에 남아서 수행승들에게 공양을 올렸다. 8일째 되는 날, 싸리뿟따는 빤디따에게 가사를 수한 뒤 발우를 들게 하고 마을로 갔다. 싸리뿟따는 길을 걷는 동안 빤디따에게 수행자로서 동작 하나하나의 위의를 가르쳤다.

아쇼까왕은 목갈리뿟다띳사의 설법을 흥미롭게 들었다. 수행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당당한 위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일곱 살의 빤디따는 조카 니그로다를 연상시키어 더욱 귀를 기울이게 했다.

빤디따는 싸리뿟따를 따라가면서 길가의 도랑을 보자 물었다.

"존자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밭을 개간하기 위해 물을 이리저리 이끄는 물길이라오."

그러자 빤디따가 다시 물었다.

"존자여, 물은 마음이 있습니까?"

"벗이여, 없지요."

싸리뿟따는 빤디따가 어렸지만 출가했으므로 벗으로 불렀다. 빤디따도 이제는 나이를 떠나서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인 것이었다.

"존자여, 마음이 없는 물이라도 원하는 곳으로 끌어댈 수 있습니까?"

"벗이여, 그렇다오."

빤디따는 싸리뿟따의 대답을 들은 뒤 혼자서 생각했다.

'마음이 없는 물을 원하는 곳으로 끌어대는데, 왜 마음이 있는 이들이 자기마음을 스스로 닦는 수행자의 삶을 살지 못할까?'

빤디따는 또 길을 가다가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화살재료를 불에 구워 눈썰미로 바로잡는 것을 보았다. 빤디따는 또 싸리뿟따에게 물었다.

"존자여, 화살에 마음이 있습니까?"

"벗이여, 없지요."

빤디따는 또 생각했다.

'마음이 없는 화살을 불로써 바로잡는데, 왜 마음이 있는 이들이 자기마음을 스스로 닦는 수행자의 삶을 살지 못할까?'

빤디따는 또 길을 가다가 나무토막으로 수레바퀴를 만드는 목수를 만났다. 빤디따는 또 싸리뿟따에게 물었다.

"존자여, 나무토막에 마음이 있습니까?"

"벗이여, 없다오."

빤디따는 또 생각했다.

'마음이 없는 나무토막으로 수레바퀴를 만드는데, 마음이 있는 이들이 자기마음을 스스로 닦는 수행자의 삶을 살지 못할까?'

이윽고 빤디따는 길에서 싸리뿟따에게 가사와 발우를 맡기고 수행에만 전념하려고 결심했다. 싸리뿟따는 그 자리에서 수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수행하도록 당부했다. 빤디따는 즉시 싸리뿟따의 방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다. 그가 정진하는 동안 제석천의 보좌가 뜨거워졌다. 제석천은 '무슨 일인가?' 하고 의아해하다가 빤디따가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제석천은 하늘의 신들에게 빤디따가 있는 사원을 보호하게 했다. 싸리뿟따는 빤디따가 먹을 음식을 탁발해 왔다. 붓다는 빤디따가 곧 거룩한 경지를 성취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붓다가 싸리뿟따를 불러 말했다.

"싸리뿟따여, 무엇을 가져왔는가?"

"세존이시여, 음식입니다."

"음식은 무엇을 주는가?"

"느낌입니다."

"느낌은 무엇을 알게 하는가?"

"몸입니다."

"몸은 무엇을 알게 하는가?"

"접촉입니다."

붓다와 싸리뿟따의 대화 요지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었다. 굶주린 이가 음식을 먹으면, 허기가 사라져 즐거운 느낌을 준다. 즐거운 느낌의 결과는 몸에 생기를 준다. 몸에 생기가 생기면 만족과 기쁨을 얻는다. 그제야 정신적으로 '나는 이제 행복하다.' 하는 생각으로 몸이 활동, 즉 대상들과 접촉한다. 마침내 붓다와 싸리뿟다가 대화하는 사이에 빤디따는 거룩한 경지를 얻었다. 붓다는 싸리뿟따에게 말했다.

"싸리뿟따여, 빤디따에게 가서 음식을 주어라."

싸리뿟따는 빤디따가 정진하는 거처 앞으로 가서 방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빤디따가 문을 열고 나와 싸리뿟따가 주는 음식을 받아 한쪽에 놓았다. 그런 뒤 싸리뿟따에게 부채를 천천히 부쳐주었다. 싸리뿟따가 말했다.

"빤디따여, 아침을 들라."

"존자여, 당신은?"

"나는 아침을 먹었다오."

이렇게 해서 8세의 빤디따는 연못에 활짝 핀 수련처럼 자신의 성찰을 통해서 거룩한 경지를 얻고는 싸리뿟따가 탁발한 음식을 먹었다. 이윽고 붓다가 수행승들에게 말했다.

"수행승들이여, 빤디따가 거룩한 경지를 얻기 위해 정진하는 동안, 하늘사람 짠다가 월륜(月輪)을, 하늘사람 쑤리야가 일륜(日輪)을 끌어다 놓고, 네 하늘나라의 왕들이 사방을 보호했고, 신들의 제왕 제석천이 문고리를 수호했다. 나도 앉아 있지 않고 싸리뿟따의 거처 문지방으로 가서 나의 아들 빤디따를 살펴보았다."

목갈리뿟다띳사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고타마 붓다께서는 빤디따의 사연을 아시고 네 마디의 시를 읊조린 것입니다."

"사문이시여, 빤디따는 내 조카 니그로다를 연상시키는구려. 어린 니그로다를 보고 내가 왜 위의를 느꼈는지 이제야 알겠소. 오, 나 혼자만 붓다의 담마를 듣기보다는 마우리아왕국의 모든 백성들이 붓다의 담마를 듣고 행복하기를 바라오. 무슨 방법이 없겠소?"

"대왕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서 붓다의 담마를 다 설할 수는 없습니다. 8만 4천의 담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쇼까왕은 감동하여 말했다.

"백성들이 붓다의 담마를 하나씩만 외우고 실천해도 더 없이 행복할 것이오. 나는 8만 4천 개의 사원을 지어 사문들이 각 사원에서 담마를 한 개씩 설하도록 하겠소."

"대왕님이시여, 잠부띠바에는 8만 4천 개의 도시가 있으니 각 도성에 하나씩 사원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문이시여, 나는 약속하겠소. 3년 안에 8만 4천의 도시에 하나씩 사원을 건립하겠소."

그런데 라다굽따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목갈리뿟다띳사는 감격스러워했고, 아쇼까왕은 감동했지만 라다굽따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잠부띠바 전 도시에 8만 4천 개의 사원을 건립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따라서 나라의 재정이 바닥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계속〉



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⑫ 가상대사(嘉祥大師) 길장(吉藏)



▶ 한줄 요약

길장이 세운 삼론종은 그 시기에 도교에 깊은 영향을 미쳐 성현영(成玄英)이 중현학(重玄學)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사상을 제공하였고, 또한 우두종에서는 삼론종과 중현학을 받아들여 독자적인 선풍(禪風)을 일으키게 하였다.

삼론종 정립해 불교학 발전에 공헌

수대(隋代)에 문제(文帝)와 양제(煬帝)의 불교 부흥정책에 힘입어 수많은 고승들이 출현하였고, 그에 따라 불교학의 발전 역시 두드러졌다. 이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천태학을 건립한 지자대사(智者大師) 지의(智顗)이지만, 또한 구마라집(鳩摩羅什)에 의해 번역된 〈중론(中論)〉, 〈백론(百論)〉, 〈십이문론(十二門論)〉으로부터 출현한 삼론종(三論宗)을 정립한 길장(吉藏, 549~623)을 손꼽을 수 있다. 특히 길장은 남조의 진(陳)으로부터 수대를 거쳐 당(唐: 618~907)이 건립된 이후에 입적하였으니, 그 생애가 삼조(三朝)에 걸쳐 있다고 하겠다.

삼론종의 건립자이면서 수많은 저술을 찬술한 길장의 전기와 자료는 당대 이후 삼론종의 전승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다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속고승전〉에 비교적 상세한 그의 전기가 실려 있고, 〈불조통기〉 등에 간략한 전기와 관련된 자료들이 남아 있어 그를 참조하여 그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한다.

길장의 속성은 안(安)씨이며, 부친이 본래 안식국(安息國: 현 이란 북동부)출신이지만, 전쟁을 피해 교주(交州: 현 베트남 북부)와 광주(廣州: 현 廣西省)지역에 머물다가 금릉(金陵: 현 南京)으로 이주하여 길장을 낳았다. 본래 불교신앙이 깊었던 길장의 부친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진제삼장(眞諦三藏)을 참알하여 '길장' 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그 후 길장의 부친은 출가하여 법명을 도량(道諒)으로 하고, 항상 길장을 데리고 흥황사(興皇寺) 도랑(道朗)의 강의를 들었는데, 어린 길장은 그 강의를 모두 이해하였다고 한다.

길장의 나이 7세(혹은 13세)에 도랑에게 출가하였으며, 14세에는 법랑(法朗)으로부터 〈백론(百論)〉을 수학하였다. 여기에 언급되는 도랑과 법랑은 모두 삼론종의 법맥을 계승한 이들이다. 그에 따라 삼론종의 법맥은 삼론을 최초로 번역한 구마라집으로부터 승숭(僧嵩), 담제(曇濟), 승랑(僧朗), 승전(僧詮), 법랑을 거쳐 길장으로 설정하고 있다. 길장은 19세에 이르러 강의를 시작하였는데, 그 명성이 진나라에 널리 펴졌으며, 20세에 구족계를 받은 후에는 진의 계양왕(桂陽王)이 그를 흠모하여 늘 강의를 들었다.

진말에 수(隋)의 군대가 침공하자 길장은 훼손을 우려하여 여러 도반들과 각 사찰들을 돌며 불교의 전적들을 수집하였으며, 전란이 끝나자 이를 모두 정리하였다고 한다. 그에 따라 길장이 섭렵한 전적들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저술들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수가 진을 멸하자 길장은 진망(秦望, 현 折江省 紹興市)의 회계산(會稽山) 가상사(嘉祥寺)에 주석하며 강론을 하자 그의 문하에 1000명이 넘는 학인들이 운집하였고, 도를 배우기 위해 온 승속(僧俗)의 이들로 그 주변이 도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 길장은 '가상대사(嘉祥大師)' 라고 칭하게 되었다.

길장이 가상사에 주석할 때에 〈법화경〉을 강의하였으며, 〈법화의소(法華義疏)〉 12권, 〈법화현론(法華玄論)〉 10권 등을 찬술하였다. 개황(開皇) 17년(597) 천태 지자대사가 다시 천태산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길장은 100여 명의 승려들과 함께 〈법화경〉을 강의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지만, 지자대사가 입적하여 무산되었고, 나중에 지자대사의 제자인 관정(灌頂)으로부터 천태의 종의(宗義)를 들었다고 한다.

개황 말년에 진왕(秦王) 양광(楊廣: 煬帝)이 양주(揚州)에 4개의 도량(道場)을 개설하여 고승들을 초빙하였는데, 길장도 혜일도량(慧日道場)에 초청되어 극진한 예우를 받았으며, 개황 19년(599) 양광이 제도(帝都)인 장안(長安)으로 가면서 길장을 동행시켜 일엄사(日嚴寺)에 주석하게 하였다. 길장은 일엄사에서 〈유마경〉을 정리하면서 〈정명현론(淨名玄論)〉을 저술하였다. 그에 따라 장안에 길장의 명성이 널리 펴졌다. 이후 양제(煬帝)의 차남 제왕(齊王) 양간(杨暕)이 길장을 흠모하여 대업(大業) 5년(609)에 60여 고승들을 청하여 변론회(辯論會)를 개최하였는데, 길장을 논주(論主)로 임명하였다. 〈고승전〉에는 당시 승찬(僧璨)과의 논쟁을 언급하면서 길장이 압승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불심 깊은 부친 영향 7세에 출가
〈대승현론〉 5권 등 40여 종 저술
법랑 학설 계승 삼론과 열반 탐구
'법화' '현의' 받아 〈법화경〉 논구
독자적 삼론종 종의(宗義)를 수립



길장 초상화.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중국역대인물 초상화(한국인문고전연구소)

이후 수조(隋朝)가 망하고, 당(唐) 고조 이연(李淵)이 장안에 이르자 불교의 대표로서 길장을 청하여 대화를 나누고 극진하게 예우를 갖추었다. 이후 무덕(武德) 원년(618), 당조에서 10명의 대덕들을 청하여 수대에 지나치게 비대해진 불교를 관리하고자 하였는데, 그 가운데 길장이 초빙되었다. 후에 고조의 4남, 태종(太宗)의 동생인 이원길(李元吉)이 길장을 청하여 연흥사(延興寺)에 주석하게 하여 극진히 모셨지만, 길장은 점차 노환에 시달리게 되었고, 무덕 6년(623) 5월에 임종에 앞서 또한 〈사불포론(死不怖論)〉을 찬술하였고, 세수 75세로 안좌(安坐)하여 입적하였다.

길장이 입적하자 황제는 칙명으로 위문하고 부조하였으며, 남산(南山)에서 석감(石龕)을 찾아 유골을 안치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제자 혜원(慧遠)은 남산의 지상사(至相寺)의 북암(北巖)에 석굴을 조성하여 안치하였고, 그곳에 공덕비를 세웠다.

길장은 50여 년 동안 법을 펼치면서 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승전(僧傳)이 보이는 이들은 혜원, 지발(智拔), 지개(智凱), 지명(智命), 석법사(碩法師), 혜관(慧灌) 등이다. 그 가운데 혜관은 고구려인이며, 후에 일본으로 건너가 삼론을 전하였기 때문에 일본 삼론종의 초조(初祖)가 되었다.

또한 길장의 저술은 상당히 방대하여 40여 종에 달하지만, 현존하는 것은 26부이고, 그 가운데 몇 부는 진위(眞僞)가 의심스러운 것도 있다. 그를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현재에도 자주 인용되는 저술은 〈대승현론(大乘玄論)〉 5권, 〈삼론현의(三論玄義)〉 1권, 〈이제장(二諦章)〉 3권, 〈중관론소(中觀論疏)〉 10권, 〈백론소(百論疏)〉 3권, 〈십이문론소(十二門論疏)〉 3권, 〈법화론소(法華論疏)〉 3권, 〈법화의소(法華義疏)〉 12권, 〈법화현론(法華玄論)〉 10권, 〈열반경유의(涅槃經遊意)〉 1권 등이다.

길장의 생애를 통하여 그의 학설은 흔히 세 차례의 변용을 거쳤다고 평가한다. 첫째는 그의 스승인 법랑의 학설을 계승하여 삼론과 열반(涅槃)을 깊게 탐구하였으며, 둘째는 천태종에서 제창한 '법화(法華)' 의 '현의(玄義)' 를 받아들여 〈법화경〉의 사상을 논구하였고, 최후로는 다시 삼론으로 돌아가서 〈삼론현의〉 등을 찬술하여 독자적인 삼론종의 종의(宗義)를 수립하여 선양했음을 말한다. 그에 따라 길장 이전을 '고삼론(古三論)' 이라 칭하고, 길장의 삼론학을 '신삼론(新三論)' 이라고 칭한다.

그에 따라 길장은 삼론학에 있어서 자신의 새로운 견해를 밝혔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그의 〈대승현론〉(大正藏45 所收)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다. 〈대승현론〉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의(二諦義), 팔불의(八不義), 불성의(佛性義), 일승의(一乘義), 열반의(涅槃義), 이지의(二智義), 교적의(教迹義), 논적의(論迹義) 등의 '팔과(八科)' 로 구성되어 있다. 그 논술에서 길장이 이미 찬술한 저술을 인용하고 있고, 또한 길장의 사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된 점으로 인하여 길장의 만년 혹은 사후에 제자들에 의하여 편집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으며, 위작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길장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어 삼론종의 중요한 저술이고, 특히 일본 삼론종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대승현론〉에서는 용수(龍樹)의 중관(中觀) 사상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데, 특히 '이제의' 에서는 '사중이제론(四重二諦論)' 을 제창하고 있다. 또한 권3의 '불성의' 에서는 남북조시기에 출현한 '불성' 에 대한 주장들을 11가(家)로 정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하여 세세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당시 불교학계의 핵심적인 논의가 '불성' 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모두 소개하기에는 짧은 지면에 가능하지 않지만, 길장은 이를 중도불성(中道佛性)의 입장에서 '쌍견(雙遣)' 과 '수파(竪破)' 를 진행하고, 또한 이를 '횡론(橫論)' 으로 전개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쌍견' 이란 반야의 논리로 '유(有)' 와 '무(無)' 를 모두 버리고 '중도' 를 지향하는 바와 같이 대립되는 불성의 논리를 모두 버리는 입장이고, 이것이 바로 '수(竪: 세움)' 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른바 논파[破]하여 '무소득' 의 중도불성을 제창하고 있다. 그런데 천태학에서도 중도불성을 제창하지만, 삼론종과는 입장이 다르다. 이를 상세히 논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억지로 양가를 비교하여 논하자면, 삼론종의 중도는 '진공(眞空)' 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천태종의 중도는 '묘유(妙有)' 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승현론〉의 '불성의' 논의 과정에서 또한 '이내(理內)' 와 '이외(理外)' 로 나누어 " '이외' 에서는 이미 중생도 없고 또 불성도 없다."고 하지만, 만약 '이내' 에서 말한다면 "중생에게 불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초목(草木)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논하고 있고, 나아가 "의보(依報)와 정보(正報)가 둘이 아닌 까닭으로 중생이 불성이 있으니, 바로 초목도 불성이 있다."고 의정불이(依正不二)의 입장에서도 논하고 있다. 이는 이후의 불성론 전개에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특히 우두종(牛頭宗)의 선사상과 후대에 조사선에서 '무정불성(無情佛性)' 과 '무정설법(無情說法)' 의 제창에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길장의 생애는 남조의 진으로부터 수대, 당의 건립에 이르는 3조에 걸쳐 있다. 더욱이 이 삼조의 황권으로부터 모두 중시 받았음은 그의 불교사상이 뛰어났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길장이 세운 삼론종은 그 시기에 도교에 깊은 영향을 미쳐 성현영(成玄英)이 중현학(重玄學)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사상을 제공하였고, 또한 우두종에서는 삼론종과 중현학을 받아들여 독자적인 선풍(禪風)을 일으키게 하였다. 비록 삼론종은 당대(唐代) 이후에 전승이 끊어져 법맥은 사라졌지만, 길장이 남긴 수많은 저술들은 중국선과 도교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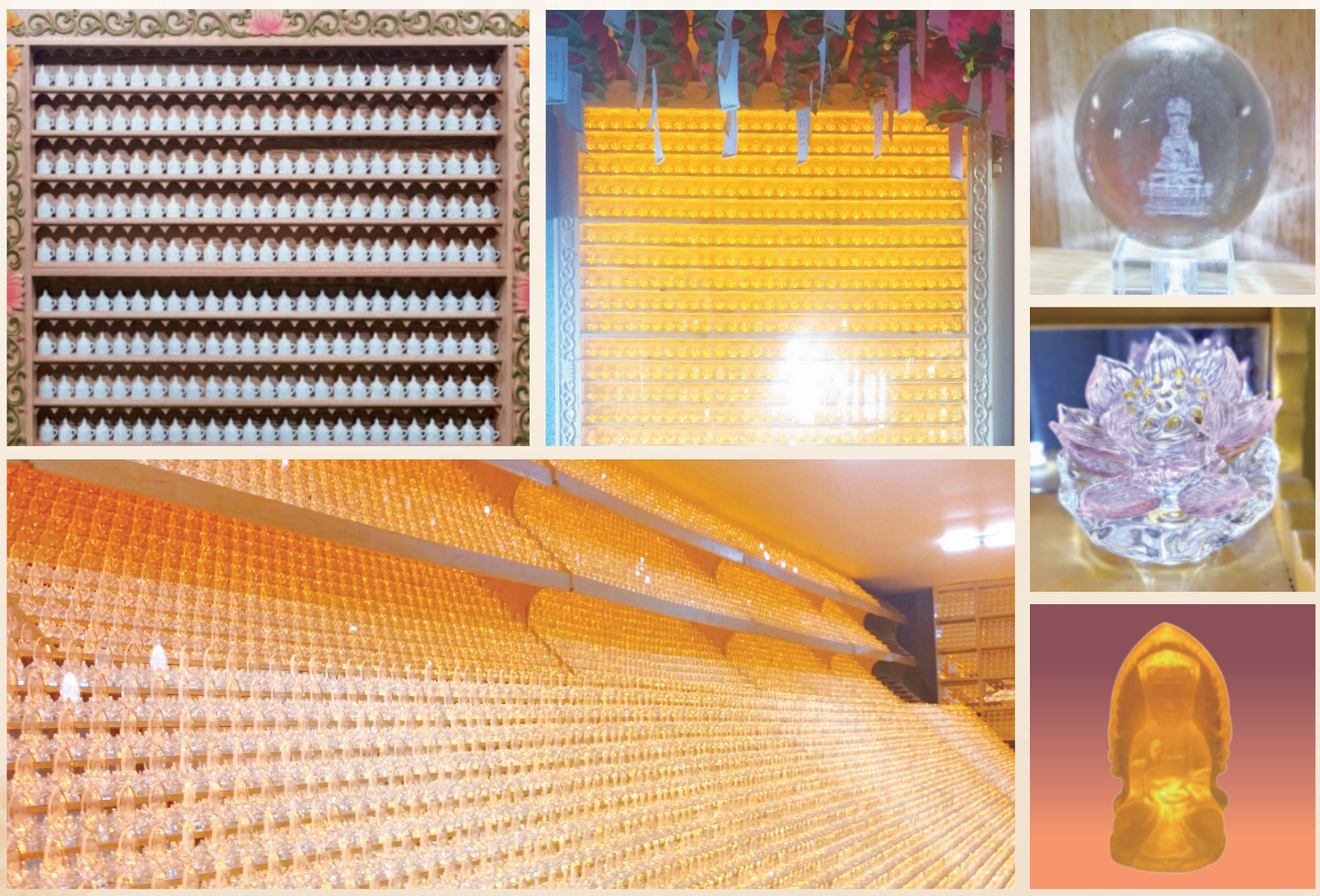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⑫ 약사정토변상도

▶ 한줄 요약
돈황 막고굴 제17굴 장경동에서 발견된 '약사정토변상도'는 당나라 말기 조성된 수작이다. 약사여래가 주재하고 있는 '동방정유리국토'를 도상에 담아내고 있다.



중생 치유 약사여래 신앙 요체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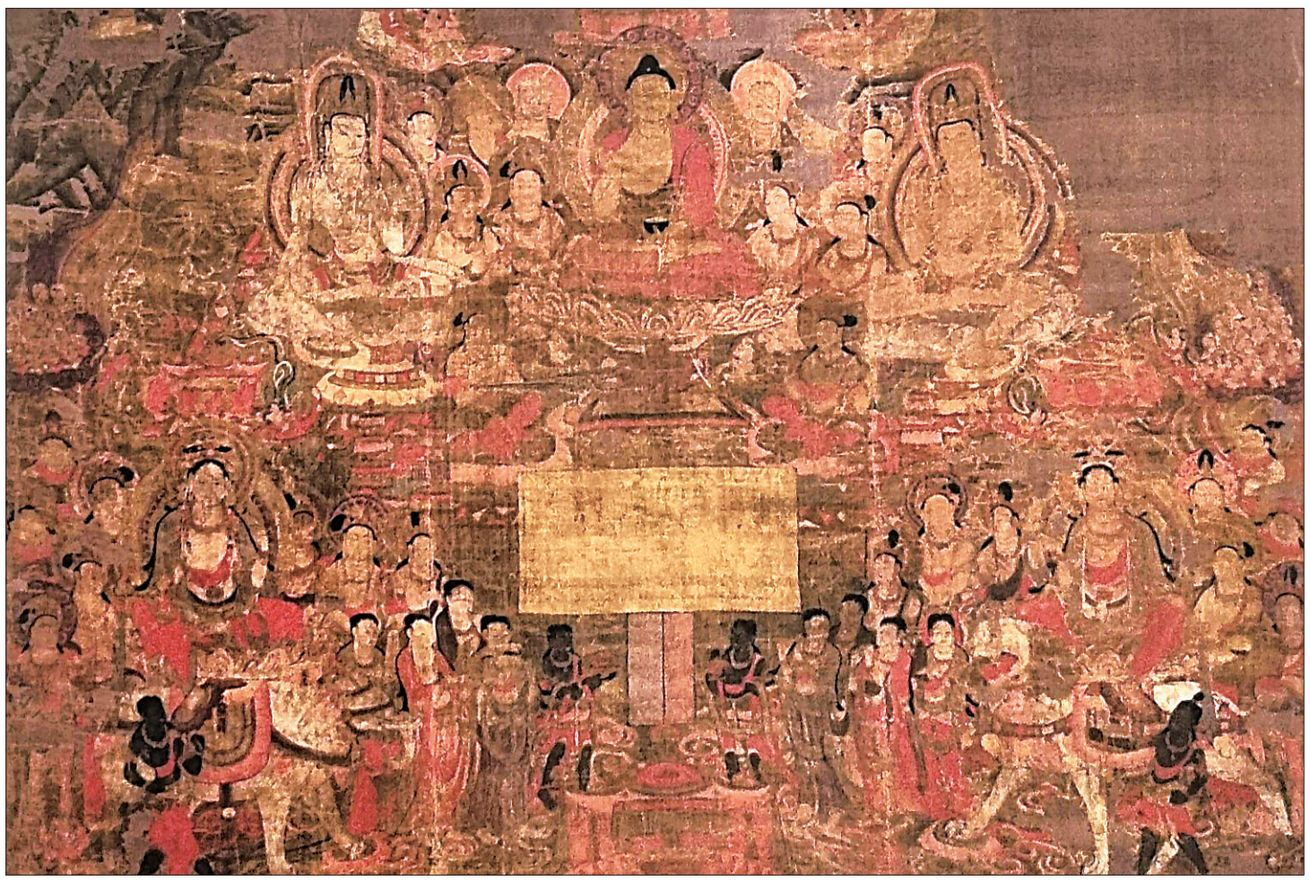
지난 연재 '유마힐변상도'를 통해서 돈황의 벽화가 성당 시기에 이르러 점차 중국전통 회화 표현 방법인 선묘화(線描畵) 위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변화의 현상은 당말, 오대, 북송에 이르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번 연재에서는 그 변화를 역력히 읽을 수 있는 당(唐)말의 작품인 '약사정토변상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열반경(涅槃經)〉에서 설한 "부처님과 보살이 큰 원인이므로 선지식이라 이름하나니, 왜냐하면 병을 알고 약을 알아서 병에 맞추어 약을 주는 까닭이다"는 법구와 같이, '선지식'은 중생이 처한 심신의 고통에 따른 법의 처방을 내려주므로, 병을 고치는 의사로 비유한다. 이는 더 많은 중생을 법의 치유로 이끌고자 하는 대승사상의 이행도를 통하여 불퇴전의 자리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약사불 경전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 출현한 정토경전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약사경〉은 그 내용 중 아미타불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미타불 경전보다 늦은 시기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당대 현장이 650년에 역출한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등이 유통됐고, 당 의정이 구법 후 돌아와 번역한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은 칠불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혜간 역본을 제외한 나머지 4부 경은 대장경에 수록됐으며, 이들 경전을 통칭해 〈약사경〉이라고 부른다.

스타인(Stein)의 수집목록에 있는 1265년 감숙성(Gansusheng, 甘肅省) 돈황 제17호 동굴에서 출토된 〈약사경〉을 회화로 표현한 '약사정토변상도'가 있다. 이 그림은 약사여래 외에 그를 호위하고 있는 보살과 신장, 그리고 비천을 중심으로 천수천안관음보살 등이 동방정유리정토를 묘사하고 있다. 영국학자인 아서 데이비드 웨일리(Arthur David Waley) 박사는 스타인이 수집한 돈황 회화 카탈로그를 작성할 때만 해도 이 주제를 읽을 수 없었으나, 몇 년 동안 적외선 촬영을 통해 그 내용을 판독했다. 연대기, 한문으로 된 비문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세로 형식으로 쓴 화기에는 총 9행으로 내용과 토번문이 중복됐고, 연대 표기가 아주 명확히 기록됐다. 주불은 '약사여래법좌'이며, 가로 형식의 티베트어 텍스트에는 기증자가 자신의 건강을 기원하며 법을 설하는 승려임을 알 수 있다.

돈황 장경동 제17굴 발견 대영박물관 소장 '약사정토변상도'의 전체 화면은 3단 구성으로 나눠지는데, 1단은 약사여래와 함께 2협시보살 그리고 많은 권속들이 상단 중앙을 차지하고 있다. 2단 중앙 노란색 직사각형 화기의 양쪽에는 문수과 보현보살이 있다. 세 번째 단은 화면의 하단에 해당된다. 중앙에는 천수천안관음보살, 왼쪽은 변신 관음 중의 하나인 여의륜관음, 오른쪽의 손상된 한문의 화기를 판독해 보니, 또 다른 변신 관음인 '불공견삭관음(不共羂索觀音)'이다. 약사 삼존불은 대좌에 앉아 있으며, 중단의 문수와 보현보살 그리고 관음보살이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그림①)



그림①. 영국 대영박물관에 소장된 '약사정토변상도'. 당나라 시기에 조성됐다.

돈황 제 17굴 발견된 약사정토변상도
약사불 주재 '동방 정유리국토' 구현
唐末 조성된 수작…약사신앙 담아내
장경동 발견, 역설적으로 돈황학 시작

토번(吐蕃) 시기 돈황 지역에서 문수, 보현, 관음보살이 널리 보급되었다는 사실은 이 그림의 문수, 보현, 관음 세 보살이 화면에서 차지하는 넓은 공간만 보아도 당시의 성행을 알 수 있다. 사실, 이 그림은 '약사정토변상도'의 형식을 완전히 갖추고 있지는 않다. 이는 토번 승려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만들어진 작품일 것이라 짐작된다. 그림의 아래쪽 절반 이상이 박락(剝落)됐지만, 이 그림은 남아 있는 돈황 견본(絹本) 회화 중에서 초대형 작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토번 시기의 돈황 회화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약사여래의 상호는 자비롭고, 의태는 장엄하고, 오발육계(烏髮肉髻, 검은색 육계)이며, 귀는 어깨에 드리우고 있다. 약사불은 붉은색 가사를 입고 결가부좌하고 연화보좌 위에 앉아 있으며,



그림②. 돈황 막고굴 제17굴 장경동 입구.

오른손은 가슴 앞에 결인(結印)을 하고 왼손은 배꼽 앞에서 약합(藥盒)을 들고 있다. 양쪽에는 월광과 일광보살 및 권속들이 둘러싸여 약사삼존불을 형성하고 있다.

약사여래는 보살대중의 상수(上首)인 좌협시 일광보살과 우협시 월광보살의 협시를 받으며 정토를 주재한다. 일광보살은 '일광편조(日光遍照)', '일요(日曜)' 등의 명칭으로도 불리며, 약사불의 좌협시이다. 우협시 월광보살과 함께 '동방정유리국토'에 있으며, 약사불의 양대 보좌로 약사삼존불로 불린다. 일광보살은 인도풍의 가벼운 옷차림으로 반(半)가부좌 자세로 앉아 있다.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고 머리는 옆으로 돌리고 있는데, 머리의 한쪽은 약간 길고 반대쪽은 약간 짧아 깊이감이 있다. 월광보살은 인도풍의 가벼운 옷을 입고 반가부좌 자세로 앉아 있다.

경전에 의하면 '동방정유리국토'는 이곳에서 동방으로 10항하 모래수의 불국토를 지나서 자리한다. 이곳의 땅은 유리로 돼 있고, 성과 대궐, 누각, 난간 등이 모두 칠보로 장식된 청정세계이다. '약사유리광여래'는 본래 보살도를 행하실 때, 12대원을 세워 중생을 구제하고자 했다. 이 12대원은 궁극적인 무상보리로 이끄는 불퇴전의 자리를 보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질병, 빈곤, 장애, 차별, 의식주, 송사 등 현실의 구체적인 재액과 고통에 대한 구제의 원이 담겨져 있다.

문수와 보현의 상호는 거의 좌우 대칭이며, 머리카락은 길고 매끄럽고 어깨에서 손목까지 여러 매듭을 볼 수 있다.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번(幡)을 들고 있다. 화개 상공을 둘러싸고 춤을 추는 작은 비천들이 구름을 타고 위에서 날아와 중앙으로 향하는 듯하다. 여기서 번은 〈약사경〉에서 중생이 재액을 막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재식의 주요 도구로 등장한다. 즉 병자를 위하여 "약사유리광여래께 귀의하고 많은 스님을 청하여 이 경을 독송하며, 등을 밝히고, 목숨을 이어 달라"라고 기원하기 위함이다.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권속들로 둘러싸여 있고, 비천들이 구름을 타고 위로 날아오르고 있다.

하단의 중앙에는 천수천안관음보살이 있다. 화면 하단 왼쪽에는 변신 관음 중 하나인 여의륜관음과 오른쪽에는 불공견삭관음이 있다.

그림 전체를 보면, 모든 사물을 유려(流麗)한 묵선(墨線)으로 묘사하고 거기에 설색(設色)을 하고 있는데, 색채의 처리가 이전의 벽화에서 보이는 것 처럼 투박하거나 중첩되지 않고 엷고 담박한 것이 특징이다. 아직 보살의 복장에서 인도풍을 발견할 수 있으나 회화표현은 완전히 중국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색채는 퇴락했어도 묵선은 여전히 생동감 넘친다.

이처럼 '약사정토변상도'에 그려진 약사여래 신앙은 중생들에 대한 자비를 근간으로 대승불교 사상에 입장에서 빈곤과 질병, 번민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생산됐다. 고통이 결코 수용 혹은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이 된 것이다. 당대 이후 불교의 밀교화, 세속화로 연결되며, 오늘날 한국의 불교문화에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약사정토변상도'가 발견된 장경동은 막고굴 여러 석굴 중 제17굴을 말한다. 원래는 당나라 후기(만당시대)에 당나라 고승 홍변(洪辯)을 기리기 위해 만든 동굴이다. 그러다 200여 년이 지난 1100년 무렵 돈황 문서라 불릴 3만여 점의 문서를 제17굴에 가득 채워놓고 입구를 막았다.(그림②)

제17굴은 석회로 발라져 있고, 여기 송대(宋代, 960~1276)의 벽화가 그려졌다. 이 안에 유물들은 1038년 서하의 침입으로 인해 넣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돼 폐기된 것이라고 위드휠드(Roderick Whifield)가 주장하였다.

1900년 왕원록(王圓籙)이 새로 도교 사원을 지을 목적으로 대규모 청소를 하던 중 조수 양(楊)씨가 제16굴 벽에서 뭔가 울림소리를 듣고 왕원록에게 알렸다. 이 굴 안에서 약 50,000여 점에 달하는 불경과 관련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한편 장경동 제17굴에서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서방 탐험가들 중 대표적인 1907년에는 영국의 오렐 스타인(Aurel Stein 1862-1943), 1908년에는 프랑스의 폴 펠리오(Paul Pelliot 1878-1945)가 희귀도서를 사들여 중국 및 국외로 유출시켰다. 1911년 오타니(大谷, Otanti) 탐험대는 투르판, 돈황 등지에서 중앙아시아 불화들을 수집했는데, 이 가운데 제17굴 발견 불화는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역설적으로 이 제17굴 발견 유물은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미술사 연구, 불교경전 연구 등 돈황학(敦煌學)의 탄생에 이바지 한 샘이다.

현재 돈황 문서는 영국의 대영박물관, 프랑스의 기메 박물관,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중국국가박물관, 대만국가도서관, 홍콩중문대학 문물관, 대한민국의 국립중앙박물관 등 전 세계 여러 곳으로 펴져 있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우공침술
개·인·교·습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TLS 침법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과 같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 및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신경학, 면역학적인 원리에 의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락이나 경혈들을 애써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뇌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TLS 침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침술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침술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침술을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습니다. 별 의미도 없이 지나치게 형식화된 경혈을 죽어라고 익히고, 그곳에 단순히 침을 찌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침술을 제대로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침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발한 침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딱 6일만 시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TLS 침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3일 동안의 속성과정으로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공침술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저에게 오셔서 교습을 받으시거나 또는 제가 방문하여 교습해 드립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 및 수강신청 : 010-4054-7110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유정길의 불자라면 이렇게 ❻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아니다



▶한줄 요약
잡초나 해충은 인간에게 해로운 식물이나 곤충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 중심의 사고로 박멸할 잡초나 해충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흑백을 나누는 이분법의 논리보다는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의 사고를 가져야 한다.

다양성 인정하면 화엄세계 열린다



잡초 · 해충, 박멸 대상으로 인식
전형적인 인간중심주의 사고방식
흑백 나누는 이분법 논리에 폐해
다름 인정해야 세상 평화로워진다

박멸해야 할 잡초, 해충은 없다

보통 '잡초'란 '이름 없는 풀', '이름을 모르는 풀'이라는 외에 '쓸모없는 풀', '소용없는 풀'이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이들을 '잡초'라고 부른다. 여기서 '쓸데없다, 소용없다'는 말은 '인간'에게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사에 방해가 되는 귀찮은 것이라 생각해 농약이나 제초제를 뿌려 한꺼번에 모두 제거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잡초'에는 항상 '제거'라는 말이 따라 붙는다.

'잡'이라는 접두어는 다양하게 쓰인다. 인간에게 필요 없는 소소한 것은 모두 '잡'이라고 붙인다. 여기서 '잡'의 기준은 누구일까? '사람'이다. 이롭고 해로운 것, 필요하고 불필요한 것의 기준은 '인간'인 것이다. 사람에게 불필요한 것은 악이며 나쁜 것으로 모두 없어져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들에 핀 이름없는 풀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인간에게 존재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판단받아 죽임을 당하는 운명에 처해야하는가? 인간은 누구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인가?

이것만이 아니다. 사람에게 해로운 벌레를 '해충'이라고 하며 이로운 것은 '익충'이라고 한다. 그래서 해충은 '박멸'이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따라붙는다. 익충과 해충을 구분하는 기준도 '인간'이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인간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의 결정과 판단에 의해 생존하거나 절멸 당할 운명에 있는 것이다.

과연 해충은 해충약으로 절멸시켜야 하는 존재인가? 잡초는 제초제로 완전히 제거해야할 존재인가? 모든 식물,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촘촘히 얽혀 서로가 서로는 존재하게 만들며 상호의존하는 연기적 존재이다. 인간의 '이로움'과 '해로움'의 판단 넘어있는 대상들인 것이다. 인간에게는 피해일지 모르지만 생태계 내에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존재들인 것이다.

인간은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종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럼에도 그 인간만이 기준이 돼 모든 생명들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판단하고 지구상에 유일한 주인인양 행세하며 생물을 죽이고 살리는 여탈권을 갖는 존재라는 오만이 바로 지구적 위기를 만든 망념의 시작된다. 이것을 보통 '인간중심적 사고', '인간중심성'이라고 표현하며 "탈생물적 교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잡초란 없다. 모든 풀은 인간의 필요성을 판단, 그 이전의 존재들이다. 어떠한 가치판단을 뛰어넘어 생태계 내에서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는 존재들이다. '해충'이나 '익충'이라는 인간중심적 편견과 관념이 모든 식물과 생물을 함부로 대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멸종하게 만든 근본 인식인 것이다.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다

한 생명을 해충으로 규정하는 순간, 죽여 없애야 한다는 생각, 즉 '박멸'로 연결된다. 그래서 씨를 말려 죽이는 제초제, 해충약, 세균박멸을 위한 약을 개발한다. 어쩌면 서구 의학의 역사는 세균의 박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 생물학에서는 해충이 박멸되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가까운 장래에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당시에는 해로왔을지 모르지만 전체 생태계를 넓게 보면 그것이 새로운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이며 오히려 우리를 생존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말한다. 죽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생명은 박멸한다고 그리 쉽게 박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대부분 제초제나 약으로 물론 대부분 죽지만, 죽지 않으려는 생명의 본능은 기어코 살아 종족을 이어간다. 작은 세균이나 생애주기가 짧은 생명들의 소수는 내성을 확보하며 열악한 상황을 견디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갖도록 진화하여 살아남게 된다. 결국 내성이 생긴 이들 생명은 웬만한 농약이나 제초제로도 죽지 않게 되어 결국 더욱 강한 해충약, 제초제를 사용해야만 효과를 발휘하도록 진화한다.

구분하고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

우리나라의 경우 예전에는 모깃불을 놔서 모기를 쫓았다. 모기약으로 박멸하려는 지금과는 다르다. 또한 귀신도 굿을 해서 '쫓는다'고 표현했다. 원한을 풀어주고 위로하고 천도하고 달래서 나에게 접근하지 않게 쫓는 것이다. 박멸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 그들도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쫓는다"는 것은 내 가까이 오지 않게 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러나 드라큘라와 같은 서양의 귀신은 마늘이나 십자가로 그들을 맥을 못 추게 한 뒤에 가슴에 말뚝을 박아 죽인다. 천사와 악마로 모든 것을 규정하는 서양의 세계관에서 인간을 위협하는 대상은 악마이며 그들을 처리하는 방식은 멸종시키는 방법인 것이다. 그러나 생명세계는 인간중심으로 그렇게 둘로 쉽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구분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국가, 조직, 단체까지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한다. 사람 또한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구분하여 '천사'와 '악마'로 규정한다. 그래서 악마를 처단하고 사탄을 죽여야만 좋은 세계, 행복한 세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좋은 국가들이 힘을 합하여 나쁜 국가를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대표되는 구분하고 나누는 세계관이 사단의 원인이다. 이러한 생각에는 모든 것을 내편과 남의 편으로 구분하고 대결과 경쟁, 전투의 관점으로 이해하게 만들며, 승리와 패배의 관계로 만든다. 교육이든 인간관계이든 조직이든 '이기는' 데만 몰두할 뿐이다. 상대를 제압하여, 결국 자신의 주도권로 승리해야한다는 생각에 집착한다.

그러나 불교는 본래 '좋고 나쁜 것이란 없다'는 가르침이다. 실제 생명은 '좋고 싫음, 이익과 해로움'이라는 인간의 집단적 주관에 의해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나누고 가르며 구분하는 반자연적 행위를 저질러왔고, 그러한 자연인식이 대립과 경쟁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결국 생명을 죽이고 인간과 인간의 경쟁으로 확대됐으며 타인종과 타국에 대한 박멸 전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돼지 · 소에 대한 인간중심적인 생각

보통 '돼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미련하고 더럽다'이다. 소는 아마도 '우직하고 성실하다'는 생각, 여우는 '교활하다'는 이미지, 뱀을 '사악'하며, 늑대는 '음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련하다. 우직하고 성실하다. 교활하다. 사악하다. 음흉하다'고 누가 생각하는 것일까? '인간'이다. 사람들의 집단적 관념, 편견이다. 그들은 더럽고 미련하게 "사람에게만 보일뿐"이다. 소의 실제 성격은 우리의 판단과 선입견 저 너머에 있다. 그처럼 실제가 아닌 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착각하여 동물과 식물, 곤충과 벌레에 대해 '좋다, 싫다'라는 분별을 갖는다. 이로운 동물, 해로운 동물, 더러운 동물, 징그러운 동물로 분별해 이들 생명들을 몰살시켜 멸종과 종다양성을 파괴하게 만들었다.

곤충과 지네는 다리가 많아서, 뱀은 다리가 없어서 징그러워하고 혐오한다. 혐오하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대상을 없애고 싶어 그 두려움의 크기만큼 잔혹하게 죽게 한다. 그들이 독이 있어 인간을 해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그들은 '조심해야 할 동물'이지 '나쁜 동물'이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일수 없다. 그들이 독을 품고 있는 것은 인간을 일부러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이 지구상의 주인이라는 우월적 생각이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다. 현재 지구의 허파이자 산소를 생산하는 공장인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면서 이산화탄소는 더욱 증가하게 하여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 아마존의 그 엄청난 벌채로 인해 그곳에 살고 있는 수천만종의 식물과 곤충, 동물들이 하루에도 수십종씩 멸종되고 있다. 이들은 아직 사람에게 발견되거나 학술적으로 등제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이들 생명들은 수십억 년 간 이뤄진 생명 진화의 마지막 산물이다. 그것이 인간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도 되기 전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흑백의 세계서 컬러의 세계로

결국 '좋은 것', '나쁜 것', '천사와 악마', '선과 악' 등의 이분법적 가치들이 자연과 생명을 파괴했고, 인간사회도 가르나 나눠 경쟁하고 대립하고 죽고 죽이는 관계를 만들었다. 모두 인간의 어리석음이 바로 그 원인인 것이다. 이러한 가치는 산업사회의 경쟁과 발전을 추동했지만, 인간과 인간의 갈등과 전쟁, 자연의 파괴와 생명의 살상을 통해 위기를 초래한 원인인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살생의 의미는 인간과 동물을 자기중심으로 비하하고 구분하고 살육하며 분별하는 대상이 아니며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돼야할 존재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분법의 사회에서는 나와 같지 않은 모두를 적으로 규정하고, '나와 같아지는 것 평화'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같아지게 만들려고 싸운다.

어리석음의 눈으로 본 세계는 흑과 백의 이분법의 사회이지만 지혜의 눈으로 실제의 세계는 무지개 빛으로 빛나는 다양성의 사회이다. 실제 100%의 흑과 100%의 백은 존재할까? 사람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60:40 또는 30:70 등 다양하게 시시각각 바뀌며 존재하지 않을까? 모든 세계(사람)는 회색이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 더욱 분명한 실제는 다양한 컬러의 세계이다.

다양성의 사회에서 나와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오히려 다른 것은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갈등과 대립은 나와 같아져야 한다는 욕망 때문이다. 나와 같아질 필요 없이 '다름'은 다양하고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다양한 창조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화엄'이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밭의 풍요로운 세계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화장세계인 것이다. 그런 깨우침만이 이 위기의 지구를 살릴 수 있다.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소장〉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스틸 고건축의 장점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상담문의 010-5023-5050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여래장 안에서는 번뇌의 역할 없어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㉓ 번뇌의 장애를 떠나지 않은 여래장

"이처럼 네 가지 지음이 없는 거룩한 진리의 뜻은 오직 여래 · 응 · 등정각만이 일이 끝나는 것이고, 아라한 · 벽지불은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그러냐 하면, 하 · 중 · 상의 법으로는 열반을 얻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것은 여래 · 응 · 등정각께서는 지음이 없는 네 가지 진리의 뜻에서 일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여래 · 응 · 등정각은 미래의 온갖 고(苦)를 알고, 온갖 번뇌와 상번뇌가 거둬들인 일체의 집(集)을 끊고, 일체 의생신(意生身)을 멸하고, 일체의 고통이 멸한 경지를 깨달아 얻은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여, 법을 파괴함으로 해서 고가 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시작이 없고 지음이 없고 일어남이 없고 다함이 없다는 것이니, 다함을 여의고 항상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제 성품이 깨끗하여 일체 번뇌의 장애(煩惱藏)를 여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여의지도 않고 해탈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는, 항하의 모래알보다 많은 불법(佛法)을 성취한 것을 여래의 법신이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래의 법신은 번뇌의 장애를 떠나지 않은 여래장(如來藏)이라고 합니다."

법신이 번뇌를 떠나지 못하고 더불어 있는 상태가 여래장이다. 따라서 여래장이란 말은 번뇌에 덮여 있는 중생이 본래의 불성은 그대로 갖고 있음으로 여래를 내장해 있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법신을 성취하면 이 여래장이 법신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다 중생이다 할 것이 없이 모든 장애를 벗어나므로 여기에서는 해탈이라 할 것도 없는 불가사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음이 없는 네 가지 거룩한 진리(無作四聖諦)를 증득한 부처님의 경계가 이승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다.

중생이 비록 번뇌를 가지고 있지만 여래장(如來藏)은 본래 번뇌의 창고(煩惱藏)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생을 번뇌의 존재로 보지만 번뇌는 본래 공하여 여래장 안에서는 번뇌의 역할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래장을 공(空)의 뜻으로 보아 공여래장(空如來藏)이라 한다. 물론 여래장이 한량없고 불가사의한 불법을 갖추고 있다는 면에서는 불공여래장(不空如來藏)이라고 한다.

보통, 번뇌를 극복하는 것을 수행이라 한다. 수행에는 번뇌의 장애가 있다. 몸과 마음을 교란시키는 것이 번뇌다. 이 번뇌로 말미암아 선정에 들어가지 못하며 본래의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한다. 이 번뇌가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을 만들어 '나'에 집착하는 것이 아집이다. 변계소집성이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말한다. 길가에 떨어진 새끼토막을 뱀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다. 번뇌장이 끊어질 때 아집(我執)이 없어진다고 한다. 또 하나의 장애로 소지장(所知障) 있는데 이는 아는 것이 장애가 된다는 뜻이다. 올바른 견해가 아닌 알음알이로 분별을 일삼아 정견(正見)을 가지지 못하고 결국 무지의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다. 소지장 때문에 법집(法執)을 일으킨다고 한다. 따라서 소지장을 끊으면 법집이 없어진다.

또 〈원각경〉에서는 두 가지 장애를 이장(理障), 사장(事障)이라 하였다. 이장(理障)이란 〈승만경〉에서 말하는 번뇌의 장애처럼 바른 앎(正知)과 바른 견해(正見)을 막아 본각진여를 보는 것을 장애하기 때문에 이장이라 하였다. 사장(事障)은 탐(貪), 진(瞋), 치(痴), 만(慢), 의(疑) 등의 번뇌 때문에 생사의 세계에 끊임없이 윤회하여 열반에 이르는 것을 장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번뇌의 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승만경〉의 이 대목에서는 여래장은 번뇌의 장애를 떠나지 않는다 하여 번뇌 속에서도 여래장은 여래장일 뿐이며 이것이 여래의 법신이라 하였다. 번뇌의 장애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번뇌가 있어도 여래장 자체가 오염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마치 금이 불순물과 섞인 광석 속에 있어도 순금의 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여래장 사상의 핵심 이야기는 여래장이 중생이 생사에 윤회하는 원인이 되지만 동시에 열반의 원인이 되므로 중생의 가치를 열반 쪽에서 보는 관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불보살님에 대한 깊은 신심부터…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㊻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1. 염불 수행의 종류

불자 여러분! 염불수행은 칭념염불(稱念念佛), 관상염불(觀想念佛), 법신염불(法身念佛), 실상염불(實相念佛)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칭명염불(稱名念佛)〉

부처님의 명호를 마음과 입으로 염하는 칭명염불(稱名念佛) 수행은 입으로 하는 구칭염불(口稱念佛)과 마음속으로 하는 묵념염불(默念念佛)이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구칭염불(口稱念佛)은 입으로 큰소리를 내어 우렁찬 목소리로 하는 '고성염불'과 작은 목소리로 하는 '저음염불'이 있습니다.

'고성염불(高聲念佛)'은 큰 목소리를 내어 우렁찬 목소리로 하는데 이때 소리가 단전으로부터 품어져 올라오는 힘으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는 염불입니다. 이와 같은 고성염불을 하게 되면 10가지의 공덕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첫째, 잠을 쫓는 공덕이 생기고, 둘째, 천마(天魔)가 두려워하고, 셋째, 염불하는 소리가 시방에 두루 퍼지는 공덕이 생겨나고. 넷째 삼악도 즉 지옥, 아귀 축생의 고통이 멈추는 공덕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다섯째, 염불할 때 염불 외에 잡음은 들려오지 않으며, 여섯째, 염불하는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되고, 일곱째, 용맹정진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덟째, 모든 부처님이 기뻐하시며, 아홉째, 삼매가 현전하며, 열째, 서방정토에 왕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염불을 고성으로 하게 되면 공덕이 생겨나므로 큰 소리로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비해 '저음염불'은 크지도 작지도 않는 중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하는 염불입니다. 그렇지만 염불하는 목소리는 또렷해야 하고, 그 소리를 자신의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에 잡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때의 저음염불 역시 단전에서 올라오는 힘 있는 목소리로 작게 염불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는 '묵념염불(默念念佛)'에는 입술만 움직이며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거의 소리가 없을 정도로 남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하는 '금강염불'과 입술조차도 움직이지 않고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만 하는 염불이 있습니다. 소리 없이 마음속으로만 하는 염불은 몸이 아플 때나 목욕할 때 그리고 식사 중이거나 화장실에서 용무를 볼 때 등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염불입니다.

〈염불 할 때의 마음가짐과 주의사항〉

불자 여러분! 염불수행을 할 때는 마음가짐을 단단히 정리하고 먼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깊은 신심(信心)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을 세우고 발보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세 번째 계를 범하지 않고 지키려는 마음을 갖고 염불수행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정심(定心)으로 염불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염불수행을 할 때 주의사항은 첫째, 먼저 염불하는 장소에 따라 소리를 달리해야 합니다. 둘째, 부처님을 염할 때는 그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해야 합니다. 셋째, 목탁이나 요령, 그리고 북을 치며 염불할 때는 그 소리의 박자에 잘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넷째, 염불할 때는 몸가짐을 청결히 하고 의관을 잘 갖추어야 하고 마음가짐 역시 잘 갖추어야 합니다. 다섯째, 염불할 때는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해야 합니다. 여섯째, 번뇌 망상이 일어나 마음이 혼탁하더라도 멈추지 말고 의지로 물리치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염불수행을 해나가야 합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㉓ 뱀에 대한 비유의 경 ④

오온이 일으킨 생각에 속지 말아야

"진실 없이 공허하고 허망하게 거짓으로 중상하여 '수행자 고따마는 허무주의자이다. 살아있는 뭇 삶에게 단멸과 파멸과 허무를 가르친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행자나 성직자들이 진실 없이 공허하고 허망하게 거짓으로 중상하여 '수행자 고따마는 허무주의자다. 살아있는 뭇 삶에게 단멸과 파멸과 허무를 가르친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와 같이 설하는 자, 그와 같이 말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 가르친다."

'실체가 아닌 것을 실체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뭇 삶들은 바른 가르침을 허무주의라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허무주의의 기준은 오온 자체에 있다.

털 끝 만큼의 의심도 없이 오온이 주인이다 보니 오온을 나로 삼아, 오온의 존재성을 부정하면 허무주의라고 비난한다. 정작 자신이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실체가 아닌 것을 실체인 것으로 삼는 것이 완전한 허무주의에 빠진 것인데, 자신으로 삼는 그 의식이 전도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아는 것이 어렵다. 지식이 얼마나 전도되어 있는지를 참구하여 밝히려 하지 않고, 그들은 세상과 물질의 영원성과 옳음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에 대한 진실성이 실재한다고 생각한다. 전승된 지식을 진실처럼 믿는다. 그 믿음의 출발에 오류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데, 의심하지 않으니 바르게 성찰하지 못하는 것이다. 진실은 나타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가질 수도 없다. 이것이 첫 출발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나타나는 것에서 찾고, 볼 수 있는 것에서 찾고, 가질 수 있는 것에서 찾는다면, 영원히 진실을 모르게 된다. 진실을 알고 찾는다고 말하겠지만, 정작 오온의 잔꾀에 속는 것일 뿐이다.

오온은 생각을 일으켜 앞으로만 달려가게 하고 뒤를 돌아보지 못하게 한다. '뒤'라는 곳은 내가 걸어온 곳이고, 이미 아는 것이라 볼 필요가 없다고 부추긴다. 뒤를 돌아보기만 하면 그곳은 암흑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는데 말이다.

오온은 알 길 없는 '앞'만을 보며 하염없이 걷게 만들고, 회광반조(回光返照)의 사유를 하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고통과 즐거움을 일어나게 한다. 그칠 줄 모르는 즐거움과 괴로움의 반복은 생명에게 고통이라는 벽을 만들어 그것을 뛰어넘는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성취감에 빠져버리면 '실체가 아닌 것을 실체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말의 뜻을 알기가 참으로 어려워진다.

'처음'은 완전함, 그 자체였다. 다시 완전하다는 것, 존재하지 못하는 줄 알아 찾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즉(卽)하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이 다 드러나 버린다. 그러면 '괴로움이 없다'는 앎이 생기고, '괴로움의 소멸도 없음'을 알게 되어 '괴로움의 소멸'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몸의 변화나 마음의 조작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처음의 완전함을 보지 못하고 헤매게 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반야심경〉의 '색불이공(色不異空) 공불이색(空不異色)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란 구절도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고 직역해버리면 아무리 읽어봐야 소용이 없다. 뜻을 풀어서 '모든 모양 완전함을 벗어난 적 없고, 완전함은 모든 모양을 떠나 나타난 적 없으며, 모든 모양 그대로가 완전함이고, 완전함 그대로가 모든 모양이네.'라고 새겨야 한다. '모양은 실체가 아니고, 실체가 아니므로 완전함을 갖는 것이다.'라고 바로 알아야 한다.

물질은 나의 것 아니고 나의 마음 아닌데
물질을 나의 것이라 하고 나의 마음이라 하여 괴로움이 생겨나네
물질은 나의 것 아니고 나의 마음 아니라 하면
물질로 생기는 괴로움 없으니 벗어나려는 마음 소멸하네

〈(사)여시아문 선원장〉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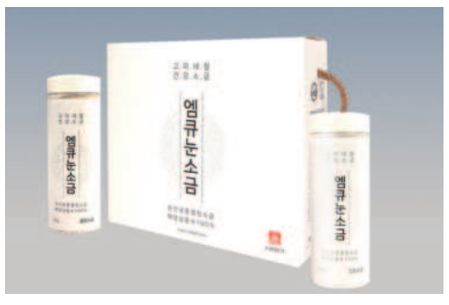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92호 | 17 | 전면광고

겸허하게 지내고 스스로를 낮추며 만족을
알고 은혜를 생각하며 때때로 법을 듣는 것,
이것이 최상의 좋은 일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 합장 010-3586-6091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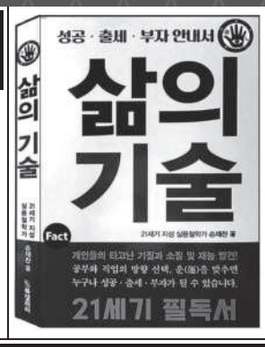
입종 동참 안내

불교정신문화원, 불교수련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상표등록 1424679호>
포인트 위주로 가장 쉽게 아수해 드립니다.
- 현재 궁금한 점과 그 대안책(타고난 인생·병·영가 일년 신수 등 '왜?' 그러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과거·현재·미래의 사주와 미래에 대한 대안책 제시
- 대상 : 스님, 철학인, 법사님 등(속성반 7강 진행)
- 출장 및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단, 경상북도 이남 지역은 포항에서 직접 지도 및 안내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9 가야선원
문의처 010-2901-8923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347-5950

신심있는 공양주 모십니다.
울산 남구
010-4773-0849

71살입니다.
스님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무보시로 부전도 가능합니다.
부산 정명스님, 자운화 보살님 연락주십시오.
010-3065-1147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경남 거창
010-6223-7755

무보시 기도하며 같이 지낼 75세 이상 노스님 모십니다.
개인방, 숙식제공
부산시내 작은절 대원정사
051-529-2100
010-9010-5400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4766-32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대구사무실 서울잠실사무실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특수한 기도법

스님께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영남 범음·범패 교육도량

– 49재 · 천도의식 · 바라작법등 –
※교육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 (3시간)
팔공산 구화사 아카데미 교육원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응추리 532번지
문의 010-9421-9364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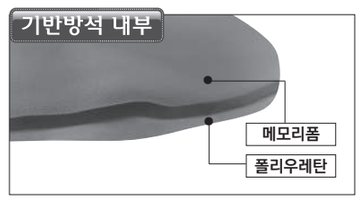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92호 | 18 | 전면광고

어떤 사람이 게으르다가도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 잡으면 구름 걷혀 나타나는 달과 같이
세간을 밝게 비추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40억5천

◎ 위치 : 부산시포교원
◎ 입지좋은근린상가
◎ 건평 : 약100평
◎ 주차,공원,아파트
◎ 매가 : 12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경남 의령 사찰 매매입니다.
- 부지 총면적 : 1,361㎡(411평)
- 건물 총면적 : 91.88㎡(27평)
- 가액 : 2억3천만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2천5백(노스님 몸아픈 관계로)
- 가전제품 보시 ●당일법회 가능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체인점 상가주택

- 충남 아산 핵심요지 대도로 코너 체인점 임대, 상가포함공실無
- 대지 263㎡(80평), 건평 472㎡(143평)
- 융자 3억8천 승계, 인수금 2억8천
- 년 순수익 3천3백만원 태종공인중개사 유승열

010-8348-2858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603번지) ●대지 : 700평 (실사용 천평) ●건물 : 법당, 산신각, 칠성각, 용왕당 ●요사채 : 황토방 2동, 슬라브 2동, 해우소 1동(문 5개)
- 모든 건물은 무건물입니다. ●유실수 다량 감, 자두, 호두, 매실, 두릅, 오디, 머위, 산에는 약초, 송이버섯 ●도로 포장, 차량진입, 주차장(10대), 주변에 개발지역 ●가액 5억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금곡면
- 대지 : 402평, 법당 : 30평 산신당 : 5평, 요사 : 방 5개 화장실 : 2개(외부1/내부1) 주차공간 많음
- 가액 : 2억 7천 (땅값만 받습니다)

010-7661-406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

010-5421-1536

포 교 원 안 내

-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 상가2층 단독 60평
- 삼존불, 탱화, 인등, 사무실, 공양간, 스님방, 화장실3개
- 주차공간 좋음
- 가액 1억2천만원

010-2857-2811
010-7457-281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전시 신탄진 톨케이트 인접
- 대지 : 53.5평
  1층 : 요사채 25평
  2층 : 법당 22평
- 주차공간 매우좋음
- 가액 : 3억 3천

010-9058-6163

도심속 예쁜 사찰

- 위치 : 인천광역시 신석로 111번길 3-1
- 건물 : 2층 법당 30평, 1층 요사채 30평, 지하 20평
- 가액 5억(절충)

010-9286-1008

기도 도량 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체, 공양간
- 가액 : 급매(협의가능)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용주면 봉기리
- 대지 : 300평(종교부지) 농지 : 114평(논)
- 목조법당 : 25평 요 사 채 : 20평
- 가액 : 4억원

010-4835-173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작고 아담한 사찰
- 건평 : 약 50평
- 건물 3동, 대웅전, 방3개, 스님큰방, 용왕당, 산신당
- 스님 몸이 건강 안좋음
- 가액 : 7천 5백(조정가능)

주지 010-7506-8604

법 당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해맞이로117-1(황종사)
- (3층)토굴 몸만 오시면 됨!
- 역세권 지역에 약 25평
- 일체양도 2백만원 전세금 無, 월세 30만원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1019번지
- 대지 : 403평
- 건물 : 약30평
- 전세 : 2천만원

010-6434-98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대창면 한들길87-5
- 대지 : 200평, 구건물 2동
- 임법당 20평, 방 3개
- 가액 : 9천5백만원

010-7795-9856

사찰안내 가람

- 마산 창원 사찰 매매입니다.
- 부지 총면적 : 대지 2,231㎡(674평)
- 건물 총면적 : 279.12㎡(84평)
- 가액 : 40억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314쪽 | 12,6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돌공사 전문 (石)

공/사/개/요

석·굴법당

축대 및 보수공사(石)

까다로운 돌길 공사

석·식자재보관실·저장실

전화 042-624-4038
042-624-4039
H P 010-5123-4038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242-22, 103호

동진건설 천성건설 합병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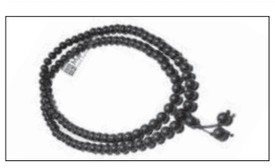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⑪ 성인병 예방과 다이어트

차의 풍부한 천연미네랄로 몸 회복

세상은 넘치는 고당 고단백 음식으로 풍요롭다 못해 병이 들어가고 있다. 제약회사의 광고를 보면 미래에는 우리가 의료보험카드와 신분증을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유전자정보가 담겨진 신분증을 갖고 다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제는 단지 기다릴 뿐이지 누구도 그 확신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이는 없게 될 것이다. 이 생체 정보카드를 의사나 약사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나쁜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는 약과 비타민제를 처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생체 정보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세상이란 다 욕심과 욕망의 강자가 지닌 권력 앞에서는 누구도 세상의 변화의 고통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미래의 의학과 생명공학연구과학자들의 한 생각에 의해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엄청난 대재앙을 또 다시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좀 더 냉철해져야한다. 그렇게 생체 정보가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의사와 백신과 영양제가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기억해야 한다.

바르게 먹고 바른 음료를 마시는 것은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마음의 평온과 정신의 안정감을 통해 삶의 집중력을 높여준다. 세계적인 기량을 자랑하는 운동선수들은 저지방 식물성 식이섬유 식이요법을 통해 정신과 신체운동 능력을 크게 배양했다. 한 연구 실험실에서는 쥐들을 상대로 섭생법 연구를 하였다. 미국인들이 즐겨먹는 음식인 단백질을 풍부하게 먹인 쥐와 식물성 위주의 섭생을 한 쥐를 상대로 운동을 시켰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고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다. 동물성 단백질을 조금만 먹고 채식 위주로 먹은 쥐들이 다른 쥐들보다 훨씬 운동을 많이 하면서도 지치지도 않고 호흡도 달리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이런 연구는 의료계 안에서도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100년 전에 미국의 예일 의과대학의 유명한 영양학자 러셀 치텐든(Russell Chittenden 교수가 식물성 음식이 학생들의 신체적인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채식을 하도록 한 다음 신체의 운동 능력을 측정했다. 그가 얻은 결과는 100년 후 우리가 실험실에서 쥐를 통해 얻은 결과와 놀랍도록 똑같았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식습관으로 인한 수많은 병들을 약품과 수술에만 의존하는 현실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 간단하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식생활을 하면서 음식으로 보충하지 못한 수분과 혈액순환과 저체온의 문제들을 고농축으로 앰플화된 약차에 따뜻한 물을 부어 수시로 음용한다면 차의 풍부한 천연미네랄성분을 통해 우리 몸은 곧 회복하게 될 것이다. 저는 마음정원에서 수많은 분들에게 각자 체질별에 맞는 약차를 찾아 권하고 음용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왜냐하면 옛날의 차문화는 '다도'라는 격식 그전의 차문화는 탕의 문화이기 때문에 끓여서 마시기만 하는 오차의 개념이었다면 내가 수십 년 동안 식물을 연구하고 차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시대의 문제를 한방의 어의 전순의 어의선생님, 허준 선생님, 이제마 선생님 그리고 초의선사 범해 각안선사의 차의 집대성을 통해 시대에 맞는 한국의 약차법제기술의 우수성과 시대와 환경에 맞는 차(茶) 문화를 세계 중심의 한국 차로 세우고 싶은 것이 나의 목표이다.

일반적으로 차를 마신다고 하면 커피나 녹차 등 몇 가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방차는 탕이며 끓이고 달인다는 생각한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따뜻한 물만 넣고 우려마시는 한방차가 완성되었다. 우리 곁에서 늘 계절에 따라 자라는 이름모를 풀과 꽃, 나무들은 알고 보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DNA를 더욱 건강하게 변화 시켜준다. 그리고 우리가 독에 채여 있을 때 살을 빼고 싶을 때 차로써 다이어트를 고생하지 않고 가볍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된다.



바른 음식과 음료로 질병 예방
따뜻한 물로 고농축 약차 마셔

우리나라의 좋은 성분의 산야초를 차로 법제하여 마시기만 하면 각 개인의 실증과 허증의 증상들이 완화되는 한방 약차들이 있다. 지금 현대의 질환 중 가장 걱정이 신장투석 환자이며 간기능이 약해서 해독이 잘 되지 않는 콜레스테롤로 고생하는 혈압 관상동맥 뇌질환 환자들에게도 좋은 한방 약차가 있다. 순환이 되지 않아 몸이 차가운 여성들의 경우 따뜻한 비트나 생강 대추 등을 차로 만들어 수시로 마셔도 체온이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은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계피와 당귀를 이용한 한방차도 변비에 도움이 된다. 식욕이 없는 분들을 위한 위와 소화를 돕는 오미자와 맥문동 오미자차도 참 좋은 한방차이다. 신이화 산목련과 방풍과 같은 차들은 비염에 매우 좋은 차이다. 행인과 같은 살구씨 개복숭아, 돌배차는 기침에 좋은 차이다. 신장의 붓기를 빼주는 차는 호박과 팥으로 만든 차이다. 간기능을 돕는 구기자차는 조혈작용으로 피를 만들어 준다. 단 모든 차는 설탕을 허용하지 않는다.

〈체질별약차 전문점 마음정원 대표〉



박주용의
소금&건강
⑪ 가족력

가족력, 비슷한 식생활 습관이 원인

아픈 사람이 있는 집안에는 유사한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가족력이라고 한다. 부모님이 암으로 고생하면 자녀들도 걱정한다. 부모님이 고혈압에 시달리면 나도 혹 고혈압은 아닐까 하고 걱정한다.

인류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유전적 섞임과 선택을 당했다. 우수하지 않은 약한 유전자는 소멸의 길을 걸었다.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질병에 약한 유전자가 아니라 대부분 건강한 유전자라고 할 수 있다. 수천 수백만 면의 유전자의 선택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은 먹거리도 풍요롭고, 생존환경도 그 어느 때보다도 좋다. 그러기에 잘 먹고 잘 살면 유전적으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낮다.

물론 특정 유전자에 의해 발생하는 유전병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가족력이라는 이름으로 발생하는 생활습관병은 대부분 유전병과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왜 가족 중에 질병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러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일까?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가족은 같은 음식을 먹는다. 같은 환경에서 자란다. 식습관도 같다. 이런 것이 가족력 가족질환을 만들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유전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
미네랄 함유 확인해 섭취 습관

예를 들면, 국을 안 먹는 엄마를 닮은 딸, 술과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배운 아들, 아빠가 피우는 담배를 같이 냄새 맡으며 살았던 가족, 집밥 보다는 외식에 길들여진 식습관, 배달음식에 집착하는 야식습관, 특정 음식에 집착하거나 멀리하는 편식, 과식하는 습관, 불규칙한 식사시간, 급하게 먹는 식사, 반찬 한두 가지만 맛있다고 먹는 습관,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 이런 것이 쌓여서 가족력을 만든다.

식습관이 같으니 같은 성분의 영양과잉 혹은 미네랄 결핍이 일어나고, 같은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생활습관이 같으니 같은 생활습관병에 걸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가족력의 진실은 이러한 것이다. 식습관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부모님 탓, 조상 탓만 해서는 병이 낫질 않는다.

가족력은 바꾸어 말하면 식습관이다. 어떤 물을 마시는지, 어떤 소금을 먹는지, 어떤 장, 간장, 고추장, 김치를 먹는지,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지, 커피, 탄산음료, 차, 간식 등의 습관은 어떤지, 어떤 시간에 식사하는지 식사습관은 어떤지, 생활습관은 어떤지 그것을 살피고 따져 보아야 한다.

가족력에서 벗어나려면 식습관, 생활습관을 바꾸어야 한다. 대표적인 가족력이라는 이름을 갖는 질환은 고혈압, 성인 당뇨병, 심장병, 고지혈증, 뇌졸중, 비만, 암 등이다. 이들 질병이 유전질환일까? 세균 질환일까? 아니면 생활습관에서 오는 질환일까? 답은 분명하다. 가족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생활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방법뿐이다. 생활습관은 먹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생각하는 습관으로 나누어진다. 먹는 습관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어디서, 어떤 시간에 먹는가에 의해 결정이 된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어디서 어떤 시간에 먹고 있는가를 생각해서 바로잡아나가야 한다. 그 속에 답이 있다. 무엇을 먹는가, 어떻게 요리해서 어떻게 먹는가, 얼마나 먹는가, 어디서 먹는가, 어떤 시간에 먹는가를 생각해서 바로잡아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음식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특히 미네랄은 골고루 들어있는지를 살펴보고 골고루 섭취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한다.

행동하는 습관은 생활하는 습관, 일하는 습관, 움직이는 습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 자세와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 역시 생활습관병과 직결이 된다. 요즈음 허리통증 등 각종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 역시 행동습관이 문제가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끝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바로잡아가야 한다. 최근 들어 급증하는 우울증 등이 대표적이다. 생각하는 습관을 바로잡아 가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을 스스로 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생각의 습관 또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유전자를 탓하기 전에 자기 삶의 습관을 돌아보자. 먹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생각의 습관을 나는 바르게 해나가고 있는가를 나에게 물어보자.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몸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해온 습관 역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내 습관은 나는 물론 나의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나는 지금 부정적인 가족력을 만들고 있는가? 긍정적인 가족력을 만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들 먹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생각의 습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첫걸음은 먹는 습관부터 바꾸어 나가야 한다. 나는 미네랄을 올바로 섭취하는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있는가?

〈(주)오씨아드 이사〉

人生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답이 法華經에 있다!
NAVER 법화경전문강설 검색 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崔光永研究室

마음책 다시 읽기 분노를 다스리는 붓다의 가르침 ❷ 세상을 보는 다른 눈, 용서

▶ 한줄 요약
자신에서 솔직하라. 강요된 용서는 분노보다 심리적으로 더 큰 손상을 가한다.

힘들고 복잡한 영적 수행 '용서'

나를 해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내게 피해를 주거나 내 가족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나 일부러 폭력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 나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어떤 경우라도 용서가 반드시 필요한가? 용서는 우리가 행하려고 애쓰지만 거의 매번 부족하거나 불만을 남기거나 과거사로 그냥 놔둘 수 없는 절대적인 영적 행위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간단명료한 대답은 없다. 감상적으로 용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용서는 종종 힘들고 복잡한 영적 수행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쓰디쓴 알약을 삼키듯 강렬하고 자기 파괴적인 마음 상태를 초월할 것을 요구한다. 게다가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의무적인 뜻으로 사용해서 강제적이고 까다로운 행위로 묘사한다. 예컨대 용서하기 전에는 우리가 결코 치유되지 않을 거라는 말도 듣는다. 우리는 용서가 부정적 감정들, 특히 절망과 분노를 표현하고 배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애통의 과정임을 잊고 있다. 그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회피하려고 애써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진실하지 않거나 강요되거나 때 이른 용서는 진정한 비통과 분노보다 심리적으로 더 큰 손상을 가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용서 Forgiveness: A Time to Love and a Time to Hate〉를 제작한 헬렌 휘트니 Helen Whitney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용서가 마치 단 한 종류인 것처럼 말한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용서하는 방법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의 수만큼이나 많다. 우리 문화는 용서를 단일하고 보편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용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유형의 치유가 그렇듯이 용서도 그 나름의 시간표를 갖고 있으므로 용서를 재촉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내려놔!' 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에게 '용서해!' 라고 강요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그 상황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과 분노를 스스로 정직하게 인정한 후에야 용서를 미루고 싶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용서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이타적 행위라는 생각을 단념한다면 우리는 연민이 자기 연민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잊고 만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으려면 먼저 자신의 상처부터 돌봐야 한다는 것을 잊는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이타심과 혼동하며 자신은 어째서 용서를 행할 수 없을 것 같은지 의아해한다. 선의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것'을 행하려고 시도한다. 이때 그 용서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시키면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이들이 많다.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 때 손을 내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로운 행위이다. 용서를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용서가 단일하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헬렌 휘트니의 말뜻을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각각 그 나름의 효과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자신의 동기가 완벽하게 순수해지고 감정의 잔재가 과거의 것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조금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용서를 생존 도구이자 영적 행위로 간주한다면 용서에 필요한 우리의 자격과 자기 기대는 현실적인 규모로 크게 줄어든다.

일부 그릇된 행위는 그 결과가 치명적이어서 용서에 대한 그 어떤 편리한 관점에서도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말이 적의 그 악행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한 홀로코스트 생존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거예요. 하지만 내 아이들에게는 증오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 종류의 트라우마에서 살아남은 후 자녀에게 증오 대신 사랑을 가르친 행위는 인간의 타고난 선함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그런 '구분된 용서(compartmentalized forgiveness)'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진짜 감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적이 끼친 해악을 실제로 극복한다.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어느 9·11테러 생존자가 보인 반응은 그 구분된 용서에 대해 알려 준다.

용서 종류는 여러 가지
인내와 희생, 연민 섞여
분노와 증오 여의는 힘

저널리스트 앤드류 설리번(Andrew Sullivan)의 블로그에 인용된 그의 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행기가 충돌했을 때 나는 세계무역센터 1타워의 62층에 있었다. 그리고 내가 세계무역센터 5동에 위치한 경찰 지휘본부에 있을 때 2타워 건물이 무너졌다. 나는 가톨릭 신자이다. 일요일 밤에 뉴욕 메츠와 필라델피아 필리스 야구 경기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다.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소식을 대통령이 '발표'하고 있었다. 그것을 지켜보는 내 감정은 지극히 단순했다. 그 자식은 내 친구들, 동료들, 뉴요커들, 미국인들, 나와 같은 인간들을 죽였다. 악랄하게도 그는 수천 명을 자극해서 맹목적인 니힐리즘(nihilism, 허무주의)을 신조로 삼도록 만들었다. 표면적으로는 '자비로운자, 너그러운 자' 알라의 이름으로 그 짓을 저질렀다. 그가 이 세상에 끼친 그 모든 고통을 아직 다 산출하지 못했으며, 아마 우리 생애에는 다 산출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일요일 밤에 나는 소파에 앉아 큰 컵에 위스키를 따르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사내의 죽음에 축배를 들었다.

그러고는 2층으로 올라가서 잠든 세 아이를 살펴보았다. 맏이는 2002년에 태어났다. 나는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고 나서 아내 옆에 앉았다. 내일이면 나와 결혼한 지 꼭 십 년이 되는 아름다운 아내는 지금 넷째 아이를 임신 중이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아내는 결혼한 지 5개월 된 남편이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깔려 죽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내의 배 위에 손을 올려놓고 눈을 감고 기도했다. '오사마 빈 라덴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알게 되기를'

내 지인들 중에도 살면서 폭력을 접한 적이 있는 이가 수없이 많다. 한 친구는 조카가 살해되었고 다른 친구는 조카딸이 살해되었다. 딸이 살해된 친구도 있다. 폭력적인 관계에서 탈출했거나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수십 명에 달한다. 끔찍한 성적 학대나 육체적 학대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나는 그들을 통해 적을 대할 때 우리가 닫힌 마음과 편협한 정신을 지닌 복수의 주체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몰락을 위해 여생을 바칠 이유가 없다. 복수에 집착하는 대신에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여성과 노인을 위해, 취약한 모든 사람을 위해 변화를 촉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 주었다.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범죄자를 괴롭힐 방법을 궁리하는 대신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바닥까지 절망한 이 다른 사람을 사납게 공격하는 이들을 옹호하려고 애쓴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문제의 일부로 남아서 정의의 이름으로 폭력을 영속시키고 개인적 원한과 응징에 대한 유혹에 충동적으로 따르게 된다고 이 행동가들은 말한다.

보복 행위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이유가 없다. 그 강렬한 복수욕과 분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연민의 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 강한 연민은 새로운 삶과 열린 마음과 치유와 사랑을 향해 우리의 등을 떠민다. 이렇게 하여 적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영적 스승이 되는 것이다.

살다 보면 분노를 결코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참으로 많다. 누군가는 우리를 자극하거나 공격하고, 우리는 이 거친 세상에서 두려움에 갇혀 무력해지는 것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이 분노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폭발시킨다. 때로는 그 과열된 행동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즉시 얻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기분은 별로 좋지 않다. 우리는 그 지나치게 격렬한 대응이 언젠가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임을 안다. 우리는 녹초가 된다.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놓치고 만다. 우리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적들로 자신의 세계를 채워 나간다. 습관적인 분노의 부정적 결과와 부작용을 여러 번 체험하면서 점차 성숙해짐에 따라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꾼다. 그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어떻게든 자제하자고 결심한다. 통제할 수 없는 내적 충동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그 강렬한 힘을 정말로 지배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리고 그 힘에 지배되지 말자고 다짐한다. 이제 우리는 내부의 적을 직시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내부의 적은 정말로 많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없이 많은 강렬한 힘이 숨어 있다. 편집증적 욕망, 타오르는 분노, 고질적인 질투, 지나친 경쟁심, 어리석은 자만, 완고한 망상, 독선적인 확신 등이 그것이다. 이 힘들은 중독성이 있다. 내부에서 우리를 제멋대로 조종하면서 우리의 활기를 높여 주고 우리 존재를 확장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이어 우리를 낙담케 하고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뿐이다. 불교에서는 그 힘들을 '번뇌'라고 부른다. 산스크리트로 클레샤(klesa), 빨리어로 키레사(kilesa)에 해당하는 번뇌의 어원은 동사 클리시(klish)로서 '뒤틀리다' 또는 '괴롭히다'를 뜻한다. 번뇌는 우리에게 틀림없이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적이 될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는다.

분노는 그 모든 중독적인 힘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적이다. 분노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나의 스승 타라 툴쿠(Tara Tulku)는 핵폭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증오가 부추긴 분노라고 말하곤 했다. 인간으로 하여금 버튼을 누르고 열쇠를 돌려서 극한의 물리적 파멸을 촉발하도록 몰아붙이는 것은 분노로 폭발한 증오이다.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행위를 평가할 때는 '생각이 곧 행위'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은 동기를 일으켜 물리적 행위를 유도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생각 자체가 물리적 행위이다. 다만 포착하기 어려울 뿐이다.

저자 : 샤론 샐즈버그, 로버트 서먼 〈담앤북스 펴냄〉

일일시호일

심장구멍·고혈압·호흡곤란까지…
기로에 선 어린생명

스리랑카에서 온 말리트씨 딸 미실캬라 태어나자마자 치료실 행
3000만원 병원비로 지불…매일 100만원씩 갚아야 할 1500만원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대행 스님

오늘 살다 이따 죽는 한이 있더라도 허허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원을 하면서도 자신이 없어요

질문 마음공부를 하면서 서원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하기에 저도 큰스님처럼 금생에 이 도리 깨달아 자유인이 돼 보리라고 서원을 세워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하면서도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주제를 모르고 너무 큰 원을 세운 것일까요?

답변 이거 보세요. 꽃나무가 만약에 자기 뿌리를 못 믿어서 '내가 지금 꽃이 피고 있는가, 안 피고 있는가' 이런다면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나무들이 '아, 내가 지금 열매가 맺을까? 꽃은 피었는데 열매가 맺을까, 못 맺을까?' 이런다면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냥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싹이 있으니 그대로, 그대로 여여하게 살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그거를 내가 공부가 잘되는가 안되는가 걱정합니까? 그건 못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완벽하게 내 뿌리가 있다는 것만 믿는다면 그 싹은 거기에 의지하고 전체가 거기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이것도 없습니다. 그냥이지. 그냥 무조건입니다. 입력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벌써 문을 막는 겁니다. 잘되려니, 그렇게 되려니 안 되려니 하는 이유가 붙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입력을 할 때에도 '이게 언제 될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아이, 나 같은 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거기 들어간다면, 금반지를 만드는데 그냥 무쇠도 넣고, 다른 걸 모두 넣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반지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냥 입력을 해 두고 이 생에 못하면 내생에라도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가짐….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부산을 지금 갈 텐데 말입니다, 아주 급하게 부산을 꼭 가야 하는데 '이거 가야 옳은가?' 또 가다가도 '이거 가야 옳은가, 안 가야 옳은가?'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급해서 꼭 가야 할 일이라면 그냥 무조건이지, '내가 여길 가는데 지장이 없을까? 내가 가는데 실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갑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빌딩에 들어가서 자는데 불이 났다 합시다. 불이 나니까 살 궁리만, 살 궁리도 아니고 그냥 구멍을 뚫고 나갈 생각만 나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불이 그냥 전부 타올라서 사방이 막혔는데 '내가 어디로 나가야 나갈 수 있는가?' 요것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기가 죽어갈 때, 숨이 딱 끊어지려고 할 때는 자식들을, 조그만 새끼들을 죽 앉혀 놨어도 그건 어쩔 수 없이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숨이 끊어지게 돼 있을 때는 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죠, 자식이고 뭐고. 그것도 숨이 붙어 있고 살 때 얘기죠.

그런 마음이라야만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오직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그 구멍이라는 건 여기 자기 선장의 구멍밖엔 없어요. 통신이 되는 것도 그렇구요. 하다못해 새 한 마리도 통신을 하려면 거기밖엔 없거든요. 그래서 서산 대사가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데도 그 마음이 통해서 새가 됐으니까, 서산 대사가 새가 돼 버렸으니깐 새가 자기가 앉고 싶은 대로 앉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실답지 않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공부는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정수에 자동적인 컴퓨터가 누구나 다 있으니까 내가 관하는 것이 대뇌를 통해서, 사람 기계가 그렇게 돼 있단 얘깁니다. 대뇌를 통해서 정수에 입력이 된다는 얘깁니다. 정수에 입력이 되면 사대로도 통신이 됩니다, 또.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는 작용도 해 주게 된다 하는 것은 그렇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살들이, 즉 말하자면 어떤 용도에 따라서 응신이 될 때에 지장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또 약사도 되고 칠성부처도 되고, 주해신의 보살도 되고 주산신의 보살도 되고 지신의 보살도 되고 그냥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천차만별로 화해서 응신으로서 등장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해야 여러분이, 한 마디 해서는 생소하다가 두 마디 해서는 좀 낫고, 또 세 마디 하면은 좀 더 낫고 그러다 보면 아주 자기 게 돼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냥 실천을 하는 거죠. 작든 크든 간에 내 앞에 대치를 하는…, 그냥그냥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잘 안되면 되게끔 하는 실천. 그러나 자기가 과거로부터 지어 놓은 그 모든 것은 차원이 넓어져야 그게 없어지지 차원이 좁은 대로 그냥 있으면 그걸 아무리 되게 하려 해도 자기 마음이 좁기 때문에, 차원이 좁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힘들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입력이 됐다고 믿었으면 '아, 입력했으면 나오겠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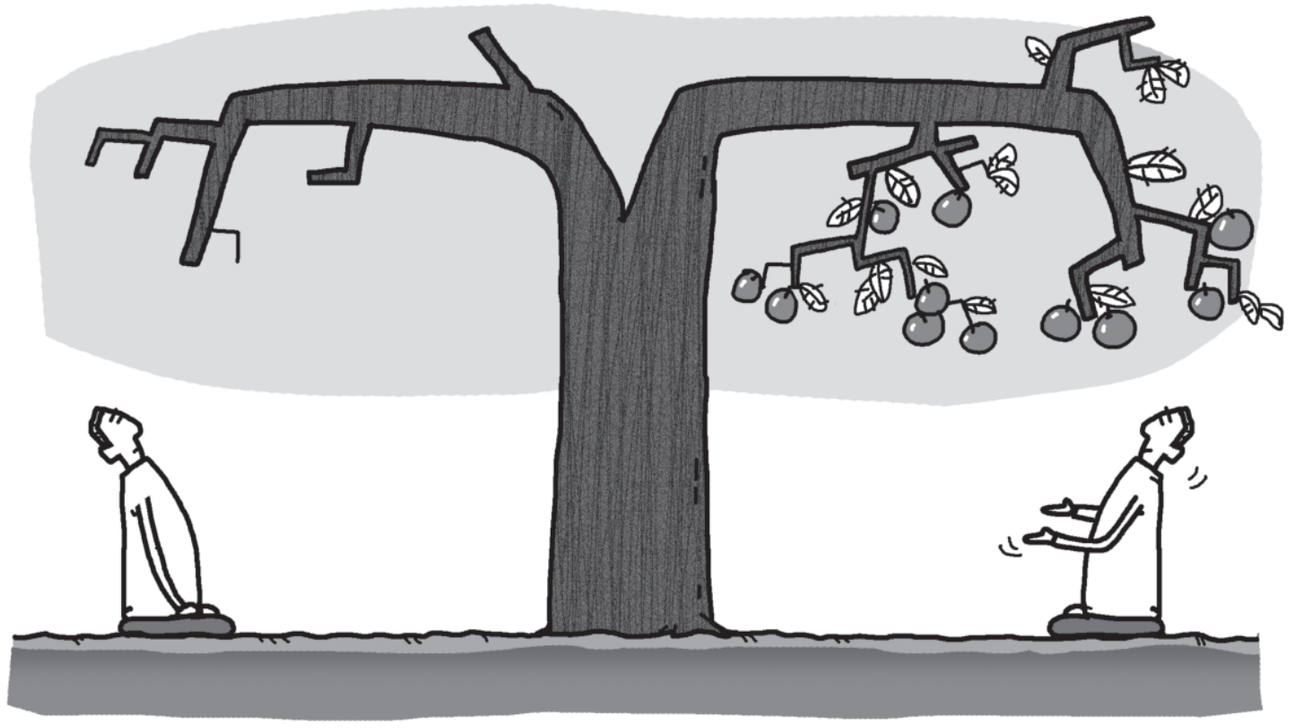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인상이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질문 거울에서 저를 보면 인상이 찌그러져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살아 보려고 하는데도 성격이 급해서 화를 내는 일이 자주 있다 보니 그게 얼굴에 다 새겨져 버렸나 봅니다. 마음공부를 하면 얼굴 인상도 편해지겠죠?

답변 여러분이 그저 스스로서 자기가 웃고 스스로서 얼굴을 펴고 사셔야죠. 이게 간판이나 한가지예요. 벌써 마음이 우그러지면 몸까지 얼굴까지 우그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죠. 한 식구가 있는데 마음을 우그러뜨려서 좀 아주 사는 게 각박하고 '에이, 죽고만 싶다'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주 우그러지죠. 그러니까 얼굴도 우그러지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왜 또 저렇게 화가 나셨나? 왜 저이가 저런가?' 하고 식구들은 눈치를 보고 편안치 못하죠, 모두가. 식구 수대로 다 그렇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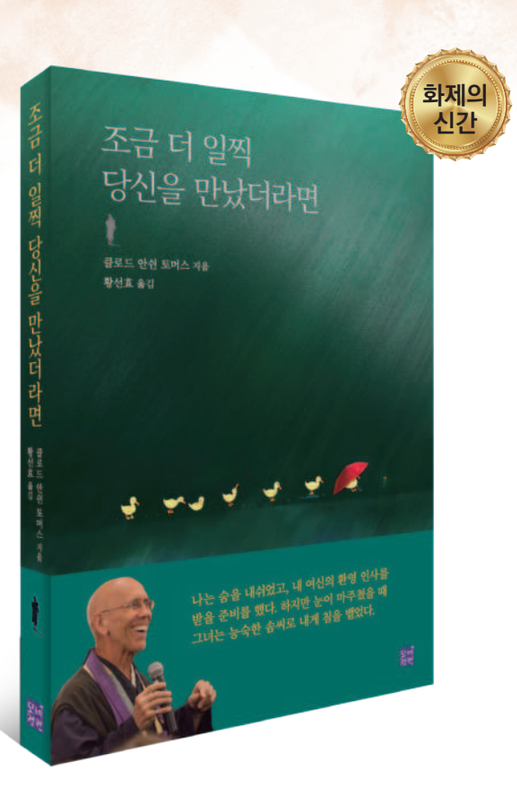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더라도 그대로 마음 편안하게…. 다 자기 근본 주인공, 거기다 맡기니까, 맡길 데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맡길 데가 없다면 정말 편안치 않겠죠. 맡길 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살기가 편안하다. 그런데 맡기면 그렇게 안 되느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전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데는 거기밖엔 없다.

우리가 이 사는 이치가 여러분의 생각대로예요. 생각대로니까 생각을 좀 옹졸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펼쳐서 편안하게만, 살기 좋게만 만드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여직껏 그렇게만 보고 살아와서 넓은 세계를 모르고 좀 편안한 세계를 모르고 편안한 일을 모르고 이러니깐 크게는 생각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세상은 너무 밝은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좁히고 우리나라, 나라가 있으니까 각 나라에서 자기 나라는 자기 나라대로 위하고, 또 종교가 다르고 모두 그러니까 모두들 맡아 가지고 있겠지만 이 한국은 한국대로 한국 사람만이 맡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사람이 밉다 하면은 그 사람 미운 거 하나 가지고선 온 나라를 다 그르쳐 놓는 거 있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편안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편안하면 웃음도 나오고 남도 좋게 말도 해 줄 수 있고 좋게 참 이끌어 줄 수도 있고 그런데요, 마음이 불안하면 남도 건질 수가 없죠. 그

☞ 22면으로 계속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남을 하대하고 보면 안 됩니다

☞ 21면에서 계속

런데 마음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이게 뭐, 마음이 그렇게 나간다고 그게 되나?' 이렇게 하겠지만, 오늘 비는 오지 않아서 그렇게 애쓰지는 않으셨죠. 그쯤만 되면은 편안한 거죠, 뭐.

이게 쪼그맣든지 크든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쪼끄만 걸 가지고도 몸이 불안하고 편치 않아서 온통 이틀 사흘이 가도록 그냥 엉클어지게 되고, 그럼 그게 오래가면 병이 되고 그런 거죠, 뭐. 혈관이 막히고 피가 제대로 가질 못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깐 이 공부 하는 분들은 모두가 그저 이 자기 내면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삼라만상 일체를 하나 지금 현실로 만이 다 갈 수가 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실에 미래도 있는 거고 과거도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의 생각대로 이 모든 거를 다 헤쳐 나갈 수 있다.

여러분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이 누진을 컴퓨터라고, 자동적인 컴퓨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동적인 컴퓨터에 과거에 살던 모든 것이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실에 다시 모든 것을 거기다 놓는다면, 입력이 된 데다가 다시 놓는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고 새로이 입력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새로이 입력된 게 현실에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가. 업이 많구나.' 이런 것도 다 무효예요, 이게.

업이다 죄다, 내가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깐 이 업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도 거기다 놓고 우리가 지금 삶이 없이 사는 겁니다. 먹는 사이가 없이 먹고 사는 사이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껍질을 이끌어 가면서 이게 상대성으로서 모두 더불어 같이 이렇게 봐야만 다 잡히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물질로서는 그렇게 봐야만 사는 거니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차라면 끌고 다니는 속의 운전수가 그걸 전부, 더럽고 그러면 닦고 뭐, 고치고 또 망가지면 아주 폐차를 시키고 새걸 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전력이라고 얘길 하지만 우리가 한 생각에 그렇게, 요 한 발짝 너머가 미국도 되고 한 발짝 너머가 중국도 되고, 한 발짝 너머가 딴 혹성이 되고 은하계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데서는 전부 뜻으로, 그 진리의 뜻으로써 혼합이 되니까 여기서 물질로서 살던 분들이 가면 그게 맞지를 않아서 누가 받아들이지도 않을걸요? 이 모두가 여러분이 살아나가시는 데 참 편리하고 편안하다 이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편안하다. 지금 금방 죽을 일이 생겨도 '이거는 네가 한 거지 딴 데서는 이러지를 않아. 너밖에 할 놈이 없으니까 고치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야. 죽이는 것도 너고.'

이 모두가 현실로서 우리가 주장하고 나갈 수 있는 건 전부 지금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이 껍질, 몸, 모습은 이렇게 다 망가져서 벗고 그러지만 이 자기의 그 모습 아닌 내면의 근본은 세세생생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사는 거죠. 진화는 이 모습을 진화시켜서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편리한가, 또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사람 모습으로, 움죽거리는 모습으로 나오니깐 고달프고 귀찮아 이런다면 또 딴 게 뭐 있나 이런 것도 좀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왜 도깨비가 말입니다, 거 비유해서 하는 얘깁니다. 보살들의 행이라는 건 보지를 못하셨으니까, 도깨비장난 하는 건 봤어도. 그런데 도깨비가 금방 여길 뛰어와서 다 보고 이렇게 하고도 또 딴 데로 없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보살은 없어지는 것보다도, 이게 개구리에게 진화를 시키는 마음을 주려면 또 이 개구리가 될 수도 있고 돼지도 될 수 있고, 수만 가지가 다 인연 따라서 전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사는 게 없이 사는 거예요.
> 그냥 탤런트 역할 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 알고 보면 악 쓰고 화낼 게 하나도 없어요.
> 그저 걸림이 없이 이 공부를 꾸준히, 끊어뜨리지 않고 가는 거죠.

일 초도 모습이 가고 오고 이게 아니라 이게 전부 그 마음이 진화를 해서 다른 걸로 모습을 가져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억수 같은 이 모든 마음의 장난이라고 할까, 마음으로써 이 도량을 이끌어 가는 문제들, 내 몸까지도 작은 도량이라 해도 됩니다. 큰 도량 작은 도량 뭐, 도량도 하도 여러 가지 많은 그 도량을 다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의 뜻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을 하려면 이 도리를 배우는 길밖에 없어요. 이 마음의 도리를. 진짜로 말입니다.

가정불화가 심합니다

질문 참 인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할 때는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자식들 낳고 살다 보니 남편과 자식들 사이에 불화가 심하고 살 의욕이 생기질 않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분이 말로만 '사랑 사랑' 하지 진짜 사랑을 한다면,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보기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끼리끼리 만난 인연들이거든요. 우연이라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도 살아 보시지마는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를 하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모여서 논의하고 이러죠.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가 있습니까?

한 가족이 모이는 데도 사과는 사과대로 모이고, 금은 금대로 모이고, 은은 은대로 모여서 살고, 구리는 구리대로 모이게끔 돼 있거든요, 넝마는 넝마대로 모이고요. 그래서 세계가 지역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런 지역에 가서 태어나는 것도 끼리끼리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가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기계에다 넣고 큰 것 작은 것 고르고, 썩은 것 성한 것 고르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전부 따로따로 끼리끼리 놓고 팔고 사고 그러죠?

그렇듯이 사람도 차원에 따라서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하면서, 그 차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골라져서 지금 굶어서 죽는다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 저런 나라에 제각기 아주 철두철미하게 태어나죠. 미국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주 질서 정연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엉망으로 사는 것 같지만, 왜 잘사는 사람은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이렇게 못살게 되나 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한탄을 하고 그러지마는, 그게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일입니다. 누구한테 한가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다면 남을 미워할 수가 없고, 죄를 더 지을 필요도 없고, 뭐, 마음을 그렇게 초조하게 가져서 내 몸을 병들게 할 것도 없고, 망했다고 그냥 돈 버리고 사람 몸뚱이 버리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구요. 버렸으면 '어, 버려졌나 보다. 네가 버려지게 했으니까 네가 또 일으켜 세우겠지.' 이렇게 태연하게 마음을 먹고 늠름하게 나간다면, 아마 주변 어디서든지 자기 주인공이 귀한 사람을 끌어들여 만나게 해서 서로가 살게끔 될 겁니다.

그런데 뭐, 죽네 사네 하면서 집안의 식구들도 못살게 하고, 화가 나서 오며 가며 화풀이를 여기저기다 하니까 식구들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 복도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죠. 그 틈에 들어올 수가 있나요? 오늘 살다가 이따 죽는 한이 있더라도 허허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가 그렇게 겁나는 일입니까? 그러한 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내일 죽는대도 겁 안 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죽게 하지도 않아요. 청개구리거든요. 이렇게 한다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하면 이렇게 하는 이치가 바로 우리들의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야, 하늘이 무너진다는데 이거 다 먹어치우고 그냥 다 써 버리자.' 이러는 사람 앞엔 정말 다 써지고 하늘이 무너지지만, 허허허, 그저 그런 거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그대로 꿋꿋이 가면서 '아휴! 이따가 죽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사람이 소꿉장난을 하다가 날이 저물면 다 버리고 가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남의 재산을 함부로 쓰면 어떡하나, 주인공의 재산인데.' 그렇게 하고선 아끼고 좋은 일 잘하고 살면 그 값어치가 더 들어오면서 사람 살기가 유하고 하늘이 무너지지도 않고 그러죠.

기독교에서도 불바다가 된다, 다 죽는다 이러는데, 제가 스물몇 살부터 그러던 건데 여직껏 그래요. 하하하.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그것이 모습이 변해서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불바다가 되고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네 마음들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마음들이 그렇게 불바다가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의 근본은 불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헐렁해지면 정말 불바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잘 생각을 한다면, 어떤 거든지 내가 아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구의 수명도, 인간의 수명도 모두 사는 데까지는 그냥 살 거다 이겁니다, 사는 날까지는. 그게 무슨 소린지 아십니까? 사람도 사는 날까지 여여하게 살다가…, 나는 간다 뭐, 어쩐다 표시로써 3, 4, 5년씩 또 1, 2년씩 아프게 만들어서 온통 바깥으로 소문을 죄 내고 이렇게 해서 옷을 벗는 게 아니고, 옷 벗기 전에 가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와서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재차 그냥 세상으로 나가죠. 이렇게 좋은 법을 어찌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픈 것처럼 슬픈 게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정말 죽는다고 했을 때의 고통, 죽지 않아도 항상 고통을 받으면서 지겹게 아픈 사람들,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럭하고 살면 뭘 합니까? 이럭하고 살면 뭘 하느냐고 입으로다가 몇 번씩 외우면서도 그걸 겪어야 하죠. 그렇게 하다가 그냥 너무나 지겨워서 때로는 약을 먹고라도 좀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렇죠. 그럭하면 뭐 합니까?

생시에 살아 있을 때에 우리가 꺼풀을 벗으려면 미리 자리부터 만들어 놓고…, 왜 우리가 이사 가려면 집 먼저 사 놓고 이사를 가죠? 그런 거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주.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옷을 훌렁 벗고서 그냥 가면은 아픔으로 고통받지도 않을 거고, 그게 다 업이니까요. 또 자기 차원을 마음대로,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종업원에게 자꾸 화를 내게 됩니다

질문 저는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일하는 게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안쓰러워 내쫓지는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 자꾸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 마음 다스리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의 힘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정신 차릴 수 있게 째찍질을 좀 해 주세요.

답변 우리가 나쁜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죠. 나쁜 생각을 하면 벌써 자기부터도 좋지 못하니까요. 하여튼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남을 하대하고 보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모습과 같고 내 아픔과 같은 거니까요. 모두가 밉고 곱고가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주 이 고통스럽게 복장이 올라올 때가 많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천년만년 살 줄 알기 때문에 그 복통이 올라오도록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금방 지금 죽는다 이런다면, 죽을 줄 안다면 그 금방 죽을 텐데 뭐 그렇게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죽을 줄 모르니깐 그렇게 야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도 지금 사는 게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탤런트 역할 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면 악쓰고 화낼 게 하나도 없어요. 모질게 할 일이 하나도 없고요. 그저 걸림이 없이 이 공부를 꾸준히 길게, 끊어뜨리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많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너무 물질계로만 밝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계도 같이 밝아져야만이 이게 모두가, 우주와 지구, 이 다른 혹성도 모두 이, 형성이 되는 건데, 보고 듣고 이러는 것만 지금 야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반면에 발달되는 분들은 발달되고요.

이 공부를 해 가면서 '같이 더불어 이렇게 살고, 더불어 가고 있고, 더불어 이렇게 굴레바퀴가 돌아가듯 하는구나.' 하고 침착하게 생각하세요. 나 아닌 진짜 나가 없다면 정말 이런 생각도 못 하고 이렇게 고생하지도 않습니다.



| 현불 논단 |

불교문화기금 조성 나서자



주석 스님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이사장

국보 절반 이상이 불교문화재인
한국은 명실상부한 '불교문화국'
서구화된 실생활과 불교와 간극
보존 · 활용 양방향서 고민해야

결국 재정지원 우선적 선결과제
문화유산 보존 시민 참여 운동인
英 내셔널 트러스트 벤치마킹을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불교문화국이다. 이는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중 56% 이상, 보물의 65%가 불교문화재임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을 불교의 나라로 보는 이는 많지 않다. 이는 위의 문화재처럼 점차 불교와 사찰이 박물관화되고 있다는 우려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의 과반 이상이 불교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이 실생활에서 향유되고 창작되는 생활 문화는 시간이 갈수록 불교문화와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 반대로 현대화되고 서구화된 문화가 주도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불교계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 한국의 불교문화는 산중과 박물관이라는 공간과 과거라는 시간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한국불교는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축선상의 양방향의 과제를 모두 해결해야만 한다. 과거로 향한 과제는 지난 2000년간 이어져온 한국불교의 문화적 자산의 보존과 계승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화재청이라는 정부기관이 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2년도 문화재청에는 1조2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당연히 그 과반이상의 예산을 불교문화재의 보존에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1조2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라고는 하나 전체 약 5000개에 달하는 문화재 규모와 함께 끊임없는 보수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찰과 같은 불교문화재만 놓고 봐도 그 예산 규모가 결코 충분할 리가 없다는 판단이 쉽게 선다. 그렇다고 마냥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만 계속 요구하기에도 분명 한계가 있다.

두 번째 과제는 바로 미래의 방향으로 불교문화를 어떻게 창달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의 숙제로서 결코 마침표가 없는 수행 정진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각오를 필요로 하는 과제일 것이다. 대중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같은 공기로 숨을 쉬면서 대중들의 문화적 욕구를 창의적으로 이끌어주는 문화적 선구자의 등장이 절실한 시기이다. 과거 경전을 널리 대중들에게 보급하겠다는 일념에서 창의적으로 주조한 세계최초의 금속활자가 우리 선조들의 지혜에서 등장한 것을 좋은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적인 발명품에도 역시 재정지원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됐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과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미래의 새로운 문화유산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나가는 작업에는 필연적으로 재정적 기반이 먼저 조성돼야함이 필수적인데, 이를 전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할 수 없음은 분명한 현실이다. 이러한 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의미있는 사례가 바로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 일 것이다.

1895년에 시작된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는 국가적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단체로서 현재 영국에서 약 600만 명의 일반회원과 290만 명의 후원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2021년도 재정수입은 약 1조원으로 이 재정수입의 내역을 보면 회원 후원금 수입이 약 40%에 해당하는 4000억 원이며 나머지는 입장료 수입과 함께 정부기관과 복권 기금 등에서 지원금의 형태로 받아서 우리나라 문화재청의 1년 예산과 거의 맞먹는 규모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내셔널 트러스트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불교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함께 미래를 주도할 문화 창달에 전 불교계가 나서야 된다. 불교계 스스로 종단과 신도가 합심하여 원천 기금을 조성하고 이에 보조를 맞춰 정부와 기업이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불교문화 기금의 조성이 절실한 때가 온 것이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기록되지 않으면 역사는 없다

제주시는 한라산 백록담에서 태고의 정기가 흘러내린 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 서쪽 줄기는 탐라계곡을 따라 용연과 한두기로 내려오고, 다른 동쪽 줄기는 관음사를 품고 있는 아미봉 줄기를 따라 산천단을 거쳐 산지천으로 흘러 제주항에 이른다. 칠성의 기운을 받은 곳에 옛 탐라인들은 성을 짓고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그 지명은 남아 성안의 칠성통을 두고 동문통과 서문통으로 나뉜다. 그곳에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석불상 제주민속자료 1, 2호인 동 · 서자복(미륵)이 제주성의 수난사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원진은 〈탐라지(1653)〉에서 '만수사는 일명 동자복사라 하며 건입포 동쪽 해안 위에 있다' 라고 하였다. 이 만수사에서 바라보이는 서편에는 해륜사가 있다. 두 사찰은 모두 고려시대에 창건됐다.

그 후 조선의 배불정책으로 쇠퇴를 거듭하다가 1702년 목사 이형상에 의해 훼철되었다. 그는 〈남환박물〉에서 "주성 동쪽에 만수사가 있고 서쪽에 해륜사가 있어서 각각 불상은 있으나 상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마을 자체에서 한 사람을 정하여 돌보게 하고, 또 네 명절 때면 서로 모여서 예불할 따름이다. 나는 말하기를 점차 오래 둘 수 없으니 곧 두 사찰을 헐어서 공해로 옮겨 세우라 했다"라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도 두 불상은 현재까지 수호불로 남아있다. 사찰과 함께 불상을 훼철하였던 다른 사례에 비춰보면, 배불의 의지가 아무리 강한 목사에게도 이 두 불상을 향한 도민들의 마음을 외면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수호의 의미는 도민의 안녕을 비는 입춘굿의 시작을 알리는 고불제로 지속되고 있다. 도민들은 그 사찰 주변의 언덕을 '절동산' 이라 부른다.

이와 함께 기록되지 않아 잊혀가는 이야기가 몇몇 노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동한두기물은 예전에는 돌로 싼 원형 산물 터를 갖고 있었다. 이 산물은 목마른 말이 물을 먹는다는 의미의 갈마수, 혹은 스님들이 마시던 물이라고 하여 '중물' 이라고 했다. 예전에는 '버랭이깍' 으로도 불렸다. 그 중물은 선반물 동북쪽에 위치하는데, '콩큰물' 이라고도 한다. 절에서 이 물에 콩을 담가 불려서 두부를 만들거나 콩나물을 길렀기 때문에 콩을 큰(담근)물이라 한다."

두부는 주로 사찰음식으로 발전됐는데, 이색의 〈목은집〉 '대사구두부래향' 이라는 시에 처음 나오는 것으로 미뤄 고려 말에 원나라로부터 전래됐을 것이다. 이후 조선 시대에 두부는 사찰에서 관청에 공급하게 하거나, 왕릉 옆에 능침사찰을 짓고 조포사라 하여 제물로 바치게 하였다.

이로 미루어 해륜사 앞 콩큰물에서 만들어진 두부는 사찰에서만 쓰였던 것이 아니라 제주 관아와 선비들에도 공급됐을 것이다. 콩큰물 두부 제조 기술이 전승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날에도 '서문' 의 이름을 내세운 두부는 제주지역에서 유명세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제주성 동쪽 조천관 터 근처의 '절간물' 이라 불리는 용천수의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 사찰 관음사로 가는 길이라 하여 개남길(관음길)이라 불리는 올레길을 따라 걷다가 조천초등학교 뒤 대섬의 초입에 이르면 찾을 수 있다. 이곳에서도 두부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일품이라고 전한다.

〈제주 선래왓 주지〉

社 說

비구니 승가 위상 정립 계기되길

6월 17~18일 양일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는 특별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이 '세계의 비구니 승가: 현재와 미래' 를 주제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10주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세계 석학과 비구니 스님 15명이 참여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전 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황과 발전 방안들이 논의됐다.

카르마 렉쉐 쏘모 스님, 툽텐 죄된 스님은 미국계 티베트 불교 스님으로서 공히 비구니계를 수계받을 수 없는 티베트 불교계의 현실을 꼬집고, 수계 방안을 제시했다.

창쉔 스님이 발표한 대만불교의 사례에서는 선각자들의 양성평등적 교육 시스템이 비구니 승가와 대만불교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의 발표에서는 현재 한국 비구니 승가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비구니 수행공동체 설립, 국제 사미니 강원 개설 등 발전 방안을 공유됐다.

무엇보다 이날 학술대회가 의미가 있었던 점은 전세계 비구니 승가의 현실을 목도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세계에서 영향력을 떨치는 티베트불교나 남방불교에서 비구니계를 수지 못하는 현실은 불평등한 처사다. 양성평등이 세계적 화두가 된 시대에 성 불평등은 불교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성평등을 위한 노력은 불교의 가치에 부합한다"는 쏘모 스님의 주장은 그런 의미에서 설득력이 있다.

이번 학술대회가 대행 선사가 강조했던 "계급과 성별을 비롯한 어떠한 종류의 차이에도 차별이 없다"는 가르침을 구현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나눔의집 '정상화' 기대한다

최근 나눔이집 대표이사로 선출된 성화 스님이 6월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주요 사업 계획과 포부를 밝히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2020년, 내부고발자들이 제기한 의혹이 지상파 한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이후 혼란을 거듭하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온 지 횟수로 벌써 3년 째이기에 대표이사 선출은 그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성화 스님은 사회복지 전 영역에서 20여 년간 헌신하며 복지계를 선도해왔기에 불교계 안팎으로 빠른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인다.

성화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로시설로의 위치 정립' '역사관 재개관' '법인 시스템 정비' 등 크게 3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무엇 하나 빠질 수 없는 과제다. 할머니들을 평안하게 모시는 것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것이야말로 나눔의집의 설립 목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나눔의집 개원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나눔의집은 1992년, 불교계 원력으로 만들어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30년간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로 알리고 평화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능도 수행해 왔다. 운영상의 문제로 최근 물의를 빚었지만, 기본적으로 나눔의집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의 무게는 여전하다.

나눔의집이 하루빨리 혼란에서 벗어나 설립정신을 토대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불교계의 원력으로 시작된 만큼 불교계 전반의 관심과 애정 역시 빠질 수 없다.

대표이사 성화 스님이 나눔의집 본연의 역할과 원칙, 역사적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정상 운영에 박차를 가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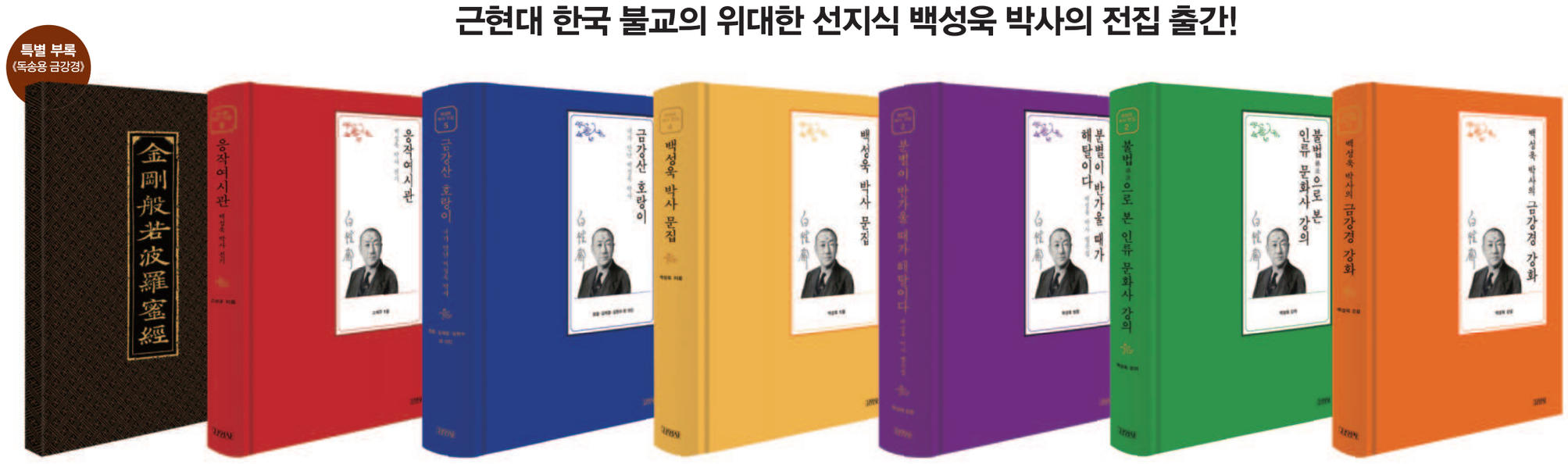


김영사

TEL:031)955-3100 www.gimmyoung.com

"내 말도 갖지 말고 다 바쳐라"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최초의 독일 철학박사, 금강산 10년 수행 후 도통을 이룬 시대의 활불活佛,
건국 운동가이자 내무부장관, 동국대 총장이자
근현대 한국 불교의 위대한 선지식 백성욱 박사의 전집 출간!



전6권
+《독송용 금강경》

백성욱 박사 전집

백성욱 박사 전집 1

백성욱 박사의 금강경 강화

백성욱 강설, 김강유 · 이광옥 · 김원수 받아적음 | 412쪽 양장 | 19,000원

《금강경》을 어떻게 실천 수행할 것인가! 독창적인 시각과 해석이 돋보이는 백성욱 박사의《금강경》해설서. 1959년 동국대 강의를 바탕으로, 문도들의 사가에서 설한 추가 강의까지 정리해 함께 실었다.

백성욱 박사 전집 2

불법佛法으로 본 인류 문화사 강의

백성욱 강의, 이광옥 · 김강유 받아적음 | 528쪽 양장 | 23,000원

불교의 관점에서 인류와 세계, 문화와 역사를 입체적으로 파헤친 백성욱 박사의 인문학 특강. 동국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교수와 학생들에게 강의한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해 20장으로 실었다.

백성욱 박사 전집 3

백성욱 박사 법문집 : 분별이 반가울 때가 해탈이다

백성욱 법문 | 840쪽 양장 | 29,000원

흩어져 있던 백성욱 박사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집약한 법문집. 부처님께 마음 바치는 법과《금강경》독송 수행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분류해 19장으로 나누어 실었다. 지인과 학인이 전하는 도인의 생생한 일화도 담겨 있다.

백성욱 박사 전집 4

백성욱 박사 문집

백성욱 지음 | 600쪽 양장 | 26,000원

백성욱 박사가 직접 쓴 논문 · 시 · 에세이 · 편지 · 법문 등 글 모음집.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 박사학위 논문인 〈불교순전철학〉을 포함하여,《불교》《동광》《동아일보》등 여러 매체에 기고한 40여 편의 글을 모았다.

백성욱 박사 전집 5

내가 만난 백성욱 박사 : 금강산 호랑이

정종 · 김재웅 · 김원수 외 19인 | 736쪽 양장 | 29,000원

서정주 시인, 백낙준 총장 등 22인의 명사와 학인들이 백성욱 박사의 진면목을 밝힌다. 백성욱 박사와의 일화, 경기도 소사 백성목장에서의 생활, 열반에 들기까지 생생한 이야기가 담긴 회고록과 수행기.

백성욱 박사 전집 6

백성욱 박사 전기 : 응작여시관

고세규 지음 | 404쪽 양장 | 18,000원

백성욱 박사에 대한 각종 기록과 언론 자료, 지인과 제자 학인들의 회고를 토대로 정리한 백성욱 박사의 생애와 세계. 편지와 논문, 시와 에세이, 주요 강의와 법문 등을 집약하여 펴낸 백성욱 박사에 대한 최초 본격 전기. 한 권으로 맛보는 백성욱 박사의 문장과 말씀, 일대기와 가르침.



"아침저녁으로《금강경》을 읽으시되, 부처님 앞에서 법문 듣는 마음으로 하시고,
이를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몸은 움직여야 건강해지고 마음은 안정함으로써 지혜가 생기니,
육체로는 규칙적으로 일하고, 정신은 절대로 가만두십시오.
그저 부지런히《금강경》을 읽고 '미륵존여래불' 하여 자꾸 바치십시오."

주문 및 문의 02-3668-3250 낱권 및 6권 세트 판매. 전6권 세트 144,000원(별책 부록《독송용 금강반야바라밀경》증정)

언제나 첫 마음으로, 처음 세상으로 떠나세요

10년 만에 산문을 열고 돌아온 덕조 스님의 희망의 메시지

"우리는 모두 일상의 구도자이며 순례객임을 거듭 일러주는 스님의 글에는 불일암의 오솔길을 닮은 소박한 따스함이 있습니다." _이해인(수녀, 시인)

덕조 스님 법정 스님의 맏상좌.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 매일 아침 BBS 불교방송 문자서비스 '아침을 여는 덕조 스님의 향기 소리'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있다. 30년 전 법정 스님으로부터 카메라를 선물 받은 뒤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저서로《마음꽃을 줍다》가 있다.



길 위에서 읽는 마음 이야기

다시 여행을 시작하는 그대에게

덕조 스님 글 · 사진 | 328쪽 | 올칼라 | 15,800원